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30
예술의초대 창간 30주년

COVER STORY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김준수·하윤주·두번째달 '팔도유람'

ART COLUMN

봄잠

골목에서 만나다. 생활 속 문화공간
춘자아트갤러리



김수현

April 2022
Vol.364

4

바이올린 송지원

지휘자 오봉도
예술감독

첼리스트
이영수

제 11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

- 새 시대의 기상 -

Program

- 차이콥스키 · 이탈리아 기상곡 작품 45
-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33
-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35 외 수곡



연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2022.05.10. TUE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문의 (사)부산사람 이태석기념사업회 www.johnlee.or.kr 051.637.0125

특별후원 **BNK** 부산은행 후원 **S** 부산일보사 **K** 국제신문 **KBS** 부산방송총국 부산 **MBC** **KNN**

무료관람 응모 **NAVER** 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www.johnlee.or.kr 추첨 후 개별통지

*나눔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본 음악회는 예술인 재능기부 공연입니다.

제 51회 정기연주회



Haydn Symphony No.94 II Andante
하이든 놀람 교향곡 2악장

Haydn Oboe Concerto in C Major
하이든 오보에 협주곡

Tchaikovsky Symphony No.5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지휘 | 오충근

오보에 | 고관수



창단 15주년 기념 음악회
ANNIVERSARY CONCERT

United
Korean
Orchestra

2022. 4. 20 수요일 pm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주관 | UKO United Korean Orchestra 후원 |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스타자등체(주) 수창건설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남포속바른내과·건강검진센터

문의 | 051-988-3087 입장료 | 균일 20,000원

본 사업은 2022년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National
Theatre
Live

A VIEW FROM THE BRIDGE

다리에서
바라본 풍경

원작 아서 밀러
연출 이보 반 호프

2022. 4. 30 | 토 1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전석 2만원

A production from
Young Vic


조항조·박애리 & 오케스트라

2022.4.21.

1목 | 오후 7시 30분

음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주최·주관  음속도문화회관 관람료 1층 3만원, 2층 2만원 입장연령 초등학생 이상

예매 음속도문화회관 YES24.COM 티켓 1544-6399 (예매시 20%할인) 문의 051,220,5811

60년의 전통과
진한 개성이 조합된 사운드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60주년
기념연주회 <회갑>
2022.11.02. (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22년 교향악단 창단 60주년, 합창단 창단 50주년
**부산시립예술단이 희망과 감동의 무대로
예술의 숨결을 전합니다**

부산과 함께한 50년
우리의 하모니가
부산을 넘어 세계로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합창단 50주년
기념연주회 <4인 4색 합창축제>
2022.10.28.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CONTENTS

04

월간문화예술정보지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예술의 조대 April 2022 Vol.364

2022년 4월호 통권 364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이정필
편집인 최용부
편집위원 동길산(위원장), 권은영, 이상현, 정두환, 정봉석, 채영희, 홍동식
홍보팀장 서정환
편집장 정복엽
발행일 2022년 3월 25일
디자인·제작 호민디앤피

08 Column

봄잠

10 Cover Story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김준수·하윤주·두번째달 '팔도유람'

14 거꾸로 보는 미술사 ⑨

사회의 빛과 그림자를 그린 그림들

18 세계오페라축제 ③

호수 위에서 펼쳐지는 오페라 축제
브레겐츠 페스티벌

22 골목에서 만나다.생활 속 문화공간

대중과 함께하는미술을 꿈꾼다
춘자아트갤러리

25 Preview

32 Review

38 Program Guide

49 New Book

50 BSCC News

SUN	MON	TUE	WED
<p>공연</p> <p>코로나19 장기화로 예정되었던 공연이 취소, 혹은 연기되고 있습니다. 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p> <p>전래동화 뮤지컬 '팔죽할멈과 호랑이' 2월 19일(토)-4월 3일(일) 주말 오전 11:00, 오후 2:00</p> <p>극단 영 '비발다의 사계' 4월 9일(토)-5월 6일(금) 주말 오전 11:00, 오후 2:00(평일 단체공연)</p> <p>■ 입장료 : 전석 2만원(3세 이상 관람) ■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p>	<p>부산문화회관 전시실</p> <p>2022 풀리처상 사진전 부산전시 1월 21일(금)-5월 15일(일) 관람시간 : 오전 10:00~오후 7:00 (입장마감 오후 6:00) ※ 매주 월요일 휴관 ■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3	4	5	6
		<p>2022년 부산시립예술단 꿈꾸는 예술학교 '교실 밖 합창 여행' 11:00 대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 뮤지컬 갈라 콘서트 19:00 첼 (쥘아트앤파트너스(02-332-6777))</p>	<p>2022년 부산시립예술단 '교실 밖 합창 여행' 10:30 대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만우절 음악회' 19:30 첼 1만원-5천원/(재)부산문화회관</p>
10	11	12	13
<p>2022 제40회 부산연극제 경연작_극단 에저도 '흔들린다' 16:00 대 전석 3만원/(사)부산연극협회(645-3759)</p>			
17	18	19	20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김준수, 하윤주, 두 번째달 '팔도유람' 17:00 중 5만원 3만원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UKO 창단 15주년 기념 'UKO의 밤' 19:30 대 전석 2만원/UKO오케스트라</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아트살롱(그림콘서트) '만우절 음악회' 19:30 첼 전석 1만2천원/(재)부산문화회관</p>
24	25	26	27
<p>제104회 전국무용예술제 10:00 대 (사)중앙무용문화연구원(02-866-8880)</p> <p>박승훈 Trumpet & Flugelhorn 독주회 '차가움 혹은 따뜻함' 17:00 첼 전석 1만원/음악실현실 짜임(010-2332-3627)</p>		<p>2022년 부산시립예술단 꿈꾸는 예술학교 '재밋는 클래식 맛있는 클래식' 10:30 대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 테너 윤석 귀국독창회 19:30 중 무료/SJ엔터테인먼트 010-9582-3899 박정희 피아노 리사이틀 '회상' 19:30 첼 전석 3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ED	THU	FRI	SAT
		1	2
		<p>◆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6회 정기연주회 '이방인' 19:30</p> <p>대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022 제40회 부산연극제 경연작_프로젝트팀 이들 '마리' 19:30</p> <p>중 전석 3만원/(사)부산연극협회(645-3759)</p>	<p>아르델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사랑의 송가 19:00</p> <p>대 10만원·7만원·5만원·3만원 아르델필하모닉 오케스트라(010-6209-9990)</p> <p>2022 제40회 부산연극제 경연작_프로젝트팀 이들 '마리' 16:00</p> <p>중 전석 3만원/(사)부산연극협회(645-3759)</p> <p>폴리처상 사진전 전시연계특강 '사진과 감동으로 전하는 보도사진의 힘' 14:00</p> <p>참 전석 1만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6	7	8	9
<p>꿈꾸는 예술학교 30 사업팀(607-3113) 단 특별연주회 0 산문화회관(607-6000)</p>	<p>2022년 부산시립예술단 꿈꾸는 예술학교 '교실 밖 합창 여행' 10:30</p> <p>대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p>		<p>2022 제40회 부산연극제 경연작_극단 에저또 '흔들린다' 16:00</p> <p>중 전석 3만원/(사)부산연극협회(645-3759)</p> <p>폴리처상 사진전 전시연계특강 '외신기자가 들려주는 폴리처상과 한반도' 14:00</p> <p>참 전석 1만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3	14	15	16
		<p>2022 제40회 부산연극제 경연작_극단 바다와문화를사랑하는사람들 '그루터' 19:30</p> <p>중 전석 3만원/(사)부산연극협회(645-3759)</p> <p>부산의 미래를 향한 신인음악회 19:30</p> <p>참 전석 2만원/부산문화(1600-1803)</p>	<p>2022 제40회 부산연극제 경연작_극단 바다와문화를사랑하는사람들 '그루터' 16:00</p> <p>중 전석 3만원/(사)부산연극협회(645-3759)</p> <p>제7회 벨라무지카 정기연주회 '드뷔시 탄생 160주년 기념 연주회' 17:00</p> <p>참 벨라무지카(055-785-1358)</p>
0	21	22	23
<p>음악회 19:30 에스트라(988-3087)</p> <p>회강좌 '전원경의):봄을 맞은 파리' 11:00 부산문화회관(607-6000)</p>	<p>◆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 19:30</p> <p>참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한울림합창단 창단 44주년 기념 정기연주회 20:00</p> <p>대 무료/한울림합창단(010-6252-0019)</p> <p>2022 제40회 부산연극제 경연작_극단 이야기 '슬픔이 찬란한 이유' 19:30</p> <p>중 전석 3만원/(사)부산연극협회(645-3759)</p>	<p>2022 제40회 부산연극제 경연작_극단 이야기 '슬픔이 찬란한 이유' 16:00</p> <p>중 전석 3만원/(사)부산연극협회(645-3759)</p> <p>폴리처상 사진전 전시연계특강 '우리 모두가 비주얼 스토리텔러가 되는 세상' 14:00</p> <p>참 전석 1만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7	28	29	30
	<p>하모니색소폰오케스트라 제7회 정기연주회 '힐내자! 대한민국' 19:00</p> <p>중 무료/하모니색소폰오케스트라(010-3517-3633)</p>		<p>2022 빅마마 전국투어 콘서트 'ReBorn' 18:00</p> <p>대 14만3천원·13만2천원·11만원 인터파크티켓(1544-1555)</p> <p>(재)부산문화회관 NT Live '다리에서 바라본 풍경' 15:00</p> <p>중 전석 2만원(만 15세 이상 관람)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이현우 귀국 바이올린 리사이틀 17:00</p> <p>참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SUN	MON	TUE	W
<p>안무</p> <p>코로나19 장기화로 예정되었던 공연이 취소, 혹은 연기되고 있습니다. 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부산시민회관 전시실</p> <p>COLINK 이은정 개인전 4월 1일(금)-4월 10일(일) 제1전시실 이은정 010-8200-3684</p> <p>결(Gyeol) 양수라 개인전 4월 1일(금)-4월 10일(일) 제2전시실 양수라 010-6665-3802</p>		
<p>3</p> <p>제4회 BIDF 코리아 댄스그랑프리 대 (사)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868-7681)</p>	<p>4</p>	<p>5</p>	<p>6</p>
<p>10</p> <p>패밀리 뮤지컬 헤이지니&럭키강이 시즌2 '비밀의 문' 11:00, 14:00 대 6만원·5만원/극단 바위처럼(1577-4868)</p>	<p>11</p> <p>임시정부수립 기념식 10:00 소 광복회 부산광역시지부(010-6202-0309)</p>	<p>12</p>	<p>13</p>
<p>17</p> <p>뮤지컬 '잇다르타' 14:00 대 13만원·11만원·9만원·6만원 쥬엠에스엠시(1661-4191)</p>	<p>18</p>	<p>19</p>	<p>20</p>
<p>24</p>	<p>25</p>	<p>26</p>	<p>27</p>

부산시민회관 2022 문화 명품극장 '달래이야기' 1
소 무료(지정좌석제, 초
(재)부산문화회관 60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WED	THU	FRI	SAT
		1	2 제4회 BIDF 코리아 댄스그랑프리 대 (사)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868-7681)
6	7	8	9 패밀리 뮤지컬 헤이지니&럭키강이 시즌2 '비밀의 문' 11:00, 14:00, 16:30 대 6만원·5만원/극단 바위처럼(1577-4868)
13	14	15 뮤지컬 '잇다르타' 15:00, 19:30 대 13만원·11만원·9만원·6만원 ㈜엠에스엠시(1661-4191)	16 뮤지컬 '잇다르타' 14:00, 18:30 대 13만원·11만원·9만원·6만원 ㈜엠에스엠시(1661-4191)
20	21	22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2 시민뜨락축제 블루양상블, 댄스팀 룩스' 12:20 아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3 포르테 디 콰트로 콘서트 '메타포닉' 17:00 대 13만2천원·11만원·8만8천원 ㈜월드쇼마켓(1566-5490)
27	28	29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2 시민뜨락축제 얼터너티브 국악그룹 초아, 룩스, 알싸께또마 부산플라멩코' 12:20 아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	30 콩순이 뮤지컬 시즌2 '우리들 음악회' 11:00, 14:00, 16:30 대 5만원·4만원/동그라미그리기(1577-4868)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봄잠

동길산
시인·본지 편집위원장

나는 잠이 많다. 젊어서도 그랬다. 틈만 나면 잤다.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직장 다닐 때도 그랬다. 책상에 엎드려 잠시 자는 선잠은 정말이지 달았다.

봄날 선잠은 유달리 달았다. 그것은 봄물을 빨아들이는 생뿌리였다. 생동하는 봄물이 뿌리를 거쳐 내 나른한 몸에 속속 스며들었다.

보약이 따로 없었다. 잠 한숨, 보약 한 첩이었다. 물오른 생뿌리를 잘근잘근 씹으며 잠에 빠져들었고 봄물이 파랗하게 들어서야 잠에서 깬다.

몇몇 봄잠은 지금도 기억한다. 잠이 늘 부족했던 중고교 시절은 점심만 먹으면 자는 바람에 기억이 밋밋하지만 대학 졸업반 어느 한 날 선잠과 졸업 후 첫 직장 어느 한 날 선잠은 기억이 선연하다.

이들 봄잠은 시로 이어졌다. 막 깨어 말간 정신에서, 어느 시인의 수사대로 시가 나에게 왔다. 대학졸업반 그때는 ‘식곤증’이란 시가 왔고 첫 직장 그때는 ‘바닥’이란 시가 왔다. ‘식곤증’은 첫 시집에 실렸고 ‘바닥’은 등단시가 되었다. 그러기에 이들 시를 불러낸 날의 봄잠은 지금도 선연하게 기억한다.

이들 시는 비가 소재다. 비를 보며 잠들었고 빗소리 들으며 깬 것이다. ‘이 비만 지나면/봄 같은 봄 으레이 오려니’의 ‘식곤증’과 ‘비는/위부터 적시지만/가장 많이 젖는 것은/바닥이다’의 ‘바닥’은 내가 아니라 비 오는 봄날의 선잠이 썼다.

‘시인은 시시한 인간의 줄임말.’ 이따금 던지는 농담이다. 하지만 농담만은 아니다. 시인은 왜 시시한가. 대범하지 않아서다. 단풍 들고 낙엽 져도 대범한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만 시인은 어디 그런가. 남의 일이라며 ‘나 몰라라’ 지나치지 못한다. 눈물을 글썽이거나 낙엽을 줍는다. 그래서 시인은 시시하고 시시할수록 촉촉한 시가 찾아간다.



꽃 피고 지는 봄날도 그렇다. 꽃이 아무리 피고 아무리 저도 대범한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서 제 갈 길을 가며 구호를 외치는 사람은 구호를 외친다. 그나마 시인이라도 있어 꽃은 피고 진다. 시인이 없으면 나무는 해마다 무슨 낙으로 꽃 피우며 무슨 말로 꽃 지는 낙담을 위로받을 텐가.

시인은 다 비슷비슷한 모양. 그 옛날에도 시인은 나무의 낙이었으며 나무를 위로했다. 맹호연(689년~740년)도 그런 시인이었다. 봄날, 잠자다가도 지는 꽃잎을 걱정했다. 나도 시한 편에 들지만 잠자다가 지는 꽃잎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다. 나보다 몇 곱절은 시시하고 몇 곱절은 축축한 인간이 중국의 시인 맹호연이었다.

봄날 곤한 잠에 날 새는 줄 몰랐는데
 사방에서 들려오는 새 지저귀는 소리
 간밤에 비바람 소리 들렸는데/꽃잎은 얼마나 젖을지.

제목 ‘춘효(春曉)’는 봄 새벽. 비 오는 봄날, 밤부터 새벽까지 곤하게 든 잠이 시가 되었다. 시가 쉽고 원문 한자는 한두 글자 빼고는 평범하다. 쉽게 쓰고 평범한 한자를 쓴 데서 시를 대하고 시의 독자를 대하는 시인의 심성이 엿보인다. 그가 남긴 한 편 한 편 고전이 된 이유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春眠不覺曉/處處聞啼鳥/夜來風雨聲/花落知多少
 춘면불각효/처처문제조/야래풍우성/화락지다소

또다시 봄. 또다시 꽃은 피고 진다. 누구는 가던 길을 멈추어 꽃그늘에 들고 누구는 꽃그늘 들어 사진에 담는다. 시인은 누군가. 가던 길 멈추어 꽃그늘에 든 모든 이가 시인이다. 시를 쓰든 쓰지 않든 지극한 눈빛으로 꽃을 보며 지극한 마음으로 꽃을 담는 이들 모두가 시인이다.

봄이 되니 춘곤증이 슬슬 도진다. 학교 다닐 때나 직장 다닐 때와는 달리 지금은 언제든 잠에 들 수 있어서 좋다. 하루 스물네 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다. 돈부자만 부자가. 시간부자도 부자다. 어쩌면 돈부자보다 시간부자가 더 부자다. 그렇지 않은가.

봄날 잠 한숨은 보약 한 첩.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그래서 잠에 들고 싶을 때는 전이나 지금이나 주저하지 않는다. 일은 그다음이다. 선잠이 지닌 약효를 익히 아는 까닭이다. 잠에서 막 깬 나는 기지개를 켜고 그리고 일어났다. 늘 그랬다.

문화예술계 여기저기 기지개 켜는 소리가 들린다. 잠들 때만 해도 선잠이려니 했는데 꽤 길고 깊은 잠으로 빠졌다. 그놈의 코로나!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남도 그랬고 우리 모두 그랬으니 어쩌겠나 싶기도 하다. 어쩌겠나. 몇 년치 보약을 달여 먹었다고 여기자. 이것 하나만은 염두에 두자. 우리가 잠든 동안에 ‘꽃잎은 얼마나 젖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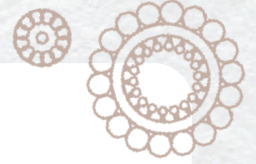


김준수×하윤주×두번째달 국악&재즈 크로스오버의 색다른 무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퓨전밴드 두번째달과 '국악계 아이돌'로 꼽히는 남도 소리꾼 김준수, 정가 보컬리스트 하윤주가 만나 새로운 색깔의 음악 무대를 선사하는 '팔도유람'이 4월 17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음악으로 만나는 전국 팔도의 모습'이라는 뜻을 담은 '팔도유람'은 두번째달이 지난 2019년 발매한 동명의 음반작업에 함께 참여했던 김준수, 하윤주 등 장르별로 개성과 색깔이 뚜렷한 두 명의 보컬리스트와 함께하는 국악콘서트이다. 기타, 바이올린, 피아노, 아이리쉬 휘슬, 만돌린 등 다채로운 악기에 소리꾼의 음색까지 더해진 색다른 퓨전국악 무대로, 이번 무대에서 김준수는 판소리 창법으로 선곡은 애절함을, 하윤주는 고전적인 목소리에 현대적인 감성을 담아 노래한다.





국악과의 다양한 프로젝트로 사랑받는 대한민국 대표 크로스오버 밴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크로스오버 퓨전밴드인 '두번째달'은 서양의 여러 민속음악을 바탕으로 탱고, 왈츠, 라틴, 팝, 뉴에이지, 재즈, 국악 등 이질적인 장르들을 넘나들며 새로운 음악적 시도로 음악의 외연을 넓히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2004년 두번째달의 데뷔곡이자 MBC 드라마 '아일랜드'의 주제곡으로 유명한 '서쪽 하늘에'는 이채로운 캬틱 민요를 차용해 에스닉 퓨전이라는 생소한 음악을 선보이면서 당시 연주곡으로는 드물게 대중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TV드라마 '불량가족', '궁', '궁-외전', '궁S' 등 드라마 OST에 연이어 참여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2005년 발표한 첫 정규앨범 '2nd Moon'은 2006년 제3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3개 부문을 석권했으며, 2007년에는 한국대중음악 100대 명반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2016년 소리꾼 김준수, 고영열과 함께 발매한 '판소리 춘향가'는 전통음악이 지니고 있는 특유의 말과 시김새 등의 표현방식을 살리면서 현대적인 음악과도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음악극 형태로 연주, 다양한 연령의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지난 2017년 제14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크로스오버 음반 부분을 수상했다. 두번째달은 이듬해인 2018년 경기민요 소리꾼 송소희와 함께 '모던민요'를 발표하는 등 국악과의 콜라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 오다 2019년, 그동안 음반으로는 발표되지 않았던 다양한 국악인들과의 콜라보레이션 작품들을 모아 음반 '팔도유람'을 발표했다. 최근 들어서는 TV프로그램 '불후의 명곡'에 출연하여 신선하고도 깊이 있는 음악으로 시청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서는 판소리 공연으로 전 세계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도 했다.



대중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국립창극단의 간판스타



국립창극단의 간판스타 김준수는 지난 2009년 임방울 국악제 고등부 대상을 수상하고 같은 해 국립극장 '차세대 명창'에 선정되며 소리꾼으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2013년 국립창극단에 입단하자마자 창극 '서편제'의 어린 동호역으로 첫 주연을 맡았고 이후에도 다수 작품에서 주역배우로 활동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KBS '불후의 명곡', tbN '너의 목소리가 보여' 등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김준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서 두번째달과 함께 판소리 공연을 가져 전 세계인들에게 국악의 매력을 알리기도 했다.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29-4호 판소리 '수궁가' 이수자이자 'KBS 국악대상' 최연소 대상 수상자(2021)이기도 한 김준수는 여러 대중매체 출연을 통해 우리 소리의 매력을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7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을 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국악 경연 프로그램으로 많은 화제를 불러보았던 JTBC '풍류대장'에 출연, 대중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소리꾼으로 발돋움했다.





김준수

하윤주



두번째달

고전적인 목소리로 현대적인 가성을 아우르는 정가 보컬리스트

정가는 판소리, 민요 등의 민초들이 즐겼던 민속음악과 구분하여 정악이라 불리는 양반들의 음악 중 하나로 어려운 박자와 긴 호흡으로 다른 음악과의 협업이 까다로운 편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이수자인 하윤주는 고전적인 목소리로 현대적인 가성을 아우르는 정가 보컬리스트로, 2018년 KBS국악대상 가악부문, 2019년 문화체육부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하윤주는 그동안 KBS '6시 내고향' 리포터로 시청자들에게 친숙한 매력을 선보였으며, MBN 음악예능 '로또싱어', KBS 뮤지컬 드라마 '구미호 레시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통 성악의 멋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눈과 귀를 사로잡는 풍성한 레퍼토리

이날 무대에서는 음반 '팔도유람'의 수록곡을 비롯해 '불후의 명곡'과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세계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우선 두번째달은 대중에게 처음 이름을 알린 드라마 '아일랜드'의 OST '서쪽 하늘에'를 비롯해 서정적인 멜로디가 인상적인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의 OST '달빛이 흐른다', 그리고 드라마, CF 음악으로 사랑받았던 두번째달의 히트곡을 메들리로 엮어 들려준다.

김준수는 2016년 두번째달과 함께 발매한 국악프로젝트 앨범 '판소리 춘향가'에 수록된 '적성가', '사랑가', '이별가', '어사출두'를 들려준다. 특히 '어사출두'는 그동안 '풍류대장'과 '2021 KBS 국악대상' '너의 목소리가 보여'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단단한 소리와 카리스마 넘치는 조선판 휘모리랩으로 시선을 사로잡으며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하윤주는 이번 무대에서 동명의 전통성악곡을 새롭게 해석한 '나비야 청산가자', '모란은, 퇴계 이황선생의 시가인 '도산 12곡' 중 '제6수'를 노래한 '사람과 꼭 닮았다', 나태주 시인의 시 5편에 곡을 엮은 '황홀극치' 등 전통 성악의 멋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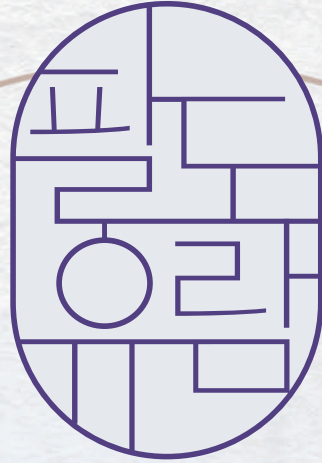
김준수 하윤주 두번째달 팔도유람

4월 17일 일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ARS 1번)

김준수·하윤주·두번째달
국악&재즈 크로스오버



일시: 2022. 4.17.(일) 17:0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국악 &
JAZZ

*주최: (재)부산문화회관 *주관: (재)부산문화회관, 프로덕션 고급
*관람대상: 초등학생 이상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공연문의: 051)607.6000(ARS 1번)

2022
4.17(일)

*소리: 김준수, 하윤주 *연주: 두번째달

김준수 한국립창극단 단원, JTBC 통류대장-힙한 소리꾼들의 전쟁! 준우송
하윤주 2018 KBS국악대상 가악상 수상, 2021 뮤지컬드라마 <구미호레시피> 주연
두번째달 2017. 2 제1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크로스오버 음반, 드라마ost <궁, 구르미 그린 달빛, 푸른 바다의 전설>

사회의 빛과 그림자를 그린 그림들

DE LA CROIX

허나영 한국연구재단 연구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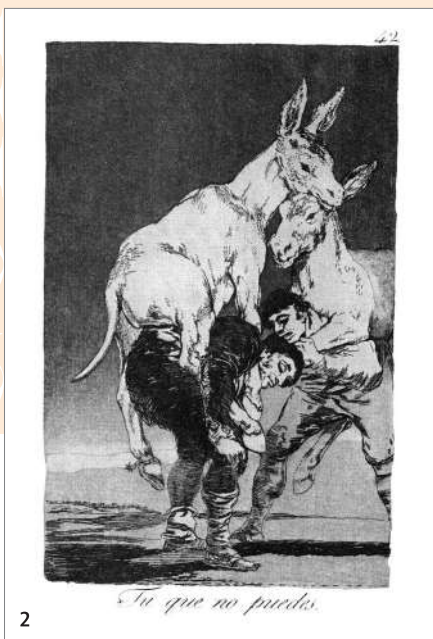


2022년 상반기는 선거와 전쟁으로 혼란스럽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질서를 찾고자 선택하고 의견을 낸다. 그 질서의 핵심에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평등과 인간에 대한 존중이 있다. 하지만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는 불평등한 신분을 기반으로 인간의 생명과 존재 가치도 다르게 평가했다. 왕을 비롯한 귀족은 서민보다 귀하다고 생각했고, 전쟁을 통해 다른 민족을 노예로 부리기도 했다. 하지만 오랜 역사를 통해 누적된 인간의 가치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현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존엄하다는 사실이 진리가 되었다. 비록 현실적으로 완벽한 상황을 이루지는 못 할지라도 말이다. 이러한 유럽에서 인간 평등의 가치에 대한 불꽃은 18세기에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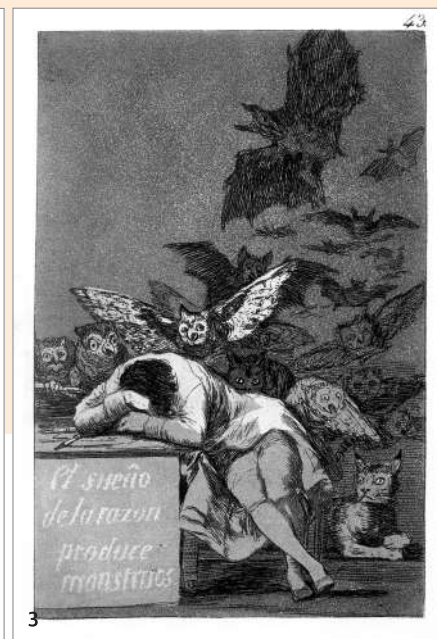
세상을 밝히고자 한 햇불

- 1 들라크루아,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1803년 7월 28일>,
1830년, 캔버스에 유채, 260×325cm,
프랑스 파리 루브르 미술관 소장
- 2 고야, 판화집 『변덕들』 중 42번, 1799년, 에칭,
에퀴티트, 프랑스 릴 미술관 소장
- 3 고야, 판화집 <변덕들> 중 43번
<이성의 잠은 괴물을 낳는다>, 1797-1799년,
에칭, 아쿠아틴트, 프랑스 릴 미술관 소장

‘자유, 평등, 박애’라는 세 가지 가치를 내건 프랑스 대혁명은 작은 불꽃이 모여 피어오른 햇불이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자유’의 이미지 **[도판 1]**가 이 시기부터 새로운 사회적 이념의 상징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뉴욕의 동상인 ‘자유’의 여신도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을 기념하여 준 선물이며, 교과서에도 자주 등장하는 프랑스 화가 들라크루아(Eugène Delacroix, 1798-1863)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도 프랑스 대혁명 중 1803년에 일어



2 *Su que no puedo.*



3

난 7월 혁명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프랑스 대혁명은 요즘 말로 수저 계급론이 제도화되어 있던 신분사회를 타파하고 구제도(양시앵 레짐, Ancien Régime)를 타파하고자 시작되었다. 다시 말해 하늘 아래 인간은 평등하며 모두 자유롭다는 사상을 근간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혁명은 정치 싸움이 되기 일쑤였고, 각 세력들이 다른 세력을 누르기 위한 선동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그에 반해 7월 혁명은 혁명가뿐 아니라, 노동자, 부르주아, 군인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한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들라크루아는 생각했다. 그래서 자유를 의인화한 여신이 이끄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프랑스 대혁명은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에 있어서 큰 사건이었다. 너무나 당연한 듯 받아들이던 신분제를 인간을 억압하는 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왕정제도가 부당하다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실제로 현재까지 왕정을 유지하는 나라들 역시 그 존재에 대한 논의가 계속된다. 이렇듯 부모의 혈통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의 바탕에는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형성된 계몽주의(Enlightenment, 啓蒙主義) 사상이 있었다.

계몽주의란 무지하고 몽매한 상태에서 깨우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어와 프랑스어에서는 ‘빛’을 강조한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듯이, 몰랐기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합리적 이성(理性)이라는 빛을 비취 깨닫게 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성이라는 횃불을 든 지도자가 앞장서고 사람들을 가르치고자 했다. 이는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분에 상관없이 교육할 수 있다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 기반이 되었다. 계몽주의는 사상가들을 통해 글로 전달되었고, 점차 사회 저변에 넓어지면서 문학과 연극, 그리고 시각예술로도 표현되었다.

인간 내면의 어두움을 그린 고야

당시 유럽의 문화적 변방이었던 스페인 왕실화가 고야(Francisco José de Goya y Lucientes, 1746-1828) 역시



4 고야, <검은 그림(pinturasnegras)> 연작 중 <아들을 먹어치우는 사투르누스>, 1819년-1823년, 캔버스에 유채, 83×146cm, 스페인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소장

5 제리코, <메두사의 뱀목>, 1818년-19년, 캔버스에 유채, 491×716cm, 프랑스 파리 루브르 미술관 소장

계몽주의의 빛에 감화되었다. 비록 당시 스페인에는 아직 혁명의 횃불이 지펴지지 않았지만, 고야는 왕실화가로 활동하면서도, 계몽사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개인적인 예술 활동도 함께 하였다.

고야는 80점의 판화를 모은 판화집 <변덕들(Los Caprichos)>(1799)을 발간하였는데, 당시 스페인 사회에 만연해 있던 불합리한 문제들에 대한 풍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중 타고 다녀야 할 당나귀를 업고 다니는 두 남자의 모습[도판 2]에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당대의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그렸다. 그리고 <이성의 잠은 괴물을 낳는다>[도판 3]에는 잠을 자고 있는 한 남성 뒤로 울 째미와 박쥐가 날아드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탁자의 글귀를 참고해서 보면, 이성을 가진 인간이 현실을 외면한 채 잠들어 버리면, 악몽과 같은 괴물들이 나와 세상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말해 깨어있는 이성의 필요성을 말한 계몽주의 정신을 표현한 것이다.

이외의 수많은 판화를 통해 고야는 많은 사람이 자신의 그림을 보고 불합리로 가득한 현실에 갇혀있는 우매함을 깨우치길 바랐다. 하지만 이 작품은 너무나 보수적이었던 스페인의 기득권 세력에는 좋게 보이지 않았고, 출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야는 스스로 책 발간을 멈췄다.

고야는 이러한 작업을 하면서도 왕실 화가로서 왕가와 귀족의 초상화를 제작하는 등의 공식적인 업무도 함께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고야가 은퇴를 하고 칩거를 하던 집에 자신이 갖고 있던 창조적 예술표현의 집합체를 남겼다. 생전에는 어느 사람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검은 그림 연작(Las Pinturas Negras)>이라 불린다. 누군가에게 보여줄 목적이 아니었던 만큼 고야는 자신의 내면을 그대로 담았다. 그중 로마 신화 속에서 자신의 아이들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Saturnus)를 그린 모습은 똑바로 바라보기 힘들 만큼 끔찍하다.[도판 4] 사투르누스는 로마 신화의 신으로, 자신의 아이에게 왕위를 빼앗긴다는 신탁을 듣고 아

이가 태어나면 바로 삼켜 버렸다. 하지만 부인인 가이아의 계략으로 그 아이들을 다시 토해내게 되어 결국 아들인 유피테르에게 쫓겨서 이탈리아 반도에 가게 된다. 그런데 고야는 자신의 아이들을 신화와 다르게 뜯어먹는 폭력적인 모습으로 사투르누스를 표현하였다. 검은 공간 속 사투르누스는 머리와 팔이 이미 뜯어먹힌 시체를 들고있다. 뜯어먹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그저 광기 어린 눈빛이 보는 이를 압도한다. 어쩌면 이러한 광기를 고야는 자신에게서 발견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는 계몽주의의 빛에서는 드러낼 수 없는 숨겨야만 하는 것이었다.

끔찍한 사회 뉴스를 그린 제리코

프랑스 혁명을 통해 많은 예술가들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취미에 맞는 그림이 아니라, 고야처럼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고야가 공공연히 자신의 사상을 드러내지 못했다면, 프랑스의 화가 들라크루아나 제리코(Jean Louis André Théodore Géricault, 1791-1824) 등은 거대한 작품 속에 소리없는 외침을 담았다. 들라크루아가 '자유의 여신'을 통해 혁명정신을 시각화했다면, 제리코는 <메두사의 뗏목> [도판 5]으로 당시 사회상을 고발하였다.

이 작품은 1816년 7월 2일에 실제로 있었던 해군 군함 메두사호 난파 사건을 모티브로 하였다. 메두사호는 세네갈을 식민지로 삼기 위해 파견된 프랑스 군함이었다. 배가 난파되자 선장을 비롯한 일부 선원들은 구명보트를 뺏지만, 나머지 149명의 선원과 승객은 뗏목에 몸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13일동안 물과 식량이 없이 표류하게 된 이들은 지옥과도 같은 상황에 처했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 구조된 인원은 15명에 불과했다. 이 사건은 무능한 지휘관으

로 인한 인재였고, 정부는 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기에만 급급했다. 하지만 생존자 중 한 외과의사가 이 비극적인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출판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제리코는 이 끔찍한 사건을 검정색과 노란색을 주조로 한 거대한 작품으로 남겼다. 아무것도 없이 그저 죽음만을 기다리던 이들은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고 입던 옷을 벗어 손에 들고 흔들고 있다. 그리고 신호를 보내는 뱃 꼭대기에 흑인을 배치해서 프랑스인 지휘관의 무능함으로 이루어진 참극에 대비되게 하고 있다. 이렇듯 시신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참상을 비극적으로 표현하였다. 제리코가 그린 <메두사의 뗏목> 역시 당시 프랑스인들에게 죽음 앞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는 피부색에 상관없이 모두 동등한데,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만들고 백인이 흑인을 노예로 지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사회의 빛과 그림자

계몽주의 사상이 뿌리가 되어 자라난 프랑스 대혁명은 신분제의 불합리함을 이야기했고, 이어 전 세계가 근대화되면서 인종과 나라에 상관없이 대부분 인간의 평등과 존엄에 대해 옳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합리함을 느끼며 살고 있다. 그렇다면 계몽사상이 완전히 뿌리 내리지 못해서일까. 그보다는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옳다고 믿었던 그 사상들이 태생적인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다음 글에서 계몽의 빛에 의해 드리워진 그림자를 그린 그림들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 본 글은 허나영의 <다시 쓰는 착한 미술사>(타인의 사유, 2021) 중 일부를 발췌 및 수정한 것입니다.

호수 위에서 펼쳐지는 오페라 축제
(Spiel auf dem See)

브레겐츠 페스티벌

BREGENZER FESTSPIE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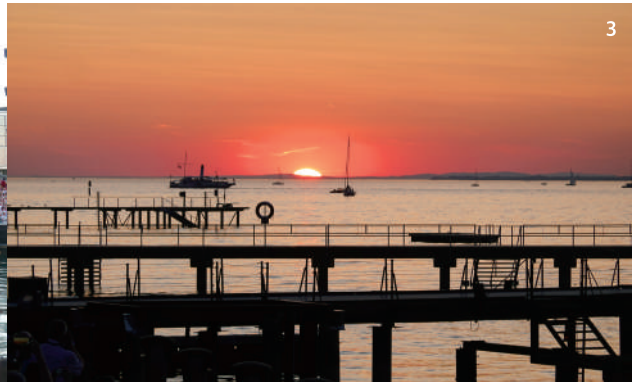
글, 사진 이상훈 아트컨시어지 대표

서유럽의 주요 오페라축제는 시즌이 끝나는 6월 말경 오페라 축제가 시작되는데, 먼저 취리히 페스티벌과 뮌헨 오페라 축제가 이때 열린다. 앞서 소개한 베로나 오페라 축제도 이즈음 시작된다. 그리고 7월 말에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과 브레겐츠 페스티벌, 그리고 인스부르크 고음악축제도 같이 개막한다. 공교롭게도 이 축제들은 교통의 요지인 인스부르크를 가운데 두고 동, 서, 북쪽으로 전부 2시간 거리에 있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브레겐츠, 독일 뮌헨에서 열리며, 남쪽으로 3시간 조금 넘어가면 이탈리아 베로나가 나온다. 인스부르크 고음악 축제의 경우도 헨델이나 몬테베르디, 헨리 퍼셀과 같은 오페라가 공연되니 동선과 일정 계획을 잘 짜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서유럽을 대표하는 오페라 축제 5개를 한번에 만날 수 있다.

보통 오페라 축제는 여러 작품을 날을 바꾸어가며 번갈아 공연한다. 계획만 잘 짜면 그 도시에 머무는 날 만큼 오페라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브레겐츠 페스티벌은 한 시즌에 한 작품만이 올라간다. 그것도 2년 동안 작품이 바뀌지 않는다. 왜 브레겐츠는 이런 방식으로 축제를 준비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선택과 집중, 인구 3만 도시에서 오페라축제를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자 전략인 것이다.

1





1, 2 브레겐츠 페스티벌 축제극장 3 석양이 지는 보덴호수

앞서 인스부르크와 마찬가지로 브레겐츠 역시 교통의 요지이다.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리히텐슈타인까지 4개 나라가 차로 이동하면 불과 30분 미만의 거리에 닿아있다. 보덴호를 두고 좌우로 독일 콘스탄츠 Konstanz, 린다우 Lindau 두 도시가 근거리에서 있으며 스위스는 장크트 갈렌 St. Gallen, 내륙으로는 리히텐슈타인의 수도 파두츠도 지척이다. 잘 만든 오페라 한 편을 가지고 2년 동안 이웃의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관광객들을 한여름 축제기간에 브레겐츠로 초대할 수 있는 것이다. 비단 인접도시 뿐이겠는가, 최근에는 전세계에서 많은 오페라 팬들이 찾는 곳으로 자리매김했다.

한 시즌에 여러 작품을 나누어 공연하는 보통의 경우와 다르게 두 시즌에 한 작품, 예산을 집중함으로써 호반 위 인공 섬(Floating Stage on the Lake) 무대에 임팩트 있는 대형 오페라 무대를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오페라에 문외한인 사람조차도 무대를 보면 걸음하고 싶을만큼 매력적이다. 그리고 그 무대는 단순히 크기를 넘어서 오늘날 가장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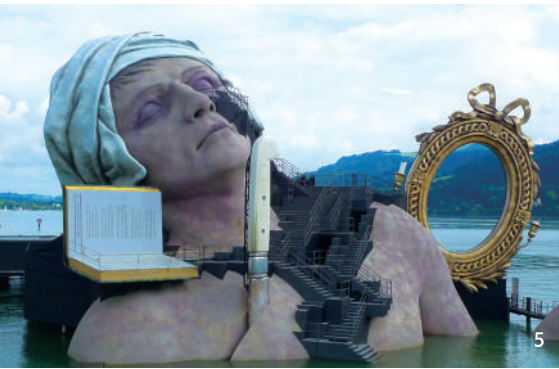
브레겐츠 페스티벌의 최신작은 2019년 선보였던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 Rigoletto'이다. 새 작품이 선정되면 많은 오페라 팬들은 과연 어떤 무대를 선보일까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고 기다린다. 필자도 마찬가지이다. 2019/20 시즌 '리골레토' 무대가 처음으로 공개되고, 공연 막이 올

라가자 역시 브레겐츠 하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최근 여러 영역에서 협업 또는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쓴다. 비교적 보수적인 오페라 무대도 마찬가지이다. 브레겐츠 페스티벌의 '리골레토'는 CF와 영화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필립 스토츨이 연출을 맡았다. 아니나 다를까 기존의 상식을 깨는 무대를 선보이면서 또 하나의 성공적인 시즌으로 마감했다.

많은 오페라 팬들에게는 일치감치 유럽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한지 오래지만, 이 축제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건 2008년 개봉한, 다니엘 그레이크가 본드로 활약한 007 시리즈 '퀀텀 오브 솔러스'의 영향이 컸다. 당시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 Tosca' 중 3막 카바라도시의 처형장면이 충격핀과 오버랩되면서 극 중 긴장감을 고조시켰는데, 이 장면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

시작은 이리했다. 1946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보덴호수를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바지선 두 대를 호수 위에 띄어놓고 공연을 한게 그 처음이다. 하지만 수상 무대라는 제한 때문에(이는 또한 장점이 되기도 하였다) 무대는 점점 더 보완이 되었으며 지금은 첨단 기계장비와 음향장비를 갖춘 세계 최고의 야외무대축제로 자리매김되었다.

필자가 이 오페라 축제와 처음 인연을 맺었던 건 2009/10



- 4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AIDA'
- 5 조르다노 오페라 '안드레 쉐니에 Andre Chenir'
- 6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Die Zauberflote'
- 7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Turandot'

시즌에 만난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 Aida'부터였다. 당시 연출을 맡았던 그레이엄 비크는 극의 배경이 되었던 이집트의 파라오를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으로 대신하였으며 호수 위의 무대 섬(Floating Stage on the Lake)이라는 특징점을 십분 발휘하여, 호수 안에 잠겨 있던 무대를 대형 크레인으로 수면에서 들어올려 공중에서 합체시키는 상상력을 발휘했다. 그것도 개선행진곡에 맞추어서 말이다. 당시 패권국가였던 이집트의 위세를 팍스 아메리카(Pax Americana)나, 작금의 미합중국에 빗댄 연출도 설득력 있어보였다.

2011/12 시즌은 움베르토 지오르다노의 오페라 '안드레아 쉐니에 Andrea Chenier'였다. 다소 생소한 이름일 수 있겠지만 베리즈모(사실주의) 오페라의 대표격으로 프랑스 혁명 당시 실존 인물을 작품에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이 어떻게 연출될까는 많은 오페라 팬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브레젠츠의 무대는 관객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란서의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Jacques-Louis David)의 '마라의 죽음 Death of Marat'을 모티브로 대형 무대를 만들었다. 실제 마라는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상대당인 지롱드 당 소속의 자객에 의해 살해당하게 되는데 이를 다비드는 순교자의 이미지로 마라를 그렸던 것이다.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접점이 생기는 지점인 것이다.

2013/14 시즌은 모차르트의 마지막 작품인 '마술피리 Die Zauberflote'가 무대에 선보였고, 2015/16 시즌에는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Turandot'가 선보였다. 과거 한 차례 공연된 적이 있는 작품인데다 지난 시즌까지 음악감독을 맡았던 영국의 전위연출가 데이비드 파운트니가 떠난 이후 가진 첫 작품이라 기대와 우려를 한번에 받았던 작품이었다. 하지만 막상 두경이 열리고 보니 살짝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다. 이는 브레젠츠의 무대에 대한 큰 기대감에서 오는 것 일지도 모른다. 적어도 '투란도트=쉬누아즈(중국풍)'라는 공식을 깨주었으면 했지만, 무대배경은 어느 프로덕션과 다를 바 없는 만리장성과 진시황릉의 병마용이었다.

그래도 티켓오피스 상황은 점점 더 나아져서 7천석 가까이 되는 야외 무대는 이때부터 매진 행렬이었다. 그리고 그 해 영국에서 개최한 The International Opera Awards 국제 오페라 어워즈에서, 올해의 오페라축제 부문 워너로 수상되는 영예까지 누렸다. 2017/18 시즌은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Carmen'을 선보였는데, 역시 명불허전. 브레젠츠 페스티벌은 이제 서유럽을 대표하는 오페라축제로 우뚝섰다.

베로나 오페라 축제를 선두로 푸치니의 고향 인근 토레 델 라고(Torre del Lago)에서의 푸치니 페스티벌, 마체라타 오페라 축제 그리고 장크트 마르가르텐, 오랑주 페스티벌의 무대는 야외극장이다. 그렇기에 한여름 소나기라도 내리게 되면 공연은 취소되거나 멈출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브레겐츠의 경우는 폭우가 내리지 않는 한 비가 와도 공연이 진행된다. 이는 오케스트라가 축제극장 내부에서 연주되기 때문이다. 오케스트라의 악기가 우천시 노출되지 않기에 연주를 중단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다. 이는 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해서 관객에게 전달되기에 가능하다. 이는 정통의 오페라 극장과 비교해서 브레겐츠 페스티벌을 평가절하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오페라 가수가 마이크를 쓰고, 관객 머리 위 스피커를 쓰는 상황은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제어된다. 잔향가변 컨스텔레이션(Constellation) 시스템을 활용해서 야외 공연장이지만 실제 극장 내부와 같은 음향학적 환경을 유지시킨다.

브레겐츠 페스티벌을 이야기할 때 상주 오케스트라인 빈 심포니 Wiener Symphoniker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한때는 빈 필하모닉 Wiener Philharmoniker에 버금가는 영화를 누렸지만, 지금은 그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관현악단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볼프강 자발리슈 등이 지휘를 맡기도 하였다. 세계 최고의 음악축제인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Salzburger Festival의 호스트

오케스트라가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라면 이곳 브레겐츠에서는 빈 심포니가 반주를 맡고 있다. 그렇기에 이 오페라 축제의 진가가 더 발휘되는 것이다.

몇 해 전이긴 하지만 한 언론에서 브레겐츠 페스티벌의 경제효과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2015년 기준으로 인구 3만이 채 안되는 이 작은 도시 브레겐츠에서 오페라가 열렸던 한달동안 관람객 25만명이 몰렸으며, 티켓 수입으로만 570만 유로(한화 약 85억원), 인근 카지노와 호텔, 상점이 누리는 경제효과는 무려 2천억원에 달한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덕분에 이 도시의 브랜드는 '브레겐츠=오페라 축제'라는 공식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이다. 최근 국내의 축제 내용이 도시마다 개성없이 중첩되는 상황과 비교하면 한번 심사숙고해봐야 될 지점이기도 하다.

브레겐츠를 찾아가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오스트리아 서부 포어아를베르크 주의 주도인 브레겐츠는 우리가 잘 아는 비엔나나 잘츠부르크와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동계 올림픽이 개최되었던 인스브루크랑이 더 가깝다. 국내에서는 직항편이 연결되어 있는 취리히나 뮌헨에서 기차로 가는 방법이 가장 수월하다. 2022년 새로운 시즌의 작품으로는 지아코모 푸치니의 '나비부인 Madam butterfly'이 발표되었다. 올 해는 또 어떤 무대로 전세계 오페라 팬들을 맞이하게 될지 기대가 된다.

8 비제 오페라 '카르멘 Carmen' 9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Rigoletto'



대중과 함께하는 미술을 꿈꾼다

춘자아트갤러리

박나무 자유기고가

Chunja Art Gallery



옛날 옛적에 그림은 “얼마나 비슷하게 그리느냐”가 중요했었나 보다. 솔거의 노송도나 제육시스의 포도그림에 새들이 날아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때의 그림들은 누구나 “참 잘 그렸다”는 감상평을 할 수 있었겠지. 심지어 새들 까지도 그 심사위원의 자리를 말석이나마 당당히 차고 앉았다. 그러나 현대로 건너와서는 그것이 어려워졌다. 화가들은 모사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했고, 사람들도 더 이상 똑같이 그린 것에 감탄하지 않는다. 그렇게 그림은 다른 차원의 세계로 넘어갔고, 그것은 작가와 관객들을 모두 미로에 들게 했다. 그래서 서로 멀어졌는지도 모른다.

그림은 어려운 것일까? 언제 배우고,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소비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일까? 어떤 작품은 수백억 원을 호가한다는데, 그림이라는 건 적정가격을 어느 선으로 보아야 할까? 작가들은 자신만의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어쩌면 유포된 공간에 자신을 가두고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작가의 생활고는 숙명인가? 그것은 예술의 또 다른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 술한 질문들을 스스로 하고 또 대답을 찾아가는 사람을 춘자아트갤러리에서 만났다. 정선미 대표. 그녀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또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쉽게 전달되기를 소망한다. 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화



가이면서, 남녀노소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며, 갤러리를 운영하는 경영자, 작가와 시민들을 가깝게 연결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는 기획자이기도 하다. 미술이 우리에게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있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소화하는 작업과 타이틀이지만, 그렇다고 그이가 심각한 포스를 풍기는 사람은 아니다. 그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 미사여구로 포장하거나 사명감 같은 걸 웅변하지 않는다.

“세상은 위쪽이나 아래쪽, 아니 오른쪽이나 왼쪽이라고 표현하는게 좋을까요? 독특한 영역을 구축한 10%가 존재한다고 봐요. 그 특별한 양 끝단의 10%가 주목이나 비난을 받지만 실은 이도저도 아닌 평범한 80%가 세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디에 머물 필요도, 화려함에 갖혀있는 것도 불편해요. 평범한 80%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거죠” 알 듯 모를 듯 쉽지만 어려운 그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평범함과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비범해져야 하는가 싶기도 했다.

부산의 젊은 작가들과 힘을 모아 바다를 주제로 한 프로젝트 전시를 열

어왔다. 지역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주제로, 지역의 작가들과 함께 전시를 열어가는 의미있는 일이다. 1년에 한두번 쯤은 이런 기획 전시를 통해 세상과 통하고자 한다. 4월 8일부터 20일까지는 이 곳에서 ‘춘민장’이라는 미술시장이 열린다. 아트페어와 벼룩시장의 중간쯤일까? 미술이 어렵고 비싼게 아니라 누구나 쉽게 향유할 수 있는 문화임을 알려주고 싶은 장터이다. 작가에게도 적절한 대가가 주어지고, 시민들도 생각보다 저렴한 값에 원화를 소장할 수 있다. 작가가 매겨둔 값으로 거래가 되는데, 어떤 경우엔 1만원으로도 그림을 살 수 있다. 아직까지는 1년에 한번만 열리는 아까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춘민장을 마무리하고서는 ‘순수창작활동의 프로젝트 전시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세차례의 전시회가 열린다. “프로젝트 내용은 좋았지만 공모에서 떨어진 아쉬운 전시, 그래서 전시장소가 필요한 작가들을 초청해 지원하기로 했다”는 이 전시도 춘자아트갤러리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골목을 지나다 누구나 썩 문을 열고 들어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곳, 영화를 함께 보며 그 속에 등장하는 그림이나 화가를 두고 토론을 벌이는 영화계모임이 열리는 곳, 친구들과 함께 자유롭게 구성하는 음악회가 열리는 곳, 안 가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 본 사람은 없을 것 같은 이 춘자아트갤러리에 당신도 가보길 권해본다. 배우러 가도 좋고, 작품을 감상하러 가면 더 좋고, 어쩌다 그림을 소장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나아가 이 곳에서 당신의 그림을 전시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상상을 가능케 하는 곳이다. 춘자아트갤러리에서 우리 스스로가 봄이 될 수 있겠다. 봄도 전염되는가 보다.



- 운영시간 / 오전 11:00~오후 7:00(금·일요일 휴관)
- 문의 / 춘자아트갤러리 010-9901-5791
(부산 수영구 광남로223번길 6)

INVITATION TO THE ARTS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동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움	557-3369
엑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KBS부산홀	620-7181
SM아트홀	1600-1602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만우절 음악회



지휘·편곡·구성 김종욱



작곡·편곡 이경은



가야금 김지현



타악 박재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풍물림

- 계속되는 팬데믹으로 지쳐있는 시민들을 위로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유쾌하고 통쾌한 코믹 퍼포먼스 '만우절 음악회'가 4월 6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 한 해 우리음악의 대중화 및 현대화 작업에 꾸준히 힘써 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올 한해 과감하고 실험적인 시리즈와 부산지역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기존 곡의 현대화 작업을 통해 국악관현악의 미래를 찾는 시도를 펼친다. 특히 올해 무대에서는 지금까지 만날 수 없었던 국악의 편견을 깨트리는 새로운 퍼포먼스 무대를 선보이는데 그 첫 번째 무대가 바로 '만우절 음악회'이다. 최고의 기량을 갖춘 악단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음악의 유희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놀라운 역량으로 펼쳐낼 예정이다.

수석지휘자 김종욱이 지휘하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부산시립합창단, 그리고 부산시립극단 단원들이 출연하는 이번 무대는 기존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가졌던 연주회의 틀에서 벗어나 마당놀이를 연상케하는 춤과 노래, 그리고 연극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국악을 처음 접하는 관객도, 국악 마니아도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다.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타악 수석 전학수의 집박으로 진행되는 '집박에

디션'을 시작으로 부산시립합창단 테너, 바리톤 단원들이 들려주는 아리아 '자갈치시장', 무용수 김하림, 신원국이 펼치는 유쾌한 댄스 퍼포먼스 '건달', 가야금주자 김지현의 가야금 콘체르토 '동문서답', 타악주자 박재현의 타악 퍼포먼스 '?' 등 다양한 무대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무대의 작곡과 편곡은 작곡가 및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경은이 맡아 '만우절 음악회'에 어울리는 유쾌한 음악을 선사한다. 이경은은 현재 한국거문고 앙상블 상임지휘자 및 작곡가, 한양가야금앙상블 협력작곡가 및 지휘자, 강해음악연구회 회장, 작곡중심 musik 공동대표, 국악작곡연구회 공동대표로 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댄스 퍼포머로 출연하는 김하림은 2020년 동아무용콩쿠르 일반부에서 금상을 수상하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과에 재학중이며,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예술사 졸업 및 전문사를 수료한 김하림은 2015년 제12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 민족무용 창작부문 시니어 남자 1등, 2018년 제48회 동아무용콩쿠르 금상 없는 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이번 공연의 상세한 콘셉트나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예상치 못한 색다른 무대와 반전으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일 시 4월 6일 수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1층) 1만원, S석(2층)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비발디의 사계



- **그림자극으로 만나는 특별한 음악여행 '비발디의 사계'가 4월 9일부터 한달간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에서 펼쳐진다.**

사랑채극장은 지난 2017년 기존의 소극장을 어린이 전용극장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킨 공간으로, 그동안 어린이와 가족 단위의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관객과 만나왔다. 팬데믹 사태로 한동안 운영이 중단되었으나 올해부터 다시 어린이의 상상력과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작품으로 관객과 만나고 있다.

극단 영이 제작한 '비발디의 사계'는 트리나 폴리스의 그림우화 '꽃들에게 희망을'을 원작으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클래식 음악인 비발디의 '사계'와 화려한 색감의 그림자극이 함께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이다. 원작인 '꽃들에게 희망을'은 지난 1972년 출간된 후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로, 한 마리의 작은 애벌레가 세상에 나와 초라한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바로크 음악의 거장 비발디가 작곡한 '사계'는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사계절의 모습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오늘

날 영화음악뿐 아니라 TV프로그램, 광고음악 등에도 자주 사용되면서 우리에게도 아주 친숙한 곡이다.

호랑 애벌레는 애벌레 더미로 이루어진 애벌레 기둥을 발견하고는 뭔가 다른 삶을 기대하며 애벌레 기둥을 오르기 시작한다. 그곳에서 노랑 애벌레를 만난 호랑 애벌레는 기둥에 오르는 것을 포기하고 노랑 애벌레와 함께 내려와, 마음껏 풀을 뜯어 먹고 신나게 놀며 사랑을 키워 나간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호랑 애벌레는 애벌레 기둥의 끝에 뭐가 있을지 계속 궁금해하고, 결국에는 노랑 애벌레와 헤어져 다시 애벌레 기둥을 오르는데... 이번 무대에서 관객들은 애벌레의 여정을 통한 사계절의 변화를 비발디 '사계'를 통해 귀로 듣고 화려한 색감의 그림자극을 통해 눈으로 직접 확인한다. 특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림자극과 클래식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클래식 음악을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극단 영은 지난 1982년 창단된 후 그동안 그림자극을 비롯한 인형극, 뮤지컬, 아동극, 마당놀이극 등을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으며, 지난 2013년 춘천인형극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2017년 루마니아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초청공연을 가진 바 있다.

일 시 4월 9일(토)-5월 6일(금) 주말 오전 11:00, 오후 2:00(평일 단체공연)

입장료 전석 2만원(3세 이상 입장, 10인 이상 단체 6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장 소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www.bscc.or.kr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2 시민뜨락축제



블루앙상블



부산시립합창단

- (재)부산문화회관이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마련하는 대표적인 야외무대축제 '2022 시민뜨락축제'가 4월 22일부터 두달간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에서 펼쳐진다.

매년 봄과 가을, 야외에서 펼쳐지는 '시민뜨락축제'는 그동안 일상적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면서 부산시민회관이 '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올해는 '버스킹 문화, 힐링 콘서트'를 컨셉으로, 계속되는 팬데믹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시민들과는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무대로 공연예술에 한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시민뜨락축제 첫 날인 4월 22일에는 클래식 전문연주자들로 구성된 고품격 5인조 앙상블 '블루앙상블'과 대중을 사로잡는 K-POP 및 스토리가 있는 창작안무를 선보여온 혼성 전문댄스팀 '룩스가 무대에 선다. 4월 29일에는 가장 한국적인 소리로 세계를 노래하는 '얼터너티브 국악그룹 초야와 부산 유일의 스페인 정통 플라멩코팀 '알싸께또마 부산플라멩코'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 '알싸께또마(arsa qué toma)'는 '올레

(Oíe)'와 같은 플라멩코의 대표적인 추임새로 '얼씨구 좋다 힘내라'는 음원의 뜻이 담겨있다.

5월 첫 주 금요일인 6일에는 장르의 경계없이 자유로운 음악을 추구하는 '퓨전국악밴드 비원'과 'Project A'가 시민들과 만난다. 'Project A'는 탭댄스와 재즈 락댄스, 락킹댄스가 협업하여 다양한 음악을 재해석하는 새로운 컨셉의 퍼포먼스 댄스팀으로, 음악과 어우러지는 신나는 무대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5월 13일에는 관객들과의 친근한 무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끌림 앙상블'과 '어쿠스틱 나무의자'의 무대가 이어진다. 하프와 첼로, 플루트로 구성된 '이끌림 앙상블'은 그동안 클래식을 비롯해 뉴에이지, 크로스오버 등 다양한 장르의 곡으로 관객들과 만나왔으며, 통기타와 하모니가 잘 어울리는 남성듀오팀 '어쿠스틱 나무'는 지난 2005년부터 백혈병 어린이 돕기 자선공연을 꾸준히 가져오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음악사랑을 펼쳐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시민뜨락축제의 마지막 날인 5월 20일에는 부산시립합창단의 무대가 펼쳐진다. 올해로 창단 50주년을 맞는 부산시립합창단은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초청 및 순회연주회,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공연을 통해 다양한 레퍼토리로 합창음악의 진수를 선보이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일 시 4월 22일(금)-5월 20일(금) 매주 금요일 오후 12:20 **장 소**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
입장료 무료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재)부산문화회관기획공연 NT-Live 다리에서 바라본 풍경



● 세계 3대 공연상이라 불리는 로런스 올리비에상 3개 부문을 수상한 화제작 ‘다리에서 바라본 풍경(A View from the Bridge)’이 NT-라이브(National Theatre Live)를 통해 상영된다.

영국국립극장이 지난 2009년 세계 최초로 시도한 ‘NT-라이브’는 영국 연극계의 화제작을 실황으로 촬영하여 다른 지역에 상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완성도 높은 공연작품과 실제 공연을 방불케하는 정교한 촬영과 편집으로 지금도 세계 65개국 이상 국가에서 상영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여러대의 카메라가 잡아내는 다양한 앵글과 카메라 샷으로 배우들의 섬세한 표정과 연기를 실제 공연보다 더 가까이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국내에서도 지난 2014년 국립극장에 의해 처음 소개된 후 매진행렬을 이어오고 있다.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지난 2019년 10월, 연극 ‘프랑켄슈타인’을 시작으로 그동안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햄릿’, ‘디오디언스’, ‘워 호스(War Horse)’, ‘리어왕(King Lear)’ 등 화제작들을 꾸준히 소개해오면서 많은 연극팬들의 환호를 받아왔다. 올해는 지난 2월 상영된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에 이어 ‘다리에서 바라본 풍경’ 등 영국 공연계에서 가

장 권위있는 로런스 올리비에상(Laurence Olivier Award)을 수상한 화제작 두 편을 소개한다.

‘다리에서 바라본 풍경’은 ‘세일즈만의 죽음’으로 유명한 20세기 최고의 극작가 아서 밀러의 희곡을 무대화한 작품으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연극연출가로 꼽히는 이보 반 호프와 연기파 배우 마크 스트롱이 만나 유럽 연극계에 화제가 된 작품이다. 각국의 노동자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향하던 시절, 에디의 집에 아내 베아트리스의 사촌 마르코와 로돌프가 찾아온다. 에디가 끔찍하게 아끼던 베아트리스의 조카 캐서린은 로돌프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캐서린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에디의 순수했던 감정은 견잡을 수 없는 욕망으로 변하고 만다.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이 모여 사는 뉴욕 브록클린의 한 동네를 배경으로 개인의 강렬한 욕망과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갈등을 다룬 ‘다리에서 바라본 풍경’은 특히 원작을 살린 감각적 연출과 미니멀한 무대에서 최고의 몰입으로 열연하는 배우들의 완벽한 조화로, 상연 후 ‘강렬하고, 전율이 감도는 실로 대단한 작품(Evening Standard)’, ‘지금껏 본 밀러의 작품 중에 가장 파워풀한 작품(Sunday Times)’,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작품(The Times)’ 등 평단의 많은 찬사를 받은 바 있다.

일 시 4월 30일 토요일 오후 3: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만 15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합창단 제185회 정기연주회 전래동요에 의한 가족음악극 **옛날 옛적에**



● **부산시립합창단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5월 4일과 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지는 가족음악극 ‘옛날 옛적에’는 어린이들에게도 잘 알려진 전래동화 ‘해님 달님’, ‘선녀와 나무꾼’ 등 두 편의 이야기를 엮어 만든 창작음악극으로, 노래와 춤, 연기가 어우러져 기존 합창무대에서는 만날 수 없는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이기선이 지휘하고 작곡가 이진실이 작곡 및 시놉시스를 맡아 중심 이야기를 만들었으며, 극단 아트레볼루션 대표 박정우의 연출, 다양한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는 2310밴드의 대표 이삼열이 편곡을 맡아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음악극으로서의 더욱 풍성한 무대를 위해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2310밴드가 연주를 맡았으며, 부산시립극단 서보기,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성아민, 손민아가 출연하여 극적 재미를 더해준다.

현재 미국에서 활동중인 작곡가 이진실은 (사)코리안 퍼시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전속 작곡가, 뉴저지 Leonia Young Chamber Orchestra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구, 강

릉, 춘천, 부산 등 다수 시립합창단과의 음악작업을 통해 ‘아나의 조국! (2021)’, ‘스쿠루지 할아버지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2019)’, ‘환상의 숲(2015)’, ‘옛날 옛적에 (2013)’ 등 다수 합창극을 무대에 올려왔다. 연출가 박정우가 지난 2012년 극단 아트레볼루션을 창단한 후 제작한 뮤지컬 ‘복순이 할배’, ‘나에게만 들리는 목소리’는 2015년 서울 대학로에 진출하여 크게 흥행했으며, 부산에서는 현재까지도 많은 관객들의 관심을 받으며 10년째 공연중이다. 2310밴드는 팝, 펑크, 재즈뿐 아니라 클래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크로스오버적 스타일을 탁월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합창단 및 뮤지컬 단체, 오케스트라까지 다양한 협업활동을 가져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첫 곡인 ‘옛날 옛적 먼 옛날에’를 시작으로 사냥꾼들의 노래, 사슴의 위로송, 결혼행진곡, 나무꾼의 세레나데, 꿀떡송, 호랑이의 노래1, 해님의 노래, 가족 이름 맞추기, 선녀의 노래, 나무꾼의 그리움, 호랑이의 노래2, 꼭꼭 숨어라, 호랑이 약올리기, 두레박 나가신다, 달을 따라서, 옛날 옛적 한 옛날에 등 여러 악기의 반주와 합창으로 편곡된 16곡의 동요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일 시 5월 4일 수요일 오후 7:30, 5일 목요일 오전 10: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3세 이상 입장,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3인 이상 가족 5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22 올해의 예술가
양인모와 함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Sangwook Lee

2015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우승 새로운 세대의 가장 재능 있는 젊은 현악 거장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올해의 예술가'로 선정된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가 부산시민들과 첫 만남을 갖는다.

2021년 도입한 '올해의 예술가'는 능력있는 예술가를 선정하여 한 해동안 협업을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지난해 그 첫 번째 주인공으로 작곡가 김택수가 선정된 바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는 보스턴 글로브지로부터 '흠잡을 데 없는 기교와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이라는 극찬을 받은 연주자로,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의 꿈의 대회라 여겨지는 2015 프레미오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9년만에 등장한 우승자이자 한국인 최초 우승자로 화제를 모았다. 특히 1위 우승과 더불어 최연소 결선 진출자상, 현대 작품 최고 연주상, 청중상에 이르는 특별상을 휩쓸며 바이올린 채널로부터 '새로운 세대의 가장 재능 있는 젊은 현악 거장'으로 꼽히기도 했다.

앞서 2014 콘서트 아티스트 길드에서 우승하여 카네기홀 와일 리사이틀 홀에서 데뷔 무대를 가진 양인모는 2015 파가니니 콩쿠르에서의 우승으로 파비오 루이지가 지휘하는 덴마크 방송교향악단과 협연했으며, 제노아에서 열린 리사이틀에서는 파가니니가 생전에 사용하던 악기인 '과르네리 델 제수'로 무대에 오른 바 있다. 2018년에는 프랑스 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스위스 투어 중 홀르, 제노바 공연에서 협연했으며, 2019년 1월에는 오케스트라의 초청으로 파리 라디오 프랑스 오디토리움에서 생상스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을 협연했다. 2018년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로 선정되어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난 양인모는 그 해 상주 음악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파가니니의 '24개의 카프리스' 전곡을 실황으로 녹음하여 데뷔음반으로 출시한 바 있다.

양인모는 11살의 나이에 이원문화센터 꿈나무 콘서트를 통해 데뷔무대를 가졌으며, 13세에 금호영재콘서트 무대에서 그 음악성을 드러내며 주목을 받았고, 15세에는 KBS교향악단과의 무대를 통해 오케스트라 협연자로서 데뷔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영재교육원을 졸업하고, 이후 같은 학교에 영재 입학하여 수학했으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학사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현재는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대학에서 대학원 과정을 이수 중이다.

코른골트의 '바이올린 협주곡'에서 진은숙의 한국 초연곡 '수비토 콘 포르차'까지

4월 1일 열리는 제586회 정기연주회 '이방인'에서 양인모는 오스트리아 태생으로 미국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며 클래식과 영화음악의 경계에 있었던 작곡가 코른골트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려준다. 음악신동으로 십대에 칸타타 '황금'을 작곡, 연주하여 당시 빈 궁전 음악감독이었던 말러를 놀라게 한 천재 음악가로 할리우드 작곡가가 된 후 영화 '로빈후드의 모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 다양한 영화음악을 작곡하여 아카데미 음악상을 두차례 수상하기도 했다. 1947년 초연된 그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자신의 영화음악 중에서 차용한 주제들을 재구성한 작품으로, 풍부한 음악과 더불어 고난이도의 기교가 요구되는 곡이다.

특히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이번 무대에서 최고의 현대음악 작곡가로 인정받고 있는 진은숙의 '수비토 콘 포르차'를 한국초연으로 들려주며, 마지막 무대에서는 관현악의 마술사로 불리는 작곡가 모리스 라벨의 선명한 색채감과 빈틈없는 구성력이 돋보이는 '다프니스와 클로에 모음곡 제2번'을 연주한다. 진은숙의 '수비토 콘 포르차'는 지난 2020년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으로 작곡된 곡으로, 음악 역사상 최초의 모더니스트 작곡가였던 베토벤에 대한 오마주가 진하게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번 무대는 오스트리아 태생으로 미국에서 활동한 코른골트, 한국 태생으로 독일에서 거주하는 진은숙, 프랑스계 스위스인 아버지와 스페인계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라벨 등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며 음악적 열정을 펼친 세 작곡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냉정과 열정이 공존하는 핀란드 작곡가 시벨리우스의 음악세계

양인모는 5월 13일 열리는 제587회 정기연주회 '오로라'에서 냉정과 열정이 공존하는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다시 한번 부산관객과 만난다.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은 핀란드의 국민 작곡가로 명성을 누리던 시벨리우스가 작곡한 유일한 협주곡으로, 북유럽 특유의 서늘한 정취와 더불어 낭만적 열정을 토로하는 오케스트라와 독주 바이올린의 앙상블이 특징이다. 특히 그 자신이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그의 실험 정신과 상상력을 거침없이 표출해내며 바이올린의 기교를 다양하게 망라하고 있다. 그런만큼 낭만파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높은 인기를 누리며 20세기 가장 뛰어난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평가받으나 연주에 있어서는 고난이도의 기교가 요구된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이번 무대에서 시벨리우스의 또다른 작품인 '교향곡 제2번'을 들려준다. 핀란드의 민족주의 작곡가 시벨리우스가 남긴 일곱 편외 교향곡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으로, 핀란드 자연의 풍경과 정취를 절묘하게 녹여내어 '시벨리우스의 전원 교향곡'으로 불리기도 한다. 특히 이 작품은 시벨리우스의 차가운 느낌의 핀란드 풍경뿐만 아니라, 지중해의 따뜻함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오로라와도 같은 신비한 기운도 느껴진다.

2022년 4월 1일(금) 제586회 정기연주회 '이방인'
2022년 5월 13일(금) 제587회 정기연주회 '오로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자기파괴를 부정하는 몸짓으로 자신과 타인을 위로하는 기막힌 판타지

안은미의 <드래곤즈>

◆ 이상현 춤 비평가

작품을 이해할 때 창작 배경이 중요한 경우가 있다. 창작 의도와 과정을 알지 못하면 작품을 반만 본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작품 말이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기와 고통, 그리고 그것을 위로하려는 시도가 고스란히 담긴 <드래곤즈>(안무 안은미)가 바로 그런 작품이다. 이 작품은 춤 인류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이는 작품 이해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아시아 용띠 무용수들과 함께 밀레니엄 세대를 주제로 만든 <드래곤즈>가 지난 3월 4일, 5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무대에 올랐다. 이번 공연이 국내 첫 공연은 아니지만, (재)부산문화회관이 프랑스 파리시립 극장, 리옹 댄스 비엔날레 등 세계적인 파트너와 함께 제작한 부산 최초의 국제 공동제작 작품으로 부산에서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 안은미는 “20세기의 강을 건너 새로운 시대에 태어났지만, 용의 여의주처럼 여전히 과거의 춤이 응축된 문화와 연을 맺고 사는 21세기 몸들과 초시간적으로 만나는 것이 어쩔 전통과 현대의 짝짓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처음 구상을 말한다. 용은 아시아인이 태어날 때부터 알게 되는 전설이며 2000년 이후 태어난 이른바 ‘제트(Z) 세대’ 용띠 무용수는 전통을 새기고 미래를 담지하는 존재이다. 드위누사 아지 위나르노(인도네시아), 저우 구안팅(대만), 사이다 하즈미(말레이시아), 아카리 다카하시(일본), 정지완(한국)이 그들이다.

Review



©옥상훈

2018년 막연한 아이디어로 시작한 작품 구상은 인도네시아 젊은 무용가의 춤을 보고 구체화하였다. 이후 아시아 각국에 오디션 공고를 내고 한국 무용가들과 함께 오디션을 위한 투어를 시작했다. 여러 나라를 돌면서 각 나라의 춤 전통이 어떤 방식으로 이어왔는지 보고, 체험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무용가들은 다른 나라의 춤 전통을 이해하고 큰 영감을 받았고, 영감을 작품에 녹여냈다. 애초 계획은 투어를 통해 선발한 무용수들과 2020년 9월 한국에서 공연하는 것이었지만, 2020년 시작부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가 확산했고, 국가 간 이동이 불가능해졌다. 어쩔 수 없이 기획을 전면 수정했다. 아시아 무용수들은 각자의 나라에서 3D 영상 작업으로 홀로그램을 만들었다. 그 영상은 직접 무대에 오른 한국 무용수들과 함께 하나의 작품을 이루었다.

3D 홀로그램 영상을 현실 공간에 투사해 만들어 낸 <드래곤즈>의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은 선형적 시간과 물리적 공간의 위계를 뒤섞었다. 서사는 약화하고 직관적 움직임과 음악, 이미지가 증폭해 현실을 무한으로 증강했다. 이 작품에서 이야기 흐름을 짚는 것은 의미가 거의 없다. 다만, 몇 개의 키워드가 작품 이해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키워드는 ‘환대’와 ‘위로’ 그리고 ‘색’이다. 이 흔하고 명료한 단어들의 관계를 따지면 이렇다. 환대와 위로는 서로를 추동하고, 색은 이 모든 관계의 배후이자 표면이다. 영화이론가이자 역사철학자 지그프리트 크라카우어(Sigfried Kracauer, 1889~1966)는 이면, 배후, 심층의 반대말로써 ‘표면’은 시지각이 출현할 수 있는 존재론적 토대이며, 그것이 지닌 무의식적 성격으로 인해 현존하는 것의 본질적 내용에 다가갈 수 있다고 본다. 즉, 표면의 표현을 해석하는 작업은 본질과 직결된 일이라는 말이다. 안은미의 색은 크라카우어가 말하는 표면이다.

안은미는 “1970년 전통 의복에 화관과 족두리를 쓴 이상한 언니들의 색색의 옷에 홀리듯 따라갔다”라고 회고한다. 이것이 처음 무용을 접한 순간이었고, 이후 안은미에게 춤은 동작이 아닌 색으로 각인됐다. 그의 안무는 캐릭터와 동작에 색을 입히는 작업이다. <드래곤즈>에서 안은미는 색이라는 표면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드래곤즈>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애초



의 기획과 아예 다른 작품이 됐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색은 코로나로 피해를 보고 지친 사람들을 향한 ‘위로’를 담았다고 볼 수 있다. 알록달록 반짝이는 색은 아시아 다섯 나라의 용띠 무용수를 초대하는 초대장이다. 춤 전통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어 온 그들은 마치 시공을 넘나드는 용처럼 3D 이미지로 한국 부산의 무대에 나타났다. 저마다 물과 꽃, 바람과 공기의 색을 품고 화려한 비늘을 꿈틀거리며 무대 안팎을 자유롭게 넘나들었다.

용의 출현은 주로 목격담으로 전해진다. 인간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용이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쌓여 기원이 담긴 용의 모습이 만들어졌다. 역병이 창궐하는 세상에서 관객은 시공을 초월한 용의 춤을 목격했고, 용이 물고 있는 여의주가 ‘환대’이다. 칸트는 “이방인이 타지 사람의 땅에 도착했다는 이유로 타지 사람에게 적대적으로 취급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런 세계 시민적 태도를 ‘환대’라고 부른다. 칸트는 환대가 인류애에서 나온 태도가 아니라 이성이 강제하는 ‘권리’라고 선언한다. 칸트의 환대 개념이 국가 간의 경계가 명확히 그어지기 시작한 근대에 나온 것이지만, 국가 경계를 무력화시키는 비대면과 간접 접촉이 일상화한 코로나 시대에도 그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드래곤즈>가 보여준다.

무한한 자연의 색은 안은미라는 필터를 통과해 <드래곤즈>에 고통에 지친 이들을 환대하는 잔칫상을 펼쳐 놓았고, 30년 이상 150여 작품을 창작한 안은미 안무의 역사적 퇴적물과 다른 나라의 춤 전통은 3D 홀로그램 기술과 접목해 기막힌 위로의 판타지를 보여주었다. 이 판타지에서 춤은 서사를 구성하고자 배치된 의미 요소가 아니며, 흥분과 기쁨으로 자기파괴를 부정하는 몸짓으로 자신과 타인을 위로한다. 이 무조건적 환대야말로 환란의 시대에 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다.

운명이 가져다주는 시련을 참고 견디며

부산시립극단 제기회 정기공연 <바냐 아저씨>

◆ 정봉석 연극평론가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지난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는 <바냐 아저씨>(부산시립극단 제기회 정기공연)가 공연되었다. 2020년에 공연된 <갈매기>(제67회)와 <체홉의 이야기>(제68회), 2021년의 <벚꽃 동산>(제70회)에 이어 네 번째로 펼쳐지는 체홉 시리즈이다.

안톤 체홉(Anton Pavlovich Chekhov, 1860~1904)은 19세기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을 꽃피운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투르게네프 같은 위대한 거장들의 시대를 뒤로하고, 세기말의 불투명한 전망 속에서도 도래하는 새 시대의 문학정신을 모색하였던 소설가이자 극작가로 추앙받을 이유는 충분하다. 그러나 20세기로 접어들면서 발전을 거듭해온 사실주의와 모더니즘으로 인해 체홉 또한 자연히 구시대의 거장 자리로 밀려났다. 더군다나 지금은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용어도 퇴색해버릴 만큼 새로운 콘텐츠들이 쏟아지는 21세기임을 감안할 때, 근 3년째 바쳐지는 체홉에의 오마주는 다소 의아스럽다. 김지용 예술감독이 부임 초기 공연하였던 고대 비극들까지 엄두에 놓고 보면 부산시립극단이 지향해야 할 장르의 다양성과 실험의식이 자칫 저해되지는 않을까 염려가 드는 까닭이다.

그럼에도, <바냐 아저씨>는 체홉에게 극작가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안겨준 대표적인 희곡이다. 이 작품은 1897년에 출간한 자신의 <희곡 모음집>에 실려 발표되었다가, 1899년 10월 22일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스타니슬랍스키의 연출에 의해 무대화됨으로써 호평을 받고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아니 어쩌면, 사실주의

Review



연극론으로 유명한 '스타니슬랍스키 메소드'가 체홉의 작품으로 인해 탄생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의 '연극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체홉과 스타니슬랍스키의 인연은 그 한해 전인 1898년, <갈매기>의 공연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체홉이 처음 희곡을 쓴 건 스물한 살이던 1881년이다. 당시 모스크바대학교 의대생이었던 그는 치기만만하게도 자신의 첫 장막 희곡 <플라토노프>를 들고 국립 모스크바 말리극장을 찾아갔다가 보기 좋게 공연을 거절당하였다. 그 후 체홉은 가난한 집안 살림을 돕고 자신의 학비를 벌기 위해 콩트와 단편 소설에 주력하였고, 그 결과 그가 20대 말에 이르렀을 때는 어느새 주목받는 신진 소설가로 인정받게 된다. 그와 동시에 <곰>(1888), <청혼>(1889) 등 경쾌한 단막 소극들에서도 성공을 거두며 자신의 연극적 재능을 증명해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장막극인 <이바노프>(1889)와 <숲의 정령>(1890) 공연에서는 두 작품 모두 참담한 실패를 보게 된다.

<갈매기>는 그로부터 6년 만에 쓴 희곡이다. 1896년, 체홉은 <갈매기>로 다시 한번 야심차게 장막극 공연에 도전하지만 여지없이 흥행에 실패하고 만다. 그럼에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그 이듬해에는 <숲의 정령>을 고쳐서 <바냐 아저씨>로 탈고하고, 자신의 <희곡집>을 발간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갔다. 드디어 1898년, 모스크바 예술극장을 창단한 스타니슬랍스키가 체홉 희곡의 가치를 알아보고 연출을 맡음으로써 비로소 그의 장막극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이 두 사람의 콜라보에 의해 <갈매기>(1898)와 <바냐 아저씨>(1899) 공연이 대흥행을 이룬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즈음 체홉의 폐결핵이 깊어진다. 이후 44세의 일기로 눈을 감을 때까지 체홉은 <세 자매>(1901)와 <벚꽃 동산>(1904)을 창작하였고, 이 작품들도 역시 스타니슬랍스키의 연출을 거치면서 흥행을 이어갔다. 근대 사실주의 극작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체홉의 4대 희곡은 이렇게 탄생하였다.

2022년 부산시립극단의 <바냐 아저씨>는 서울예술대학교 극작과 교수인 성기웅 연출가의 객원 연출로 이루어졌다.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성기웅은 <조선형사 홍윤식>, <다정도 병인 양

하여>, <20세기 건담기> 등을 직접 쓰고 연출한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그는 2010년에도 부산시립극단 제38회 정기공연에 초청되어 자신의 대표작인 <조선형사 홍윤식>을 직접 연출한 적이 있다. 그때의 인연 탓인지 배우들의 연기가 섬세하게 어우러지는 가운데 점차로 감정선을 끌어올리는 메소드 시스템은 훌륭하였다. 특히 걱정과 상심의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최종적으로 비극적 페이스스를 완성해간 외삼촌 바냐(이혁우)와 동질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순수성을 잃지 않고 내면의 성장을 이끌어간 주인공 소녀(김은옥)의 앙상블이 돋보였다.

성기웅 연출은 극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원작에 충실하여 새로운 해석을 가미하지 않는 정공법을 택하였다. 이때 자칫하면 통속극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고전적 갈등 구조로부터 극적 개연성을 어떻게 살려내느냐가 관건인데, 연출의 해법은 무대 공간에 '시간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무대의 배경으로 자작나무를 세우고, 거실 세트와의 사이에는 성애가 긴 유리창 구조물을 배치함으로써 19세기 말엽 러시아의 영지와 현대적 도시의 이미지를 몽타주 하는 한편, 여름의 열기와 겨울의 황폐함을 동시에 느끼게 만들었다. 그리고 주요 인물들의 대사에 모던 풍의 마이크를 사용하여 이화효과를 유발시킨 것도 주효하였다. 그의 공헌에 감사를 보낸다.

p.s. 2021 부산국제영화제의 화제작이었던 <드라이브 마이 카> 속에는 <바냐 아저씨>의 색다른 연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비교해 볼 만하다. 중견 배우이자 연출가인 '가후쿠'가 히로시마 국제제에 객원 연출로 초청되어 <바냐 아저씨>를 만들어간다. 그는 스타니슬랍스키 메소드를 통해 국적과 언어 수단이 다른 배우들이 앙상블을 이루어가는 공연을 실험한다. 그 과정에서 인물들 사이의 아픈 사연들이 드러나지만, '운명이 가져다주는 시련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야 한다는 '소냐의 주제'를 완성시킨다. 이 작품을 연출한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 소설 <드라이브 마이 카>와 <세에라자드>, 그리고 체홉의 <바냐 아저씨>를 혼성모방(pastiche) 함으로써 칸영화제 각본상, 영국 아카데미와 골든 글로브 외국어영화상 등을 수상한 데 이어, 현재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각색상, 국제장편영화상 4개 부문 후보에 올라 귀추가 주목된다.

창작 윤리에 관한 질문

연극 <단편소설집>

◆ 허은 연극평론가,
전 경성대 연극과 교수

연극 <단편소설집(2022. 3. 18.) 김세준 연출/부산시민회관>을 보았다. 어떤 경로로 이 작품을 부산문화회관 측이 주최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사회적 문제와 그 고민을 다시 생각하게 해준 적절한 선택이었다. 또 잘 검증된 희곡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기에 그러하다. 희곡 자체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물론 공연된 작품에 대한 평단이나 관객의 평가는 드물게 칭찬 일색이다. 특히 희곡에 대한 평가는 화려하다. 물론 상업적 영향을 고려한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좋은 희곡’이라는 명성을 바탕으로 깔고 시작한다.

이 작품은 2016년 8월에 한국 초연으로 공연되면서 국내의 연극 애호가나 극단들에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극작가 도널드 마굴리스(Donald Margulies)의 <단편소설집(Collected Stories)>은 화려한 수식어를 가지고 있다.

2000년 ‘디너 워드 프렌즈’로 드라마 부문 풀리처상을 수상했고, 치밀하게 계산된 언어, 세대 간에 느끼는 시기와 열등감, 갈등·화해를 날카롭게 파헤친 수작...

스트린드베리의 <미스 줄리>처럼 두 캐릭터 ‘상실과 자아 찾기’라는 작가의 오랜 탐구가 응집된 작품이다. 치밀하게 계산된 언어, 잘 쓰여진 연극이 갖는 대사의 힘이 돋보이는 작품! 등등

희곡의 구조나 형식, 내용이 우수한 작품은 연출가나 배우에게 큰 힘이 된다. 말하자면 이미 50점은 확보하고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희곡의 유명세에 자칫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배우뿐 만이 아니라 무대장치나 조명 소품 등이 작가의 의도 이상으로 재창조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창작의 과정에서 중압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소설가를 꿈꾸는 제자인 리사(학생)와 그가 숭배하고 존경하는 작가이자 교수인 루스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과 그 사건들에 대한 이 두 인물 간의 예술과 윤리에 관해 주장과 각자의 혐의를 방어하는 치열한 논리를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감정 대립과 이 감

Review



정을 실어 나르는 칼날 같은 대사를 소화해내야 하는 배우들의 성격 창조는 아마도 희곡작가 이상으로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리사(김선희)는 말할 때마다 말꼬리를 올리는 습관을 통해 이 배역의 성격을 표현하고 있다. 리사는 스승이자 문단의 거장을 대하는 태도를 잘 드러내고 있다. 자기 확신의 어려움 때문에 그녀의 의문형 화술을 구사하는 모습은 극 초반부터 궁극적으로 풀어야 하는 의문을 암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화법 자체보다도 번역체 문장이 대화체로 만들어질 때 나타나는 어색함이 가끔 묻어나는 약점이 보인다. 루스(윤소희) 역시 번역체의 문장이 완전한 여과없이 사용되어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엔 부족함을 노출하기도 한다. 적어도 무대화 과정에서 문어체 혹은 번역체 대사의 세밀한 정리가 필요했다.

그러나 다행히 두 배우는 무난하게 두 인물의 성격을 끌어냈다. 극 초반의 두 사람의 어색하면서도 친밀한 관계는 교수의 테이블과 소파와 책상, 의자를 오가는 동선을 통해서, 소도구와의 감정이입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두 사람 관계의 발전과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함께한 6년간의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의상이나 헤어스타일을 통해 적절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배치된 소품이나 소도구 장치는 인물의 감정에 의해 생활화되기보다는 연출 선에 의해 약속된 듯이 보인다. 말하자면 미리 짜인 동선에 의해 그것을 활용한다는 약속처럼 보인다. 그 약속을 기계적으로 반복 활용하기에 생활 공간으로서의 장소가 아닌 어색한 타인의 공간이동처럼 보인다.

또 소품 하나하나에 대한 연기자의 반응 역시 감정의 표현을 만들어 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연극은 듣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들으면서 보고 무대 위에 있는 다양한 사인들이 마치 살아 있는 생물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는 즐거움이 수반 되어야 한다. 낭독 공연이 아닌 이상 무대 위의 모든 시각적인 것들은 연기자와 함께 적절한 의미를 생산하는 즐거움을 선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배우의 연기는 열정적이면서 무난했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무대환경

은 만족할 만한 조화를 만들지 못해서 아쉬움을 남긴다.

대사의 섬세함에 대한 관객의 집중력이 상승할수록 배우들의 움직임이나 장치, 소품에 대한 집중이 증가하기에 무대 환경과의 어색한 동거가 집중력을 흐리게 한다. 특히 루스의 방을 꽉 채우고 있는 책장은 대사나 감정의 섬세함과 비교하면 다소 엉성하게 처리되고 있다. 가지런히 꽂혀있는 말끔한 전집류 도서는 루스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보다는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이 극의 분위기는 한층 살아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시간이 갈수록 두 인물의 갈등이 연출의 인물 배치나 공간 확보에 힘입어 시각적으로 스승과 제자 관계의 정당성과 설득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힘을 발휘한 것은 작품의 주제를 이해하기에 힘을 보탠다.

사회비평가 제러미 리프킨은 오늘날은 '소유의 종말' 시대라 하였다. 천재나 혹은 특징인에 의해 독점되었던 것들은 산업 사회 속에서나 가능했다. 오늘날 같은 접속의 시대는 새로운 인간의 유형을 탄생시킨다. 우리는 그 새로운 시대가 무르익어가고 있는 시점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제는 관심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의 교점이라는 의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짧은 토막의 파편들을 모아서 긴 또 하나의 어떤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을 당연시하면 할수록 모방이나 차용의 과정에서 오는 도덕적 책무는 무시된다. 물론 이 주장의 중심에 예술 창작 과정에서의 삶과 예술의 관계, 작가의 삶, 작품 소유권의 문제, 작품에 나타나는 작가의 경험 여부 등이 다 포함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환경이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창작과 윤리의 본질 문제에 대한 의문은 이 작품을 통해 절실하게 느낄 수 있다.

제자는 스승의 인생을 훑친 것일까. 아니면 그것은 또 다른 창작의 본질을 정의하는 새로운 보편적 패러다임의 출발점을 암시하는 것일까?. 마지막 장면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 그리고 전화기를 통해서 들려오는 말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 그러나 벨 소리만 계속 울릴 뿐 루스는 전화를 받지 않고 막은 내린다. 통화의 내용을 관객이 알게 된다면 이 작품의 제목이 왜 <단편소설집>인지도 알게 될 것이다.

부산문화회관

2022 풀리처상 사진전 부산전시

일 시 | 1월 21일(금)-5월 15일(일) **전시실**
 입장료 | 일반 1만5천원, 청소년 1만2천원
 어린이 9천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60만명의 심장을 뛰게 한 풀리처상 사진전. 이번 전시는 1998년 한국에서의 첫 전시를 시작으로 4차례 전시를 통해 서울에서만 60만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사진전으로 기억되는 풀리처상 사진전의 2022년 부산전시로, 사진부문이 신설된 1942년부터 2021년까지의 수상작 140여점과 사진 뒤 숨겨진 이야기들이 소개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2019년 풀리처상 '브레이킹 뉴스' 사진부문에서 한국인 최초 수상한 사진기자 김경훈이 포함된 로이터통신 사진팀의 사진도 확인할 수 있다.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7:00
 (오후 6:00입장마감, 매주 월요일 휴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전래동화 뮤지컬 팔죽할멈과 호랑이

일 시 | 2월 19일(토)-4월 3일(일) 주말 오전 11:00,
 오후 2:00 **사랑채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3세 이상 입장, 10인 이상
 단체 6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www.bscc.or.kr



그동안 어린이와 가족 단위의 관객을 위한 다양한 콘텐트와 프로그램을 선보여온 어린이 전용극장 '사랑채극장'의 2022년 첫 무대 '팔죽할멈과 호랑이'. 우리의 전래동화를 가족 뮤지컬로 제작한 작품으로, 익살과 해학으로 가득찬 이야기를 통해 우리 옛 어른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지게, 절구통, 멍석 등 요즘은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의 전통 물건들이 등장하여 어린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편, 흥겨운 사물장단을 직접 손과 입으로 따라하며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6회 정기연주회 이방인

일 시 | 4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지난 2021년 도입한 '올해의 예술가'는 능력있는 예술가를 선정하여 한 해 동안 협업을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올해 주인공인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는 2015년 3월, 이탈리아 제노아에서 열린 제54회 프레미오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하여 '새로운 세대의 가장 재능 있는 젊은 현악 거장'으로 꼽힌 바 있다.

프로그램
 코른골트/바이올린 협주곡
 진은숙/수비토 콘 포르체[한국초연]
 라벨/다프니스와 클로에 모음곡 제2번
 • 지휘/최수열(예술감독) • 바이올린/양인모

2022 제40회 부산연극제

일 시 | 4월 1일(금)-23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4: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3만원(4작품 통합관람권 5만원)
 문 의 | 부산연극협회 645-3759
 www.bstheater.or.kr



매년 봄 펼쳐지는 부산연극 최대 축제인 2022 부산연극제. 오는 7월, 밀양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연극제의 예선을 겸한 뜨거운 경연의 장으로, 그동안 국내 작가의 창작극들이 무대에 오르면서 부산연극의 창작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올해 무대에서는 사전 심사 후 통과된 네 작품이 경연에 참가하며, 4월 1일과 23일 개막식과 폐막식이 개최된다.

1일(금) 오후 7:30, 2일(토) 오후 4:00
프로젝트팀 이틀 '마리'
 18세기 유럽 신분제도가 있던 시절,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계급적으로 가장 아래에 있던 사형집행인이 된 주인공은 어린 범죄자나 장애인 등 자신

의 죄가 원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의 사형을 집행하면서 점차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 눈을 뜨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화형 선고를 받은 마녀가 들어오고, 억울하게 마녀로 몰린 그녀의 사연을 들은 주인공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재판에서 변호를 맡게 되는데...

- 작, 연출/박준서
- 출연/박호천, 최현정, 김상호, 김아람, 차승현, 이영준, 허민경, 김성열, 엄지선

9일(토)-10일(일) 오후 4:00
극단 에저또 '흔들린다'
 해변 도로를 따라 이어진 방파제 끝 불췌 튀어나온 공터에 자리한 간이 부두의 낡은 텐트에는 비밀을 간직한 채 살고 있는 한 늙은 여인이 있다. 한국전쟁 당시 그녀의 부모가 빨갱이들로부터 총살당하고 그 일로 자연스럽게 세상과 격리된 채 할머니와 함께 해녀 일을 하며 살아온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고 살지만 남편의 폭력으로 삶이 망가지는데...

- 작/박태환 • 연출/최재민
- 출연/이지훈, 김지연, 양윤주, 김경민

15일(금) 오후 7:30, 16일(토) 오후 4:00
극단 바다와문화를사랑하는사람들 '그루터'
 멸망하는 지구에 오직 마지막 이름 없는 눈발에는 지구의 역사와 함께 살아온 오래된 나무, 그

루터와 다른 나무들이 태초의 예언을 실현할 인간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에게 나타난 인간은 임신한 어린 소녀 맨발, 그녀는 삶을 비판하고 죽으려 하지만, 운명의 만남을 위해 나무들은 그녀의 자살을 만류하는데...

- 작/최은영 • 연출/배문수
- 출연/이동현, 이은주, 윤준기, 박선, 고정보, 박규한, 김현주, 권은하, 최은영

22일(금) 오후 7:30, 23일(토) 오후 4:00
극단 이야기 '슬픔이 찬란한 이유'
 동해안에 위치한 해룡마을, 한 때는 관광객들로 북적였지만 최근엔 발길이 뜸 끊긴 작은 마을이다. 그 곳에는 산등짜장집과 바람의 노래 카페, 산채비빔밥집 그리고 폐가 한 채가 자리하고 있다. 마을에는 각자의 상실과 슬픔을 가슴에 간직한 여러 군상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날 자신이 폐가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영우와 낯선 사내가 폐가에서 발견되면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데...

- 작/김숙경 • 연출/박현형
- 출연/박현, 장민, 박영준, 김상호, 임선미, 양진철, 안성혜, 이동희, 송준승, 손미나, 엄준필

<풀리처상 사진전> 전시연계특강 풀리처상을 빛낸 사람들:기자정신

일 시 | 4월 2일(토), 9일(토), 23일(토) 오후 2: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3개 강좌 패키지 3만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세계의 근현대사를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전시 '풀리처상 사진전'을 보다 재미있고 색다르게 감상할 수 있는 전시연계특강 '풀리처상을 빛낸 사람들:기자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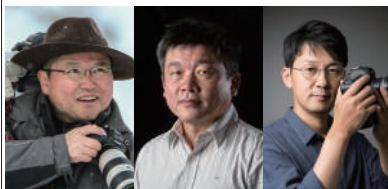
이번 특강에서는 풀리처상을 수상한 국내외 한국기자들로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수 있다.

2일(토) 사진과 감동으로 전하는 보도사진의 힘 강형원 기자가 직접 취재한 L.A 4.29 폭동, 9.11 참사현장, 워싱턴에서의 이라크 전쟁지휘, 클린턴 대통령 탄핵과 르윈스키 스캔들 보도 등 경험 사재를 통해 포토저널리스트이자 칼럼니스트로서의 삶과 직업의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한다.

9일(토) 외신기자가 들려주는 풀리처상과 한반도 한국전쟁으로 인해 외신기자들이 활동하게 되면서 한반도 문제가 중점적으로 보도되었으나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K-콘텐츠, BTS, K-POP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럼 풀리처상에 비쳐진 우리나라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2000년 풀리처상을 수상한 최상훈 기자로부터 풀리처상과 한반도, 그리고 외신기자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한다.

23일(토) 우리 모두가 비주얼 스토리텔러(Visual Storyteller)가 되는 세상

2019년 한국 국적 사진기자로서는 최초로 '브레이킹 뉴스 사진부문'에서 풀리처상을 수상한 로이터통신의 김경훈 기자와의 만남을 통해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사진으로 기록하는 사진기자로써, 또 사진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작가로서의 생각을 들어본다.



아르텔팔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사랑의 송가

일 시 | 4월 2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R석 10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문 의 | 아르텔팔하모닉 오케스트라
 010-6209-9990



사회복지법인 단우복지재단이 나눔과 실천의 사회공헌음악회로 마련하는 '사랑의 송가'.

프랑스어로 협동조합을 뜻하는 단어로,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구성된 오케스트라 협동조합인 아르텔팔

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이은경, 테너 김화정, 정태성, 바리톤 박정민, 그리고 정통 클래식은 물론 뮤지컬, 재즈 등 다양한 음악적 시도로 대중과 만나온 아트라스(Artlas), 마술사 함현진이 출연, 다채로운 클래식 무대와 매직쇼로 관객들에게 위로와 힐링의 무대를 선사한다.

• 지휘/윤혁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만우절 음악회

일 시 | 4월 6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1층) 1만원, S석(2층)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계속되는 팬데믹으로 지쳐있는 시민들을 위로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유쾌하고 통쾌한 코믹 퍼포먼스 '만우절 음악회'.

기존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가졌던 연주회의 틀에서 벗어나 마당놀이를 연상케하는 춤과 노래, 그리고 연극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다.

- 지휘/김종욱 • 작곡/편곡/이경은, 김종욱
- 집박/전학수 • 테너&바리톤/부산시립합창단
- 댄스/김하림, 신원국
- 연극&내레이션/부산시립극단
- 가야금/김지현 타악/박재현
- 풍물/전학수, 송강수, 최오성, 박재현, 이주현, 최정욱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비발디의 세계

일 시 | 4월 9일(토)-5월 6일(금) 오전 11:00
 | 오후 2:00(평일 단체공연) 사랑채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3세 이상 입장, 10인 이상 단체 6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www.bscc.or.kr



그림자극으로 만나는 특별한 음악여행 '비발디의 세계'.

트리나 폴리스의 그림우화 '꽃들에게 희망을'을 원작으로 한 이번 작품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곡인 비발디의 '사계'와 그림자극이 어우러지는 작품으로, 계절의 변화를 비발디 '사계'를 통해 귀로 듣고 화려한 색감의 그림자극을 통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림자극과 클래식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클래식 음악을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부산의 미래를 향한 신인음악회

일 시 | 4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부산문화 1600-1803



테너 박성백, 소프라노 정혜민, 정성혜, 피아니스트 이보리,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우, 첼리스트 조명환 등 해외에서 음악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부산 출신의 30대 실력있는 연주자 6명이 펼치는 '부산의 미래를 향한 신인음악회'.

이번 무대에서는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비롯해 독주, 트리오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 사라사테/파우스트 판타지 작품 13
- 히나스테라/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랍소디 2번 '팜 페어나'
- 쇼팽/폴로네이즈 환상곡 작품 61
- 멘델스존/피아노트리오 제1번 라단조
- 말러/휘케르트 시에 의한 5개 가곡 중 제3곡 '한밤중 이수인/고향의 노래'
- 푸치니/오페라 '라보엠' 중 '오 사랑스런 아가씨' 등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김준수, 하윤주, 두번째달 팔도유람

일 시 | 4월 17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퓨전 밴드 '두번째달'과 '국악계 아이돌'로 꼽히는 남도 소리꾼 김준수, 정가 보컬리스트 하윤주가 만나 새로운 색깔의 음악무대를 선사하는 '팔도유람'.

'음악으로 만나는 전국 팔도의 모습'이라는 뜻은 담은 '팔도유람'은 두번째 달이 지난 2019년 발매한 동명의 음반작업에 함께 참여했던 김준수, 하윤주가 함께하는 국악콘서트로, 남도소리의 선 굵은 애절함과 고전적인 목소리의 현대적인 감성을 두번째달만의 독특한 색깔로 풀어낸다.

이날 무대에서는 음반 '팔도유람'의 수록곡을 비롯해 '불후의 명곡'과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세계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UKO 창단 15주년 기념음악회

일 시 | 4월 20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UKO 988-3087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 환자들을 돕기 위해 2006년 설립된 부산 최초의 민간 기부 교향악단 '유나이티드 코리아 오케스트라(UKO:United Korean Orchestra)'가 창단 15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념음악회.

지휘자 오충근이 지휘하고 오보이스트 고관수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하이든 '놀람교향곡'을 시작으로 하이든 '오보에협주곡',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5번'을 들려준다.

온화한 카리스마의 마에스트로 오충근은 베를린심포니오케스트라, 도쿄필하모닉오케스트라, 러시아 국립에르미타주오케스트라,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등 국내외의 우수 교향악단을 지휘했으며, 제48대 난파음악상, 제9회 KNN 문화대상(문화예술 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오충근은 현재 국립 부경대학교 석좌교수, 부산심포니오

케스트라 예술감독, 부산클래식음악제 예술감독으로 있다.

오보이스트 고관수는 연세대학교와 독일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국내외 콩쿠르에서 다수 입상한 바 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을 역임하고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Club M 멤버, 뷔에르 앙상블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성대학교 겸임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로 창단 15주년을 맞은 유코는 뜻을 같이 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을 중심으로 전문 연주자 10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2006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50차례 정기연주회와 부산-LA 자매결연 40주년 기념 미국 로스엔젤레스 연주회, 제주 초청연주회, 미국 코리아타운 유스 커뮤니티센터 초청연주회, 중국 강소성 연주회, 한-뉴질랜드 수교 50주년 기념음악회, 오스트리아 초청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음악활동을 통해 환자와 환자가족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티켓 판매의 수익금을 기부함으로써 현재까지 200명의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한 바 있다.

• 지휘/오충근 • 오보에/고관수

전원경의 아트살롱

그림콘서트 봄을 맞은 파리

일 시 | 4월 20일 수요일 오전 11: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2천원(4개 프로그램 패키지 4만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강연(Lecture)과 공연(Concert)이 결합된 그림콘서트 '전원경의 아트살롱' 미술과 음악을 한 번에 감상할 수 있는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이자 예술전문 작가인 전원경의 해설로, 계절별 세계의 다양한 도시로 여행여행을 떠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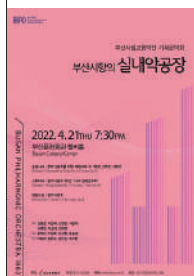
특히 도시의 예술문화와 작품이 탄생한 배경, 역사적 사건 등에 대한 알기 쉬운 해설과 함께 미술작품과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무대로, 이번 '봄을 맞은 파리'에서는 화가 에두아르 마네, 클로드 모네, 오귀스트 르누아르, 에드가 드가, 쿠스타브 카유보트의 작품과 함께 쇼팽과 포레, 비제, 생상스, 드뷔시 등 봄을 노래하는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 피아노/김민정 • 플루트/장예지
- 소프라노/김유진 • 반주/이승윤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

일 시 | 4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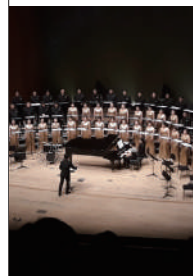
정기연주회에서는 감상하기 힘들었던 실내악 걸작들을 감상할 수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실내악공장' 2022년 첫 무대.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차별화된 연주로 실내악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로, 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파트 단원들이 출연, 현악기가 빛어내는 아름다운 하모니로 힐링의 무대를 선사한다.

- 바이올린/임홍균, 이은옥, 김영준, 서은아, 시명윤, 우소라, 임지영
- 비올라/황여진, 이성호, 김상철, 윤솔샘
- 첼로/이일세, 김판수, 김민승, 최지현

한울림합창단 창단 44주년 기념 정기연주회

일 시 | 4월 22일 금요일 오후 8: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한울림합창단 010-6252-0019



지난 1978년 창단된 후 올해로 창단 44주년을 맞는 한울림합창단 정기연주회. 2005년 부산광역시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된 한울림합창단은 그동안 '다시 부르는 겨레의 노래 전국 5개 도시 순회연주회'를 비롯해 창작 연가곡 '아름다운 부

산', 윤이상 칸타타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한국초연주관)', 광복60주년 기념 아시아 한미당, 한형성 할일음악회(중국 북경 국립중앙음악원), 한 일 교류음악회(후쿠오카) 작곡가 변훈 추모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민족 음악 탐구와 창작을 통한 다양한 합창 레퍼토리 발굴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그동안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합창무대로 위로와 용기를 전한다.

• 지휘/김창돈 • 반주/전해란

**박승훈 트럼펫&플루겔혼 독주회
차가움 혹은 따뜻함**

일 시 | 4월 24일 일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학생, 예술인패스 5천원)
 문 의 | 음악실협실 짜임 010-2332-3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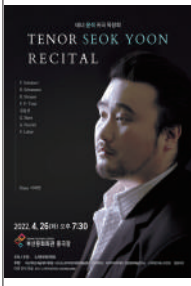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왕성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트럼페터 박승훈 독주회. 영남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도미, 뉴욕 퀸즈 컬리지-아몬코플랜드 음악대학 석사과정을 졸업한 박승훈은 퀸즈컬리지 재학당시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며, 퀸즈컬리지 오케스트라/심포닉 밴드, 뉴욕 코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퀸즈 오케스트라, The Brass Trio, Max Brass Quintet 단원 및 객원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연주 경력을 쌓았다. 박승훈은 현재 부산예술고등학교, 인제대학교, 동아대학교, 영남대학교 겸임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는 한편, 영남대학교 윈드오케스트라 지휘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 피아노/김혜린 • 바이올린/김영준

테너 윤석 귀국독창회

일 시 | 4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SJ엔터테인먼트 010-9582-3899



활렷한 고음으로 관객을 사로잡는 테너 윤석의 귀국 독창회. 부산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유학, 비엔나프라이너너우데 성악과, 독일가곡 및 종교음악과 수석졸업, 동대학 오페라과를 졸업한 후 유럽에서 활동해온 윤석은 수차례 오페라 주역 외에도 유럽 현지에서 제작된 한국 오페라 '춘향전'의 주역을 맡아 유럽 순회연주를 가진 바 있다. 윤석은 비엔나 유학시절 '젊은 파바로티'라는 찬사를 받으며 세계적인 성악가들과 함께 연주, 수학했으며 비엔나 시 주최 국제 예술가 대회에서 1등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슈베르트 가곡에서부터 푸치니 오페라 아리아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난다.

- 피아노/이희연

박정희 피아노 리사이틀 회상

일 시 | 4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3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명확한 해석과 음악적 균형으로 강력한 마력을 뽐내며 끊임없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정희 독주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도미, 보스턴 뉴잉글랜드음악원에서 석사학위(MM)와 Graduate Diploma를, 론지음악원에서 Artist Diploma와 보스턴대학교에서 박사학위(DMA)를 취득하고 현재 동아대학교 교수로 있는 박정희는 특히 지난해, 2017년부터 시작된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회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관객을 압도하는 무대매너, 명쾌한 해석과 열정적이고 절제된 표현력으로 베토벤의 송고한 음악세계를 그려냈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프로그램
 칼 체르니/로데(Rode)에 의한 변주곡 '회상'
 슈만/어린이정경 작품 15 등

**제7회 하모니 색소폰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힘내자! 대한민국**

일 시 | 4월 28일 목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하모니 색소폰 오케스트라 010-3517-3633



지난 2012년 결성된 후 다양한 무대에 서온 순수 아마추어 색소폰 연주단체인 하모니 색소폰 오케스트라의 7번째 정기연주회. 특히 2014년 야마하 주최 2014 부산 제7회 전국 색소폰경연대회 특별상을 시작으로 2015년 (사)한국생활음악협회 김해지부 주최 제1회 앙상블연주경연대회 금상, 대구예술대학교 주최 제5회 전국 색소폰경연대회 합주부분(성인부) 1등상, 2017년 동의대학교 주최 제8회 전국 실용음악콩테스트 일반부 최우수상(총장상), 2018년 동의대학교 실용음악 콩쿨 앙상블부분 대상(총장상)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 지휘/이상훈 • 객원지휘/진영희
- 협연/이수정, 우원석 • 우정출연/코페아

**2022 빅마마 전국투어 콘서트
ReBo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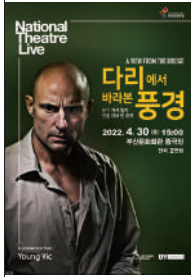
일 시 | 4월 30일 토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 R석 14만3천원, S석 13만2천원 A석 11만원
 문 의 | 인터파크 티켓(1544-1555) 멜론 티켓(1899-0042)



9년 만의 재결합으로 화제를 모은 빅마마 전국투어 콘서트. 지난 2003년 신연아, 이지영, 이영현, 박민혜 4명의 여성보컬리스트로 구성된 빅마마는 실력파 뮤지션으로 많은 사랑을 받다가 2012년을 마지막으로 각자의 음악활동을 펼쳐오다 지난해 6월 디지털싱글 '하루만 더'를 통해 완전체로 복귀했다. '빅마마로 비로소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ReBorn'을 타이틀로 내건 이번 콘서트에서는 올해 2월 발매된 정규앨범 'Born(本)'에 수록된 멤버별 솔로곡 무대를 최초로 공개하며, '배반', '거부', '여자', '안부' 등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들의 히트곡들로 꾸며진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NT-Live 다리에서 바라본 풍경**

일 시 | 4월 30일 토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만 15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영국 연극계의 화제작을 생생한 영상을 통해 감상할 수 있는 NT-Live '다리에서 바라본 풍경'. 영국 국립극장이 지난 2009년 세계 최초로 시도한 'NT-라이브'는 특히 여러 대의 카메라가 잡아내는 다양한 앵글과 카메라 샷으로 배우들의 섬세한 표정과 연기를 실제 공연보다 더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다. 세계 3대 공연상이라 불리는 로런스 올리비에상 3개 부문을 수상한 화제작 '다리에서 바라본 풍경'은 '셰일즈만의 죽음'으로 유명한 20세기 최고의 극작가 아서 밀러의 희곡을 무대화한 작품으로, 특히 원작을 살린 감각적 연출과 미니멀한 무대에서 최고의 몸으로 열연하는 배우들의 완벽한 조화로 평단의 많은 찬사를 받은 바 있다.

부산시민회관

이현우 귀국 바이올린 리사이틀

일 시 | 4월 30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ETERNA Trio 멤버, Etoile 앙상블 리더로 활약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우 귀국 독주회. 부산예고를 졸업하고 도독, 칼스루헤 국립음대 학사와 하노버 국립음대 석사, 그리고 뷔르츠부르크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독일 자브뤼켄 국립음대 실내악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이현우는 부산음악협회 콩쿠르 1위, Di Musica Euterpe in Corato 국제콩쿠르 1위를 비롯하여 The Paolo Serrao Special Award in Filadelfia 국제 실내악 콩쿨 3위를 수상한 바 있다. 이현우는 현재 부산예중, 부산예고에 출강하며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정, 독일 자브뤼켄 국립음대 실내악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이현우는 부산음악협회 콩쿠르 1위, Di Musica Euterpe in Corato 국제콩쿠르 1위를 비롯하여 The Paolo Serrao Special Award in Filadelfia 국제 실내악 콩쿨 3위를 수상한 바 있다. 이현우는 현재 부산예중, 부산예고에 출강하며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베도벤/소나타 제5번 '봄' 작품 24
 사라사테/구노의 '파우스트' 주제에 의한 새로운 환상곡 작품 13 등

헤이지니&럭키강이 시즌2 비밀의 문

일 시 | 4월 9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10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대극장
 입장료 | 1층석 6만원, 2층 5만원
 문 의 | 극단 바위처럼 1577-4868



어린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현실남매 키즈 콘텐츠 크리에이터 지니와 강이가 관객들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형식의 패밀리 뮤지컬 '헤이지니&럭키강이' 시즌 두번째 무대 '비밀의 문'.

어린이들이 상상하는대로 뭐든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마법의 세계로 갈 수 있는 비밀의 문이 지니와 강이 앞에 나타나고, 이곳을 통과할 수 있는 신비로운 마법의 열쇠를 얻게 된다. 이들이 비밀의 문을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놀라운 세상이 펼쳐지면서, 어린이 관객 모두가 슈퍼히어로로 변신하는 놀라운 경험도 펼쳐진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2 시민뜨락축제

일 시 | 4월 22일(금)-5월 20일(금) 매주 금요일 오후 12:20 야외광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이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마련하는 대표적인 야외무대축제 '2022 시민뜨락축제'. 매년 봄과 가을 펼쳐지는 '시민뜨락축제'는 그동안 일상적 공간에서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면서 부산시민회관이 '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일정

4월 22일(금) 블루앙상블, 록스
 4월 29일(금) 얼터너티브 국악그룹 초아, 알싸하게 또마 부산플라멩고
 5월 6일(금) 퓨전국악밴드 비원, Project A
 5월 13일(금) 이깔림 앙상블, 어쿠스틱 나무의자
 5월 20일(금)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합창단 제185회 정기연주회 전래동요에 의한 가족음악극 옛날 옛적에

일 시 | 5월 4일 수요일 오후 7:30, 5일 목요일 오전 10: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3세 이상 입장,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어린이들에게도 잘 알려진 전래동화 '해님 달님', '선녀와 나무꾼' 등 두 편의 이야기를 엮어 만든 창작 음악극으로, 노래와 춤, 연기가 어우러져 기존 합창 무대에서는 만날 수 없는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이기선이 지휘하고 작곡가 이진실이 작곡 및 시놉시스를 맡아 중심 이야기를 만들었으며, 극단 아트레볼루션 대표 박정우의 연출, 2310밴드의 대표 이상열이 편곡을 맡아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음악극으로서의 더욱 풍성한 무대를 위해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2310밴드가 연주를 맡았으며, 부산시립극단 서보기, 성야민, 손민아가 출연하여 극적 재미를 더해준다.

포르테 디 콰트로 콘서트 메타포닉

일 시 | 4월 23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13만2천원, S석 11만원 A석 8만8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S, A석에 한해 10% 할인, 1인 2매)
 문 의 | (주)WSM 1566-5490



크로스오버를 넘어 오직 그들만의 새로운 음악적 장르와 함께 돌아온 대한민국 대표 크로스오버 그룹 '포르테 디 콰트로 (Forte Di Quattro)' 부산 콘서트.

2017년 크로스오버 남성 4중창을 선발하는 JTBC '팬텀싱어'의 초대 우승팀으로 고훈정, 김현수, 손태진, 이버리로 구성된 포르테 디 콰트로의 팬텀싱어 우승 이후 세계적인 클래식 레이블 데카를 통해 4장의 음반을 발매했으며, 일본 데뷔 공연을 포함해서 70회 이상의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그동안 선보였던 음악과는 사뭇 다른 강렬한 미디 사운드와 미래지향적 컨셉이 돋보이는 포르테 디 콰트로만의 음악을 들려준다.

부산시민회관 2022 문화가 있는 날 배시시 명품극장 달래이야기

일 시 | 4월 27일 수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지정좌석제,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이 예술의전당 우수 공연 콘텐츠를 공연장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상영하는 2022 문화가 있는 날 '배시시 명품극장'.

올해 '배시시 명품극장'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 상영회를 갖는다. 4월 상영회에서는 가장 한국적인 정서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웰메이드 인형극 '달래이야기'를 선보인다.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아름다운 인형극 '달래이야기'는 625 전쟁 중 홀로 남겨진 어린 달래의 눈으로 보는 전쟁 속의 가족 이야기를 인형의 섬세한 움직임과 메시지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제36회 짜장콘서트

일 시 | 4월 2일 토요일 오후 4:00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입장료 | 사전예약(선착순 40명)
문의 | 음악풍경 010-3091-1524



올해부터 '음악과 역사의 만남'이라는 테마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펼쳐지는 전문예술단체 음악풍경의 짜장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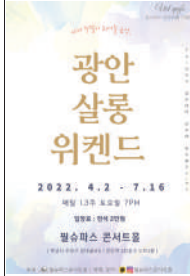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別離: 죽은 자를 위한 마지막 노래'라는 부제로, 실제 장례식 현장에서 연주될 수 있는 레퍼토리를 선정, 일정한 스토리텔링에 따라 진행한다.

소프라노 김민성, 바리톤 시우민, 그리고 앙상블 프로무지카(바이올린 김지훈, 첼로 황선지, 피아노 손모아)가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뮤지컬 작가 김지은의 대본에 의한 소프라노 신하람의 맛깔스런 진행으로 널리 알려진 동요에서부터 가곡, 가요, 민요 등을 들려준다.

필슈파스 콘서트홀 기획연주 광안살롱위켄드

일 시 | 4월 2일(토), 16일(토) 오후 7:00
필슈파스 콘서트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필슈파스 콘서트홀 010-6284-6357



Daniel Fortea 국제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1위 입상하는 등 차세대 재원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클래식기타리스트 윤종혁 독주회.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수석으로 입학, 재학 당시 스페인으로 건너간 윤종혁은 살라망카 국립음대 재학시절, 독일 뷔르츠부르크 음대와의 자매결연 연주회에서 스페인 축을 대표하는 단독 솔리스트로 학교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특히 윤종혁은 오스카 길리아, 알렉스 가로베, 위르겐 록 등 세계적인 거장들로부터 '정열적이고 힘이 넘치며 음악성이 뛰어난 연주자'라는 찬사를 받은 바 있다.

• 해설/조난영

부산오페라 2022 정기연주회 프랑스 가곡시리즈 <월광> 3부작 No.2 뒤파르크의 달과 6펜스

일 시 | 4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일반 4만원, 청소년 2만원(2004년 이후 출생) (12세 관람가, 예매시 30% 할인)
문의 | 부산오페라 010-7269-8776
www.busanopera.com



부산오페라가 2022년 새롭게 기획한 프랑스 가곡 시리즈 '월광' 3부작의 두 번째 무대. 테너 신하섭과 피아니스트 조경진이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프랑스 작곡가 뒤파르크의 작품을 들려준다.

이번 무대에서는 제1부 여행, 제2부 피정, 제3부 여정 등 총 3부로 나뉘어 그의 대표적인 가곡들을 들려준다. 뒤파르크가 남긴 16곡의 가곡은 프랑스풍 낭만의 극치를 이루는 것으로, 새로운 프랑스 가곡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월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4

매월 다채로운 장르의 무대로 관객과 만나는 금정수요음악회 4월 무대.



6일(774회) 올포드 비올라 콰르텟 'For Four Violas'

비올리스트 최하람, 홍진선, 김규, 박명훈으로 구성된 올포드 비올라 콰르텟의 무대.

한국초연곡인 'For Four Violas(김종완 곡)'을 비롯해 비올라 앙상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프랑크 브릿지/두 대의 비올라를 위한 '애가' 존 다울랜드/나의 비탄이 열정을 다시 태울 수 있다면
김종완/For Four Violas[한국초연]
바흐/샤콘느 등 수곡



13일(775회) 강한솔, 정은혜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제57회 조선일보 신인음악회에 함께 출연한 후 2016년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열린 United States 국제피아노콩쿠르에 입상하며 국제적인 연주자로 자리매김한 피아니스트 강한솔, 정은혜의 듀오 무대.

프로그램
베토벤/에그몬트 서곡 작품 84
슈베르트/판타지 바단조 작품 940
라벨/라 발스
비제(앤더슨 앤 로 편곡)/카르멘 판타지



20일(776회) 테너 강도호 귀국 독창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성악과를 졸업하고 도블, 세르지-퐁투와즈 국립음악원에서 전문연주자과정, 베르사유 국립음악원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테너 강도호

귀국 독창회.

이번 무대에서는 슈베르트, 라벨, 폴랑크의 가곡을 비롯해 모차르트, 멘델스존, 람로, 오펜바흐의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27일(777회) 이전매리 가요금 Story! '梅'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는 가요금주자 이전매리의 무대. 이전매리는 대구시립국악단 제26회 청소년 및 제3회 대학(원)생 협주곡의 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46회 청소년 협연의 밤 등 꾸준히 무대에 서고 있다.

프로그램
미키 미노루(백대웅 편곡)/소나무 달음(Dal:um) 하수연, 황혜영/허물어지는 시간 서정민/호랑이사나무 최옥산류 가야금산조-梅(이아로 편곡) [개작초연] 정동희(이아로 편곡)/가야금과 스트링을 위한 찬기파랑가 [개작초연]

- 거문고/황진호 • 기타/진석곤
- 건반/차민영 • 편곡/이아로
- 퍼커션/윤승환 • 바이올린/최주은
- 첼로/조현철

임재홍 바이올린 독주회 Leidenschaft

일 시 | 4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가운클래식
 010-4080-0614, 070-8811-0513



동아대학교 교수이자 코리안 챔버오케스트라 악장, BCMS 음악감독으로 있으며 클래식 전문 음악 유튜브 'jaehong TV' 운영자로 음악 다방면에서 활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임재홍 독주회.

영국 런던 길드홀 음악대학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음악대학교를 거쳐 잘츠부르크 모짜르테움 국립음악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과정, 독일 뮌헨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임재홍은 매년 수회의 연주회를 통해 고전과 근대를 아우르는 소나타 시리즈 등으로 도전적이며 열정 가득한 연주를 들려주고 있다.

이은정의 피아노 플러스 with Duo Ven

일 시 | 4월 17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운빛샘홀
 문 의 | 이은정 010-3580-1156



인제대학교 교수로 있는 플루티스트 오신정과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있는 피아니스트 이은정으로 구성된 듀오벤의 세 번째 연주회.

젊은 신예 연주자를 발굴하고 관객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새로운 음색을 들려주고자 마련한 무대로, 현악기, 관악기에 이어 이번 무대에서는 타악기와와의 앙상블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마이크 모워/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라티노
 끌로드 볼링/플루트와 재즈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조곡
 폴랑크/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 타악/하경륜, 전민욱, 강도혁

제6회 예술공감 젊은예술 날라리와 쟁이의 Hip 한 국악 sound

일 시 | 4월 19일 화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5천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



을숙도문화회관이 지역 예술인들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공연예술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한 '예술공감' 여섯 번째 무대. 국악과 실용음악이 더해진 밴드팀으로, 우리의 전통국악을 재해석한 색다른 퓨전국악으로 관객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젊은예술 날라리와 쟁이가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기존의 전통국악과 클래식을 현대적인 시선에서 풀어내어 누구나 좋아할 만한 보다 넓은 스펙트럼의 음악 장르로 관객과 만난다.

프로그램
 Over the rainbow, 한번의 인생, 환호, 작약, 살다보면 등

을숙도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콘서트 조항조·박애리&오케스트라

일 시 | 4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3만원, 2층 2만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



지난 2002년 개관 후 을숙도에서만 볼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예술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서부산권 문화의 전당으로 자리매기만 을숙도문화회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마련한 축하 무대.

특히 이번 무대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는 무대이자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신춘음악회로, 방송인으로 활발히 활동을 펼치고 있는 명창 박애리, 최근 트로트 바람을 타고 제2전성기를 맞이한 가수 조항조, 그리고 50인조 양악국악 혼합 오케스트라가 출연, 화려하면서도 풍성한 무대로 개관 20주년을 축하한다.

국립창극단 단원으로 있는 박애리는 제12회 전주대사습놀이 장원, 제12회 동아콩쿠르 금상, 제8회

전국 진도민요경창대회 대통령상에 이어 최근 제46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대통령상을 수상한 명창으로, 다양한 창극무대와 더불어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룹사운드 보컬로 가수활동을 시작했지만 20년동안 긴 무명시절을 겪다 지난 1997년 '남자라는 이유로'가 빅 히트를 치면서 인기가수로 거듭난 조항조는 '사랑찾아 인생찾아', '사랑꽃' 등 다수의 히트곡을 보유하며 발라드와 트로트를 섞어놓은 듯한 음악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50인조 양악·국악 혼합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코로나19로 지친 관객들에게 힐링의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조항조 '가요메들리', 박애리 '썩대머리', '초소의 봄' 등 수곡



제6회 굿모닝 콘서트 사랑 이야기

일 시 | 4월 22일 금요일 오전 11: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
 (블랙업커피 포함, 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



공연의 여운과 커피의 향기로 두배의 기쁨을 누리는 을숙도 음악산책 굿모닝콘서트 4월 무대.

매소드첼비와 통기타가수 한가비, 뮤지컬가수 김수아, 소프라노 최유진, 바리톤 김경한 등 부산의 실력파 뮤지션들이 출연

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사랑 이야기'라는 부제로 사랑, 행복, 이별, 그리움, 회상 등 다양한 우리들의 인생이야기가 담긴 한국가곡을 보다 친밀하고 듣기 편한 편곡으로 관객들에게 정서적 힐링을 선사한다.

특히 전문 방송인 손지현 아나운서의 품격 있는 해설과 함께 공연 후 커피를 제공,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소소한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한다.

• 해설/손지현(前 MBC부산문화방송 아나운서)

부산사람들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일 시 | 4월 23일 토요일 오후 3: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사람들오케스트라 010-9392-5071



지난 2019년 음악을 전공한 지역 음악가들과 아마추어 연주자들로 결성된 부산사람들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다양한 자신의 직업군에서는 '프로'지만 기꺼이 '아마추어'로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겠다는 열정을 가진 부산사람들오케스트라는 창단 직후 발생한 팬데믹 사태로 한동안 활동을 중단하고 재개하기를 거듭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꾸준한 연습을 가져오며 연주실력을 쌓아왔다. 창단 2년만에 창단연주회를 갖는 부산사람들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을 비롯해 엘가의 '헌을 위한 세레나데', 시벨리우스 '핀란드리아'를 들려준다.

- 단장/김동현 • 지휘/신광호

브이브라스 제6회 정기연주회 Funny Classic

일 시 | 4월 24일 일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문 의 | 브이브라스 010-5171-0336



트럼펫 박춘호, 위대한, 트롬본 김정현, 튜바 김정훈, 퍼쿠션 김영훈, 호른 최희진으로 구성된 브라스밴드 브이브라스의 무대. 브이브라스는 지난 2015년부터 클래식악기를 이용한 다양한 움직임과 시도를 가져오며 보다 편하게 관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토크 클래식 형식의 무대를 선보여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퍼니 클래식(Funny Classic)'이라는 부제로, 1부에서는 윈드오케스트라의 오중주화, 2부에서는 클래식의 탈바꿈이라는 주제로 브이브라스만의 색다른 무대를 선사한다.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피아노의 전설 쇼팽VS리스트

일 시 | 4월 26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따뜻한 커피향과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4월 무대. '피아노의 전설 쇼팽VS리스트'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같은 시대, 폴란드와 체코에서 태어나 파리로 건너온 이방인이자 피아노에 의한, 피아노를 위한 작곡가이자 연주자였던 쇼팽과 리스트의 작품세계를 비교해본다. 공연전문지 '클럽발코니' 편집장인 이지영의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그동안 호주와 유럽, 북미, 아시아 등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해 온 피아니스트 문재원의 연주로 들려준다.

제7회 예술공감 국악실내악팀 도시락 흥취

일 시 | 4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5천원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



국악그룹 도시락의 흥겨운 무대를 감상할 수 있는 울속도문화회관 '예술공감' 일곱 번째 무대. 지난 2011년 창단한 국악그룹 도시락(都是樂)은 '모두[도], 이다[시], 음악[락]'으로 든 것이 음악 이다'라는 뜻을 가진 국악단체로 타악, 가야금, 해금, 판소리, 피리, 대금, 아쟁 등 다양한 악기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전통국악에 다양한 장르를 접목시켜 국악의 무한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우리음악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도시락은 이번 무대에서 판소리 '춘향가'를 관객의 시선으로 재해석, 우리 국악의 흥을 관객과 함께 즐긴다.

필슈파스 콘서트홀 상설연주 피아노와 클라리넷이 들려주는 정오의 선율

일 시 | 4월 28일 목요일 낮 12:00
필슈파스 콘서트홀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
문 의 | 필슈파스 콘서트홀 010-6284-6357



연주자와 관객이 음악으로 하나되어 음악적 교감을 나누고자 다양한 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있는 필슈파스 콘서트홀이 매월 상설무대로 마련하는 12시 마티네콘서트 '정오의 선율'. 클라리넷리스트 이한석, 피아니스트 박다은으로 구성된 상주단체 '양상블 클라온'의 연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점심시간 위로와 휴식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아름다운 멜로디로 공감과 힐링을 전한다.

박주현 클래스 작곡 발표회

일 시 | 4월 29일 금요일 오후 6: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문 의 | 박주현 010-9269-6319



연세대학교 작곡과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작곡)을 졸업한 작곡가 박주현의 제자들이 준비한 작곡 발표회. 이번 무대에서는 김윤솔(거제여중), 이다영, 정주영(부산예고), 이도희(웅상고), 최예린(이화여대), 김현진(이화여대)의 창작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김윤솔/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조곡 'Journey'
이다영/Bb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Spring'
최예린/피아노를 위한 7개의 변주곡
이도희/바이올린과 첼로, 피아노를 위한 'Adventure in the forest'
김현진/생상 테마에 의한 변주곡
정주영/바이올린과 첼로,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B.A.C.H'

연극

2022 을숙도 청년예술인을 위한 콘서트
시리즈 맨즈하모니의 '숨표'

일 시 | 4월 29일 금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5천원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



부산 청년예술가들을 위해 을숙도문화회관이 특별히 기획한 청년콘서트 시리즈 첫 번째 무대 '맨즈하모니의 숨표'. 탄탄한 실력을 갖춘 4명의 젊은 성악가들로 구성된 남성 4인조 맨즈하모니는 예술성과 대중성을 두루 갖춘 중창팀으로 클래식, 오페라, 가곡, 팝 등 다채로운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숨표'를 부제로 한 이번 무대는 숨을 쉬는 구간을 표기하는 기호인 '숨표'처럼 계속되는 코로나 19로 고단한 삶을 사는 이웃들에게 잠시나마 쉬어가며 음악으로 위로받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연극 보잉보잉

일 시 | 3월 17일(목)-5월 15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 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전석 4만원
문의 | (주)KNN 1588-2757



2001년 초연된 후 현재 400만명 관객을 돌파하며 신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스테디셀러 연극 '보잉보잉'. 대학로를 대표하는 코미디 연극 '보잉보잉'은 미모의 스텐더디스 애인을 셋이나 두고 있는 바람둥이 주인공 조성기를 둘러싼 해프닝을 다루는 코미디 장르극으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코믹한 스토리가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악천후로 비행기가 결항된 어느 날, 애인 중 한 명인 이수가 조성기를 찾아온다. 고향친구 순성과 가정부 옥희는 조성기의 외도를 숨겨주기 위해 동분서주하지만 자꾸만 돌발상황이 발생하면서 성기의 애인 세 명 모두가 한 집에 모이게 되는데...

연극 완벽한 커튼콜

일 시 | 3월 24일(목)-5월 29일(일) 평일 오후 7:00, 주말 오후 2:30, 5: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분장실이라는 독특한 소재와 한번에 두가지 공연을 볼 수 있는 신선한 시도, 그리고 파격적인 웃음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연극 '완벽한 커튼콜'. 연극 '설록홀츠'가 무대에 오르는 날, 분장실에서는 공연 전 준비로 정신이 없다. 드디어 작품이 무대에 오르지만, 시작부터 실수연발, 설상가상으로 무대 뒤에서는 공연은 뒷전 인체 배우들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공연중 발생한 기상천외한 사건들로 NG를 낼 수 밖에 없는 배우들의 해프닝과 그 모습을 실제 공연으로 생각하고 즐기는 관객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스태프까지 실제인지 공연인지 헷갈리는 기막힌 무대가 펼쳐진다.

뮤지컬 복순이할배 시즌12

일 시 | 3월 31일(목)-4월 2일(토), 6일(수)-8일(금), 14일(목)-16일(토)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전석 2만원(9세 이상 관람)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지난 2012년 초연 이후 재연을 거듭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온 극단 아트레볼루션의 대표작 '복순이할배' 시즌 12번째 무대. 괴짜 독거노인 복순이 할아버지의 집에 복지학과 실습생 태수가 봉사를 간다. 태수는 친구처럼 지내는 옛 사랑 지혜의 마음을 돌리려 애쓰지만, 지혜에게 사랑을 모른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고, 태수는 복순이 할아버지에게 사랑의 의미에 대해 배우려 한다. 지난 2017년 서울 대학로에 진출하여 'Made In Busan'의 저력을 보여준 '복순이할배'는 감성과 사랑에 대한 표현의 중요성을 담아낸 작품으로, 박정우 연출가 특유의 유머로 웃음을 선사한다.

뮤지컬 더 나우(The Now)

일 시 | 4월 1일(금)-5월 29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3:00, 7:00(수요일 공연 없음)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VIP석 15만원, R석 13만원, S석 10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부산 강동시장의 한 음악 다방을 배경으로 한 뮤지컬 '더 나우(The Now)'. (재)영화의전당이 뮤지컬 전문 제작·공연단체인 일본의 '신주쿠양산박', 한국의 '신주쿠양산박종로양산박'과 공동제작한 뮤지컬 '더 나우'는 우리의 기억의 변천사를 담은 주크박스 뮤지컬로, 분단의 아픔과 민족의 한을 풀어냈던 트로트부터 7080 시대의 젊음을 상징한 통기타 음악, 최근의 힙합까지 한국인의 정서를 대변해 온 대중가요를 아우른다. 특히 이번 작품은 부산을 배경으로, 강동시장의 LP음악다방 '더 나우'의 대표 최순애가 주인공으로, 그가 음반 업계에서 겪는 성장과 배신, 사랑과 추억 등 굴곡 많은 인생사가 펼쳐진다.

뮤지컬 라이온 킹 인터내셔널 투어

일 시 | 4월 1일(금)-5월 6일(금)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2:00, 7:00(월요일 공연없음) 드림씨어터
입장료 | VIP석 18만원, R석 15만원, S석 12만원, A석 9만원, B석 7만원
문의 | 클럽서비스 1577-3363



디즈니의 동명 애니메이션을 무대화한 뮤지컬 '라이온 킹' 인터내셔널 투어. 지난 1997년 11월 브로드웨이에서 초연한 이래 20개국,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1억10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는 대기록을 쓴 '라이온 킹'은 토니 어워드 6개 부문을 비롯해 아카데미상, 그래미상 등 전세계 70여 개 주요 어워드를 수상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사자를 비롯한 동물을 구현하기 위한 신체적인 표현과 배우들의 군무, 앙상블을 조화롭게 이뤄내면서도 아프리카 초원의 분위기를 재현하는 신선한 음악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2022 제40회 부산연극제 소극장 공연 부산연극제작소 동넨 가을 반딧불이

일 시 | 4월 16일-17일 토-일요일 오후 4:00
액터스소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부산연극제작소 동넨 070-8837-0073



2022 부산연극제 기간동안 열리는 소극장 무대, 부산연극제작소 동넨 '가을 반딧불이'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의신 작가의 '가을 반딧불이'는 변두리의 보트선착장을 배경으로 전혀 정상적인 가정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는 이들이 함께 얽히게 되면서 새로운 가족으로 탄생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만든 이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 작/정의신
- 연출/최용혁
- 출연/박지현, 박성호, 박신영, 김선정, 최은선, 성하진, 장성현, 이지은

영화

작은영화콘서트 시(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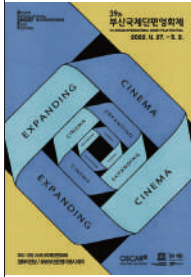
일 시 | 4월 2일 토요일 오후 2: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 무료(15세 이상 관람가)
문 의 | 부산영화인협회 628-4371



부산영화인협회가 매일 첫째 주 토요일 오후에 마련하는 작은영화콘서트. 이번 상영회는 예술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품들을 선별, 상영하고 영화를 매개로 예술과 인문학적 소양을 키워나가고자 마련된 자리로, 상영 후에는 시나리오 작가인 서영조 부산영화인협회 회장이 영화 장면에 담긴 상징과 은유, 연출적 효과 등을 짚어주며 영화에 담긴 메시지를 깊이있게 알아가는 '영화수다'가 함께 진행된다. 4월에는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2010)를 상영한다. 개봉 당시 배우 윤정희가 16년 만에 스크린으로 복귀해 화제가 되기도 했던 영화 '시'는 '서사적 완결성과 완성도가 뛰어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제63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제39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일 시 | 4월 27일(수)-5월 2일(월)
영화의전당,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문 의 | 부산국제단편영화제 742-9600, bisff.org



국내 최대 단편영화제이자 국내 최초 아카데미인증을 받은 2022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올해로 39회를 맞는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부산지역의 독립 단편영화를 소개하고 영화인재 양성을 목표로 1980년 '한국단편영화제'란 이름으로 출발한 후 1997년 '부산단편영화제', 2000년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를 거쳐 2010년부터 부산국제단편영화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단편영화를 소개하고 있다. 올해 '영화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국제경쟁 부문 37개국 40편, 한국경쟁 부문 20편 등 총 60편의 단편영화가 선정되었으며, 영화제 기간동안 최우수 작품상, 우수작품상, 심사위원특별상 등 10개 부문 상을 놓고 경쟁한다.

콘서트

'풍류대장' 전국투어 콘서트

일 시 | 4월 9일 토요일 오후 6:30 KBS 부산홀
입장료 | R석 13만2천원, S석 12만천원, A석 9만9천원
문 의 | (주)타입커뮤니케이션 1544-1555



국악과 대중음악의 크로스오버를 통해 국악이 가진 멋과 매력을 선사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국악 경연 프로그램인 JTBC '풍류대장-힙한 소리꾼들의 전쟁' 파이널 TOP6이 펼쳐진 전국투어 콘서트. 지난 2021년 9월 첫 방송된 '풍류대장'은 50명이 넘는 국악계 실력자들이 출연해 독창적인 크로스오버로 국악을 전 세계에 널리 각인시키는 것은 물론, 매력 넘치는 퍼포먼스로 'K-흥'을 전파하는데 일조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파이널 TOP6로 선정된 국립창극단 간판스타 김준수, 역수로 멋진 국악 록밴드 AUX, 최연소 판소리 기네스 보유자 김주리, 상상 그 이상의 신명나는 풍물밴드 이상, 맛깔나게 국악하는 이대 인싸 언니들 온도가 출연, 신명넘치는 무대를 선사한다.

싱어게인2 TOP10 전국투어 콘서트

일 시 | 4월 9일 토요일 오후 2:00, 7:00
사직실내체육관
입장료 | VIP석 13만2천원, R석 12만1천원, S석 11만원
문 의 | 인터파크티켓 1544-1555

2022 이은미 전국투어 콘서트 ACOUSTIC

일 시 | 4월 23일 토요일 오후 6:00, 24일 일요일 오후 5:00 KBS 부산홀
입장료 | R석 12만1천원, S석 9만9천원, A석 7만7천원
문 의 | (주)와이에이치그룹 02-540-0907

박정현 김주택 '2022 어쩌다 페스티벌' in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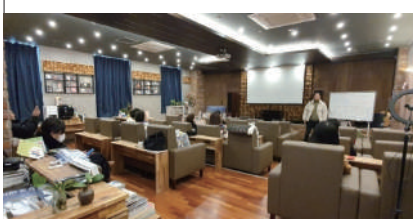
일 시 | 5월 1일 일요일 오후 4:00 KBS 부산홀
입장료 | VIP석 12만1천원, R석 11만원, S석 9만9천원
문 의 | (주)전공이엔티 1522-2061

행사

4월 오페라바움 영상감상회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00, 금요일 오후 1:00
오페라바움
입장료 | 전석 1만원(중급반 이상 1만5천원)
문 의 | 오페라바움 722-9597

오페라 전문 음악감상실인 오페라바움이 마련하는 4월 영상감상회. 매주 월요일에는 교향곡, 협주곡 콘서트 실황을, 매주 금요일에는 '현대오페라시리즈'를 주제로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상세한 해설로 감상할 수 있다. 1일(금) 바르톡 '푸른 수염 영주의 성' 8일(금) 코른골트 '죽음의 도시' 15일(금) 코른골트 '헬리아네의 기적' 22일(금) 조지 거슈윈 '포기와 베스' 29일(금) 제이크 헤기 '모비다'



4월 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00, 화요일 오전 11:00, 21일(목) 오전 11:00 **시네바움**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4일(월) 오후 7:00 '인사라는 이름의 선물'
• 강사/박동섭(독립연구자)

5일(화), 12일(화), 19일(화), 26일(화) 시네바움
고전 아카데미_한시 산책
• 강사/정경주(경성대 한문학과 명예교수)

11일(월) 오후 7:00 바로크 음악의 향기-세 얼굴
의 샤콘느
• 강사/박창호(철학박사, 고음악평론가)

18일(월) 오후 7:00 누가 카타르시스를 두려워할
까? 변비약과 詩
• 강사/정병연(부산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21일(목) 오전 11:00 목요일의 브
런치_낭송, 낭독 그리고 토크 '빌
어먹을, 차가운 심장 허수경 시집'

25일(월) 오후 7:00 핫하게 트랜
드를 달군 한국의 패셔니스타(2)
• 강사/진경옥(패션디자이너,
동명대 패션디자인학과
명예교수)

김옥균의 클래식아카데미 영광클래식 콘서트 홀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영광도서 8층 문화홀 1관

입장료 | 3개월 12만원
문 의 | 영광도서 070-4020-2540
김옥균 010-6367-0149



MBC 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
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
램을 연출한 前 MBC PD
이자 현재 클래식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로 활동
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
로 진행되는 '영광클래식
코너트 홀'.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 특강과 함께 클래식 음악
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을 치료하는 '클래식 치료
음악 영상감상회'도 매주 개최된다.

프로그램

엘가 '첼로협주곡', 헨델 오페라 '리날도'
마스네 '타이스의 명상곡', 브람스 교향곡 1번
비제 모음곡 '아를르의 여인', 그리그 모음곡 '페
르귤트'

김규환 곡 한국가곡 '남촌', 슈만 '시인의 사랑' 외
독일가곡
특집 월드뮤직:그리스음악 하일라이트
비발디 '사계' 중 '봄', 베토벤 '전원교향곡'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제2번, 드뷔시 '월광'

제174회 알바트로스 시낭송콘서트 편지 주제 명시 낭송회

일 시 | 4월 16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9층 문화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알바트로스 시낭송문화회 회장
010-6367-0149

• 특별출연/바리톤 박경훈, 소프라노 권소라

전시

고은사진미술관 해외교류전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일 시 | 1월 8일(토)-4월 17일(일) **고은사진미술관**
문 의 |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2022년 제1회 신수유물 소개전 바다를 건너간 조선 호랑이

일 시 | 2월 15일(화)-6월 12일(일)
부산박물관 부산관 2층 미술실
문 의 | 부산박물관 610-7111

2022년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
아 부산박물관이 마련한 2022년 제1회 신수유
물 소개전.



울속도 부산사랑 젊은작가 프로젝트 2022

일 시 | 3월 18일(금)-4월 6일(수)
갤러리 울속도 1전시실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330-5822



울속도문화회관이 부산
지역 작가들에게 작품 전
시 경험과 작품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민
들에게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 세계를 접할 수 있
도록 매년 마련하는 '울
속도 부산사랑 젊은작가
프로젝트 2022'전.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40세 미만의 경쟁력
있는 작가들이 참여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지
원자 수와 출품 작품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울
속도 부산사랑 젊은작가 프로젝트' 올해 전시에
서는 공예, 조소, 한국화, 서양화 등 40여 점의
다채로운 작품이 선보인다.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6:00(월요일 휴관)

캐나다군 6.25전쟁 참전 특별전 26791, 한국의 방패가 되다

일 시 | 3월 24일(목)-8월 31일(수)
유엔평화기념관 1층 기획전시실
문 의 | 유엔평화기념관 901-1400



유엔평화기념관(관장 박
종왕)과 주한캐나다대사
관(대사지명자 마크 플레
처)이 6.25전쟁 당시 대한
민국과 함께 맞서 싸운 캐
나다군의 용기와 희생을
조명하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맺어준 이들을 알
리고자 마련한 캐나다군

6.25전쟁 참전 특별전 '26791, 한국의 방패가 되다'.
이번 전시에는 유엔평화기념관이 소장한 왕립캐
나다22연대 부대 정복, 유엔중군기장, 제25여단
패치, 참전기념 우표 등 유물 40여 점과 주한캐나
다대사관이 제공한 당시 캐나다 참전용사 사진
50여 점이 전시된다.

캐나다는 6.25전쟁 당시 22개 유엔참전국 중 전
체 3번째 규모의 인원을 파병하였을 뿐만 아니라
육·해·공군 모두 파병하여 전투에 참여한 4개국
중 하나이다.



산타와 도둑

권애숙 동시, 김준철 그림 / 달아실
128p / 1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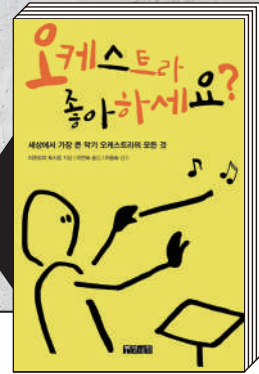
부산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권애숙 시인이 등단 27년 만에 첫 동시집을 펴냈다. 달아실출판사에서 올해 처음 시작한 동시집 시리즈의 첫 번째 동시집이기도 하다. 김준철 화가가 54편의 동시마다 그림을 그려 54편의 삽화가 실렸다. 어린 시절 그림일기장을 보는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이 동시집은 권애숙 시인의 자전적 동시집이다. 권 시인은 “내 안에 있는 어린 아이가 이 동시를 썼다”고 말한다. 권 시인은 어린 아이였을 때를 돌아보며, 어린 아이의 눈으로 바라봤던 놀랍고 신기하고 아름다웠던 세상의 모습과 풍경을 동시로 되살려 보여준다. 쉽고 아름다운 말로 쓴 동시의 특성과 권애숙 시인의 마음에 남아있는 유년의 세계는 삶에 지친 어른들에게는 위로가 되어주며 잃어버린 동심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또한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어린이에게는 어떻게 하면 쉽게 쓸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훌륭한 지침서 역할도 되어줄 것이다. 동시집의 뒷날개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면 유튜브를 통해 이번 동시집에 실린 몇 편의 시를 노래로 들을 수 있다. 권애숙 시인은 시를 쓰는 것은 엇드려 세상만물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받아 적는 일이며 가장 아름다운 사랑법이라고 말한다.



헤르만 헤세, 음악 위에 쓰다

헤르만 헤세 지음, 김윤미 옮김
북하우스 / 408p / 2만 2천 원

“음악은 내가 무조건적으로 경탄을 바치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믿는 유일한 예술이다.” 헤르만 헤세가 남긴 말이다. 헤르만 헤세가 기록한 음악 단상을 모은 책이 번역 출간되었다. 음악은 헤세의 문학 세계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이다. 헤세를 사랑하는 수많은 독자들은 헤세의 작품 면면에 흐르고 있는 음악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수레바퀴 아래서>에서 주인공 한스는 삶의 마지막 순간 혼자 노래를 부른다. 그의 곁에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예술적 재능이 많은 한스의 친구 헤르만이 함께해왔다. <데미안>의 주인공 에밀은 바흐의 ‘마태수난곡’을 들으며 음울하면서도 신비한 전율에 사로잡힌다. 성당 앞을 지나가다 오르간 연주를 들으며 외로운 마음을 위로받기도 한다. <게르트루트>는 음악가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며, <황야의 이리>에는 재즈음악 연주자가 중요한 인물로 등장한다. <유리알 유희>는 모든 현상을 음악으로 형상화하는 미래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 헤세와 음악은 어떤 관계였을까. 헤르만 헤세 전문 편집자 폴커 미헬스는 헤세가 젊은 시절부터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쓴 모든 글 가운데 음악을 대상으로 한 글을 가려 뽑아 이 책을 기획했다.



오케스트라 좋아하세요?

미츠토미 도시로 지음, 이언숙 옮김
열대림 / 240p / 1만 8천 원

오케스트라는 클래식 음악의 중심이다. 오케스트라를 일러 ‘세상에서 가장 큰 악기’라고 하는 말도 있다. 청중이 가득 들어찬 오케스트라 연주회에는 다른 공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긴장감과 엄숙함이 감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오케스트라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다. 악기들은 각각 어느 자리에 배치되는지, 지휘자는 단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단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연주하는지, 연주회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등을 알고 나면 좀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음악을 요리에, 지휘자를 셰프에 비유한다. 오케스트라의 주역인 100개의 악기와 숨은 조력자인 스태프들, 엘리트 중의 엘리트인 연주자들, 유일하게 음을 내지 않으면서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신비한 존재 지휘자부터 오케스트라 연주회의 매력은 어디에서 나오는지부터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악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각각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며, 어떤 곡들을 연주하는지에 이르기까지 설명했다. 옆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듯 친근하고 유머러스한 문체로 설명하고 있어 음악이 가진 본래의 즐거움이 느껴진다. 오케스트라 연주회장에 들어선 기분이 들게 하는 책이다.

**(재)부산문화회관,
(재)국립발레단과 함께하는**

2022 국립발레단 꿈나무교실



미래의 발레리나·발레리노를 위한 청소년 예술 체험 프로그램 ‘2022 국립발레단 꿈나무교실’이 4월부터 부산시민회관 연습실에서 개최된다.

(재)부산문화회관과 (재)국립발레단의 업무협약에 따라 올해 처음 진행되는 ‘국립발레단 꿈나무교실’은 부산지역의 무용 및 발레 예술 저변확대와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특히 참가 대상자를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등 문화소외계층으로 우선 선정하면서 문화예술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꿈나무교실>은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일주일에 2회씩 수업이 진행되며, 수업에 필요한 발레복, 슈즈 등은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지도는 부산 출신으로 전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인 정영재가 맡았으며, 프로그램을 수료한 수강생들은 올해 연말에 있을 국립발레단 ‘Fly Higher with KNB’ 합동공연을 통해 무대에 설 기회가 제공된다. <사진제공:국립발레단>

**부산시립교향악단
2022 교향악축제 참가**



부산시립교향악단이 4월 2일부터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2022 한화와 함께하는 교향악축제’에 참가한다.

지난 1989년 예술의전당 음악당 개관 1주년을 기념해 시작된 ‘교향악축제’는 명실상부 세계 유일, 세계 최대의 관현악 대제전으로, 그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들과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협연자들이 함께 하며 우리 음악계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의미있는 행사로 자리매김 해왔다. 특히 부산시립교향악단을 비롯 전국 20개 교향악단이 참가하는 올해 교향악축제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까지 좀처럼 연주되지 못했던 대편성 대작에서부터 좀처럼 연주되지 않는 동시대 창작곡까지 참신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4월 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최수열 예술감독의 지휘, 첼리스트 한재민의 협연으로 관객과 만난다. 올해 무대에서는 관현악법의 대가 라벨의 ‘다프니스와 클로에’ 모음곡 제2번과 베토벤에 대한 오마주가 진하게 보이는 진은숙의 ‘수비토 콘 포르차’를 연주하고, 2021년 제오르제 이네스쿠 국제콩쿠르에서 대회 사상 최연소 우승을 차지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첼리스트 한재민이 3대 첼로 협주곡인 슈만의 ‘첼로 협주곡’을 통해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존 케이지의 문제작 ‘4분 33초’는 관객과 함께하는 실험적인 무대로, 34년 교향악축제 역사상 가장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4월 찾아가는 예술단

평소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 맞춤형 공연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이 올해 들어서도 다양한 곳을 찾아 시민들과 만난다.

- 일정**
- 4월 1일(금) 오전 10:30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개관식_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4월 15일(금) 오후 7:00 구덕도서관 ‘봄이 오는 소리’_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4월 19일(화) 오전 10:00 민주공원 4·19혁명 기념식_부산시립합창단
 - 4월 29일(금) 오후 3:00 부산박물관 ‘함께하는 음악회’_부산시립교향악단

2022년 2분기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www.bscc.or.kr

차별화된 컬리큘럼과 우수한 강사진으로 종합적인 아카데미로 성장한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아카데미가 2022년 2분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우선 인문·교양 강좌에서는 유럽을 구성하는 다양한 민족들의 삶과 문화를 음악을 통해 살펴보는 ‘음악으로 떠나는 유럽 그랜드투어’가 신규강좌로 첫선을 보인다. ‘그랜드 투어’는 17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어 유럽 전역으로 퍼진 엘리트 필수 코스이자 하나의 유럽의 근간이 되는 ‘교육 여행’으로, 작곡가이자 영화음악가인 김상헌 강사의 안내로 음악과 함께 떠나는 상상의 여행을 경험할 수 있다. 새로운 예술계의 흐름이자 대세가 되어버린 ‘NFT(Non Fungible Token, 대체불가토큰)’에 대해 알아보는 특별한 강좌도 마련된다. 일러스트레이터이자 NFT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대니 리가 진행하는 ‘새로운 예술계의 흐름, NFT’에서는 NFT의 기초 개념 설명부터 다양한 실습(가상지갑 생성, NFT 작품 등록, 판매, 메타버스 갤러리 작품 전시 등)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문화콘텐츠학 박사인 전원경 강사의 ‘예술, 도시를 만나다’는 예술가가 나고 자란 지역의 특성을 예술작품과 함께 분석하는 강좌로, 미시적 관점에서 예술과 지역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예술작품에 대한 감상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미술비평가 장원 강사의 흥미로운 미술사 수업 ‘Artistic Fantastic 미술사’는 서양미술사를 연대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번 분기에서는 근대 이후 모더니즘 미술이라고 불리는 19세기부터 2차 대전 이전까지의 미술사를 조명해본다. 음악평론가 이용숙 강사의 ‘클래식 명작 100선’에서는 클래식 음악 천 년의 역사 속에서 소멸하지 않고 살아남은 명작들을 소개하며 이밖에 음악칼럼니스트 유혁준의 중형무진 ‘음악이야

기’, 소설가 함정임과 함께 소설을 통해 체코의 도시 프라하를 돌아보는 ‘함정임의 무엇보다 소설을:소설로 떠나는 프라하 여행’도 수강생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북 아트와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한 김효은 작가는 연간 프로젝트 ‘우리들의 백과사전’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의 취향을 바탕으로 서로의 알짜배기 정보를 공유하여 세상에 하나 뿐인 책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번 첫 번째 시리즈에서는 ‘맛집’을 주제로 진행한다. 그가 진행하는 또다른 강좌인 ‘일러스트 드로잉:문학과 미술’은 일러스트레이션 본래의 역할이었던 책의 삽화로서의 기능과 의미를 되짚어보는 강좌로, 머릿속으로 그려온 스토리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내 안의 창조성을 일깨우는 김은주 작가의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 사진작가 뿌리야 김과 함께하는 ‘하이퀄리티를 위한 사진학’, 부산시립극단 단원 김은희의 연기를 통해 나를 표현하는 ‘마음으로부터 연극’ 등 매년 연말 수강생 전시와 발표회를 통해 예술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확인하는 인기강좌들도 올해 계속 이어진다.

해가 갈수록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실기강좌도 올해 계속된다. 쉽게 접하기 힘든 가야금, 거문고, 해금을 비롯해 바이올린, 첼로, 클래식 기타, 발레, 현대무용, 라인댄스 등 다채로운 강좌를 부산시립예술단 단원과 지역의 우수한 강사들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특히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한국무용은 이번 강좌부터 입춤, 소고춤, 풍류 장고춤 등 새로운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번 강좌의 수강신청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선착순으로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년도 온라인 아카데미 개강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www.bscc.or.kr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온라인 아카데미를 개설한다. 이번 온라인 강좌는 코로나19 시대에도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로,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 '줌(ZOOM)'을 통해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되며 질의응답, 채팅 등을 활용해 수강생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하다. 이번에 개설되는 온라인 강좌는 모두 5개 강좌로, 하나영 예술학 박사가 진행하는 '현대미술의 인플루언서', 김주연 연극평론가가 들려주는 '페테르부르크 문화기행', 김효은 작가의 '일상기록, 펜 드로잉(Food Drawing)', 나주시립합창단 지휘자 전진의 '세계의 지휘자를 만나다', 그리고 뿌리아김 사진작가의 '사진은 예술이다' 등 다양하면서도 흥미로운 강좌가 준비되어 있다. 우선 '현대미술의 인플루언서'에서는 초현실주의 대가 마르셀 뒤샹을 비롯해 잭슨 폴록, 도널드 저드, 백남준 등 유명작가의 삶과 예술세계를 통해 현대미술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러시아 문학과 연극을 전공한 '페테르부르크, 막이 오른다'의 저자 김주연이 진행하는 '페테르부르크 문화기행'에서는 예술과 역사가 숨 쉬는 페테르부르크 도시를 '무대'라는 키워드로 여행하듯이 안내한다.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북아티스트이자 일러스트레이터 김효은 작가와 함께하는 '일상기록, 펜 드로잉'은 습관적이고 관념적인 그림에서 벗어나 '음식'을 주제로 다양한 드로잉 작업을 통해 평범한 일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다. 현직 지휘자가 직접 들려주는 '세계의 지휘자를 만나다'에서는 스타 지휘자 소개부터 공연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생생한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사진은 예술이다'에서는 사진에 대한 기본 개념에서부터 구도, 노출, 구성, 프레임 등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한 스킬과 함께 다양한 예술 사진을 살펴보고 사진에 대한 안목과 나만의 촬영 스타일을 만들어볼 수 있다.

이번 온라인 아카데미 수강신청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으며, 수강 신청자에 한해 사전에 강좌 참여 링크를 전달, 이를 통해 수강할 수 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콘서트로 진행되는 전원경의 아트살롱

강연(Lecture)과 공연(Concert)이 결합된 그림콘서트로, 미술과 음악을 한 번에 감상할 수 있는 '전원경의 아트살롱'이 올 한해 4차례 진행된다. 세종사이버대 교수이자 예술전문 작가인 전원경의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서는 봄기운으로 가득한 4월 프랑스 파리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로마(여름), 미국 뉴욕(가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겨울) 등 계절별로 세계의 다양한 도시로 예술여행을 떠난다. 특히 도시의 예술문화와 작품이 탄생한 배경, 역사적 사건 등에 대한 알기 쉬운 해설과 함께 미술작품과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4월 20일 열리는 첫 번째 아트살롱에서는 '봄을 맞은 파리'라는 주제로 화가 에두아르 마네, 클로드 모네, 오귀스트 르누아르, 에드가 드가, 쿠스타브 카유보트의 작품과 함께 쇼팽과 포레, 비제, 생상스, 드뷔시 등 봄을 노래하는 다양한 작품을 라이브 연주로 만날 수 있다.

프로그램

4월 20일(수) 오전 11:00 봄을 맞은 파리 7월 13일(수) 오전 11:00 로마의 여름 햇살
9월 21일(수) 오전 11:00 가을 고독한 뉴욕 11월 23일(수) 오전 11:00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바람



2022년도 2분기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수강신청 및 방법: 홈페이지 www.bscc.or.kr(아카데미 > 강좌안내 및 접수), 3. 14(월) ~ 선착순

문의: 051)607-6000

온라인(ZOOM 수업)						
현대미술의 인플루언서	4. 12 ~ 5. 3	매주 화(4회)	19:30-21:00	온라인	20,000	
페테르부르크 문화기행	4. 14 ~ 4. 21	매주 목(2회)	19:30-21:00	온라인	10,000	
일상기록, 펜 드로잉(Food Drawing)	4. 16 ~ 5. 7	매주 토(4회)	10:00-11:30	온라인	20,000	
세계의 지휘자를 만나다	5. 10 ~ 5. 31	매주 화(4회)	19:30-21:00	온라인	20,000	
사진은 예술이다	6. 7 ~ 6. 28	매주 화(4회)	19:30-21:00	온라인	20,000	
인문·교양						
새로운 예술계의 흐름, NFT	5. 21 ~ 6. 11	매주 토(4회)	10:30-12:30	강의실	80,000	
세기의 기증, 이견희컬렉션: 개인 소장고에서 밖으로	3. 18	금(1회)	14:00-16:00	챔버홀	10,000	
세기의 기증, 이견희컬렉션: 수집과 기증 그리고 미술관의 역할	5. 14	토(1회)	14:00-16:00	챔버홀	10,000	
김태훈의 <폴리처상이 사랑한 음악들>	3. 26	토(1회)	14:00-16:00	챔버홀	20,000	
사실과 감동으로 전달하는 보도사진의 힘(강형원)	4. 2	토(1회)	14:00-16:00	챔버홀	15,000	
외신기자가 들려주는 폴리처상과 한반도(최상훈)	4. 9	토(1회)	14:00-16:00	챔버홀	15,000	
우리 모두 비주일 스토리텔러가 되는 세상(김경훈)	4. 23	토(1회)	14:00-16:00	챔버홀	15,000	
전원경의 아트살롱(그림콘서트): 봄을 맞은 파리	4. 20	수(1회)	11:00-12:30	챔버홀	12,000	
함정임의 무엇보다 소설을: 소설로 떠나는 프라하 여행	5. 2 ~ 5. 23	매주 월(4회)	19:00-21:00	강의실	80,000	
마음으로부터 연극!	4. 11 ~ 6. 20	매주 월(10회)	19:00-21:00	연습실	120,000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초급)	4. 11 ~ 6. 20	매주 월(10회)	10:30-12:30	아트랩	180,000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응용)	4. 11 ~ 6. 20	매주 월(10회)	14:00-16:00	아트랩	180,000	
전원경의 <예술, 도시를 만나다>	4. 12 ~ 6. 14	매주 화(10회)	14:00-16:00	강의실	200,000	
일러스트 드로잉: 문학과 미술	4. 12 ~ 6. 14	매주 화(10회)	19:00-21:00	미술실	180,000	
이용숙의 클래식 명작 100선	4. 6 ~ 6. 15	매주 수(10회)	14:00-16:00	강의실	200,000	
Creative 북비인딩: 우리들의 백과사전 <맛집편>	4. 6 ~ 6. 15	매주 수(10회)	19:00-21:00	미술실	180,000	
유혁준의 음악이야기	4. 7 ~ 6. 16	매주 목(10회)	14:00-16:00	강의실	200,000	
김상헌의 <음악으로 떠나는 유럽 그랜드투어>	4. 8 ~ 6. 10	매주 금(10회)	14:00-16:00	강의실	200,000	
지휘자클래스	4. 8 ~ 6. 10	매주 금(10회)	19:30-21:30	강의실	360,000	
Artistic Fantastic 미술사: 근대 모더니즘	4. 9 ~ 6. 11	매주 토(10회)	14:00-16:00	강의실	150,000	
하이퀄리티를 위한 사진학(응용)	4. 9 ~ 6. 11	매주 토(10회)	10:00-12:00	강의실	150,000	
하이퀄리티를 위한 사진학(초급)	4. 9 ~ 6. 11	매주 토(10회)	15:00-17:00	강의실	150,000	
실기(악기·무용)						
프리미엄 발레	4. 11 ~ 6. 20	매주 월(10회)	10:30-11:50	연습실	100,000	
바이올린 A	4. 11 ~ 6. 20	매주 월(10회)	17:30-19:00	레슨실	120,000	
바이올린 B	4. 11 ~ 6. 20	매주 월(10회)	19:30-21:00	레슨실	120,000	
거문고 A	4. 11 ~ 6. 20	매주 월(10회)	19:30-21:00	레슨실	140,000	
라인댄스(초급)	4. 12 ~ 6. 14	매주 화(10회)	10:30-11:50	연습실	100,000	
한국무용(풍류 장고)	4. 12 ~ 6. 14	매주 화(10회)	15:00-16:20	연습실	100,000	
사물놀이	4. 12 ~ 6. 14	매주 화(10회)	17:30-19:00	연습실	120,000	
춤추는 현대무용(응용)	4. 12 ~ 6. 14	매주 화(10회)	19:30-20:50	연습실	100,000	
해금(중급)	4. 12 ~ 6. 14	매주 화(10회)	19:30-21:00	레슨실	120,000	
가야금 A	4. 12 ~ 6. 14	매주 화(10회)	17:30-19:00	레슨실	140,000	
가야금 B	4. 12 ~ 6. 14	매주 화(10회)	19:30-21:00	레슨실	140,000	
슬림 업 스트레칭 발레	4. 6 ~ 6. 15	매주 수(10회)	10:30-11:50	연습실	100,000	
한국무용(소고춤)	4. 6 ~ 6. 15	매주 수(10회)	15:00-16:20	연습실	100,000	
거문고 B	4. 6 ~ 6. 15	매주 수(10회)	19:30-21:00	레슨실	140,000	
라인댄스(중급)	4. 7 ~ 6. 16	매주 목(10회)	10:30-11:50	연습실	100,000	
한국무용(기초)	4. 7 ~ 6. 16	매주 목(10회)	15:00-16:20	연습실	100,000	
해금(초급)	4. 7 ~ 6. 16	매주 목(10회)	17:30-19:00	레슨실	120,000	
춤추는 현대무용(초급)	4. 7 ~ 6. 16	매주 목(10회)	19:30-20:50	연습실	100,000	
클래식기타(입문)	4. 8 ~ 6. 10	매주 금(10회)	10:30-12:00	레슨실	120,000	
클래식기타(중급)	4. 8 ~ 6. 10	매주 금(10회)	14:00-15:30	레슨실	120,000	
클래식기타(초급)	4. 8 ~ 6. 10	매주 금(10회)	16:00-17:30	레슨실	120,000	
첼로 A	4. 9 ~ 6. 18	매주 토(10회)	11:00-12:30	레슨실	240,000	
첼로 B	4. 9 ~ 6. 18	매주 토(10회)	13:00-14:30	레슨실	240,000	

* 강의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문화예술아카데미

상반기 온라인 아카데미



다양한 강좌를 비대면으로 만나는 온라인 프로그램입니다.

* 모든 강좌는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 '줌(ZOOM)'으로 진행됩니다.

구분	강좌명	일정	수강료
실시간 라이브 강좌 ZOOM	현대미술의 인플루언서	4. 12. ~ 5. 3 (매주 화, 4회) 19:30 ~ 21:00	20,000원
	페테르부르크 문화기행	4. 14. ~ 4. 21. (매주 목, 2회) 19:30 ~ 21:00	10,000원
	일상기록, 펜 드로잉 (Food Drawing)	4. 16. ~ 5. 7. (매주 토, 4회) 10:00 ~ 11:30	20,000원
	세계의 지휘자를 만나다	5. 10. ~ 5. 31. (매주 화, 4회) 19:30 ~ 21:00	20,000원
	사진은 예술이다	6. 7. ~ 6. 28. (매주 화, 4회) 19:30 ~ 21:00	20,000원

수강접수 ▶ **접수기간** 3. 14. (월) ~ 선착순 마감

접수방법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아카데미 > 강좌안내 및 접수)



전원경의 아트살롱 그림콘서트

봄을 맞은 파리 4. 20. (수)

로마의 여름 햇살 7. 13. (수)

가을 고독한 뉴욕커 9. 21. (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바람 11. 23. (수)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11:00 AM
전석 1만2천원

문의 및 예매

051-607-6000 / www.bscc.or.kr

* 패키지 할인 (4회 동시 구매 시, 4만원)

[재]부산문화회관
시즌프로그램
2022. 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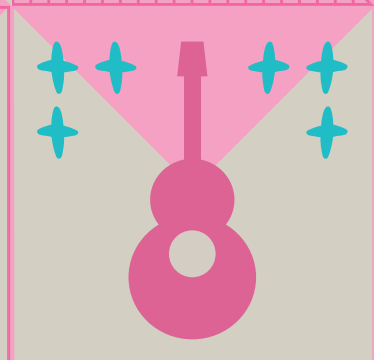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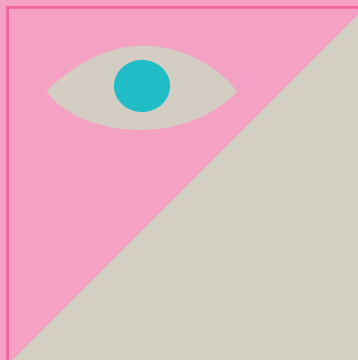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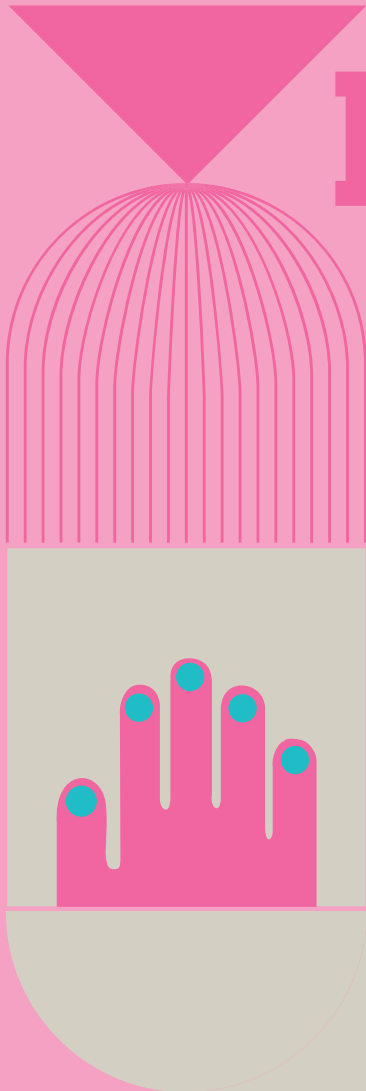
BSCC
Season Program
2022. S/S

BSCC

SEASON

PROGRAM

2022.S/S



(재)부산문화회관 2022 시즌 프로그램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클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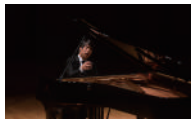
음악의 온기를 전하는 실내악의 향연
2022 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
Da Capo

문화 | 중극장, 챔버홀 2022. 1. 7.(금)-1. 19.(수)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
- 앙코르

문화 | 대극장 2022. 3. 19.(토) 5:00pm
 R 5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
드미트리 마슬레예프
피아노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2022. 5. 6.(금) 7:30pm
 R 5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I
임지영 & 홍민수
듀오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2022. 7. 22.(금) 7:30pm
 R 5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레이첸 & 선우예권
듀오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2. 9. 3.(토) 5:0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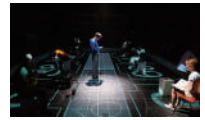
연극·뮤지컬

NT-Live 화제의 영국 연극을
 라이브 스크린으로!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문화 | 중극장 2022. 2. 26.(토) 3:00pm
 전석 20,000원 ※만 15세 이상 관람

※NT-Liv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제작 영국극립극장 | 연출 마리안느 엘리엇 | 극본 사이먼 스티븐스
 원작 마크 해던 | 출연 루크 트리드웨이, 니암 쿽색, 폴 리터, 니콜라 워커



NT-Live 화제의 영국 연극을 라이브 스크린으로!
다리에서 바라본 풍경

문화 | 중극장 2022. 4. 30.(토) 3:00pm
 All Seats 20,000

※만 15세 이상 관람
 ※NT-Liv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제작 영국극립극장 | 연출 이보 반 호프 | 원작 아서 밀러
 출연 마크 스트롱, 니콜라 워커



스승의 삶을 흠친 제자의 딜레마
극단 배우창고 <단편소설집>

시민 | 소극장 2022. 3. 18.(금)-19.(토)
 금 7:30pm / 토 3:00pm

R 30,000원 S 20,000원
 ※중학생 이상 관람
 연출 김세준 | 출연 윤소희, 김선희



과도한 생존경쟁 끝자락에서 마주하는 '우정'
극단 돌파구
<XXL 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문화 | 중극장 2022. 5. 19.(목)-20.(금)
 목 2:00pm / 금 2:00pm, 7:30pm

R 30,000원 S 20,000원
 ※중학생 이상 관람
 작 박찬규 | 연출 전인철 | 출연 안병식, 오해영, 윤미경, 김민하, 유동훈, 조어진



창작뮤지컬 최고의 화제작이 부산으로 귀환
뮤지컬 <팬레터>

시민 | 대극장 2022. 5. 28.(토)-29.(일)
 토 3:00pm, 7:00pm / 일 3:00pm

V 90,000원 R 70,000원 S 50,000원
 ※중학생 이상 관람 ※티켓 오픈 추후 공지
 프로듀서 강병원 | 연출 김태형



그 날 불행이 다가왔다...
빅픽처스스테이지 <코마>

시민 | 소극장 2022. 6. 10.(금)-11.(토)
 금 7:30pm / 토 3:00pm

R 30,000원 S 20,000원
 ※중학생 이상 관람
 연출 김정환 | 출연 최현정, 선승일, 이설



발레·무용

(재)부산문화회관 & 파리 테아트르 드 라 빌-리옹댄스비엔날레 공동제작

안은미 컴퍼니 <드래곤즈>

문화 | 중극장 2022. 3. 4.(금)-5.(토)
금 7:30pm / 토 3: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전 연령 관람

예술감독 안은미 | 음악감독 장영규 | 무대감독 김지영
조명감독 장진영 | 영상감독 이태석, 애드나인
출연 안은미, 김혜경, 김지영, 이재윤, 김경민, 공지수, 이현석, 오현택, 배호섭 외



스페인의 정열이 살아 숨 쉬는 희극 발레
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

시민 | 대극장 2022. 5. 13.(금)-14.(토)
금 7:30pm / 토 3:00pm
R 80,000원 S 60,000원 A 40,000원
※48개월 이상 관람

안무 마리우스 프티파, 알렉산드르 고르스키 | 음악 루드비히 민쿠스
연출 올레그 비노그라도프, 나탈리아 스피치나



국악·전통

김준수 & 하윤주 & 두번째달과 함께 떠나는
팔도유람 음악여행

김준수, 하윤주, 두번째달 <팔도유람>

문화 | 중극장 2022. 4. 17.(일) 5: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



콘서트

그 시절 우리들의 노래와 이야기
슬기로운 음악생활
-이세준, 홍경민, 김중서&악스

문화 | 대극장 2022.1.23.(일) 5:0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



소중한 사람에게 보내는 달콤한 음악선물

박종훈&웅산 재즈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2. 2. 13.(일) 5:00pm
R 5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



가족·어린이

팔죽 한 그릇이 건네는 맛있는 지혜
극단 동그라미그리기
<팔죽합떡과 호랑이>

문화 | 사랑채 2022. 2. 19.(토)-4. 3.(일) 11:00am
*월, 화 공연 없음
전석 20,000원 ※3세 이상 관람
연출 오계영 | 출연 송판수, 박규한, 김현주, 장성현, 이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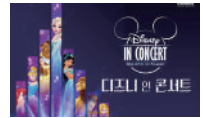
그림자극으로 만나는 특별한 음악여행!
극단 영 <비발디의 사계>

문화 | 사랑채 2022. 4. 6(수)-5. 6.(금) 11:00am
*월, 화 공연 없음
전석 20,000원
※3세 이상 관람
연출 이정민 | 출연 배선욱, 서희경, 송은아, 황자미 외



감동을 넘어선 마법의 시간
2022 디즈니 인 콘서트
: Believe in Magic

시민 | 대극장 2022. 5. 21.(토) 5:00pm
V 100,000원 R 80,000원 S 60,000원 A 40,000원
※48개월 이상 관람
출연 디토오케스트라, 국내 싱어즈



문화가 있는 날

당신을 웃게 하는 또 다른 감동, 스크린으로 만나다
BSSC 배시시 명품극장

시민 | 소극장 2022. 4. 27.(수), 5. 25.(수), 6. 29.(수)
매주 수요일 7:30pm
무료



지역프로젝트

부산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
시민뜨락축제

시민 | 광장&야외무대 2022. 4. 22.(금)-5. 20.(금)
9. 23.(금)-10. 14(금)
매주 금요일 12:20pm
무료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공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립예술단 2022 시즌 프로그램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I

문화 | 대극장 2022. 1. 20.(목) 7:30pm
All Seats 5,000



제583회 정기연주회 2022 신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2. 1. 21.(금) 7:30pm
R 20,000 S 15,000 A 10,000 B 5,000
지휘 최수열 | 피아노 김정원



제584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말라

문화 | 대극장 2022. 2. 16.(수) 7:30pm
R 20,000 S 15,000 A 10,000 B 5,000
지휘 이병욱



기획연주회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II

문화 | 대극장 2022. 3. 10. (목) 7:30pm
All Seats 5,000



제585회 정기연주회 정점

문화 | 대극장 2022. 3. 11.(금) 7:30pm
R 20,000 S 15,000 A 10,000 B 5,000
지휘 | 피아노 문지영



기획연주회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III

문화 | 대극장 2022. 3. 31.(목) 7:30pm
All Seats 5,000



제586회 정기연주회 이방인

문화 | 대극장 2022. 4. 1.(금) 7:30pm
R 20,000 S 15,000 A 10,000 B 5,000
지휘 최수열 | 바이올린 양인모(올해의 예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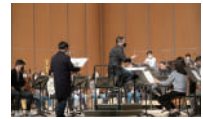
기획연주회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 I

문화 | 챔버홀 2022. 4. 21.(목) 7:30pm
All Seats 10,000



기획연주회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IV

문화 | 대극장 2022. 5. 11.(수) 7:30pm
All Seats 5,000



제587회 정기연주회 오로라

문화 | 대극장 2022. 5. 13.(금) 7:30pm
R 20,000 S 15,000 A 10,000 B 5,000
지휘 최수열 | 바이올린 양인모(올해의 예술가)



기획연주회 부산시향의 우리아이음악회

문화 | 챔버홀 2022. 5. 26.(목)-27.(금) 11:00am
All Seats 5,000



제588회 정기연주회 여정

시민 | 대극장 2022. 6. 17.(금) 7:30pm
R 20,000 S 15,000 A 10,000 B 5,000
지휘 이민형 | 피아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제589회 정기연주회 프라하 중앙역

문화 | 대극장 2022. 7. 15.(금) 7:30pm
R 20,000 S 15,000 A 10,000 B 5,000
지휘 김선욱 | 첼로 한재민



부산시립합창단

제185회 정기연주회 어린이뮤지컬 <옛날 옛적에>

문화 | 대극장 2022. 5. 4.(수) 7:30pm
5. 5.(목) 10:30am
R 20,000 S 10,000
지휘 이기선 | 연출 박정우 | 작곡·연주 이진실·이삼열 밴드



창단 50주년 기념 및 제186회 정기연주회 칼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문화 | 대극장 2022. 6. 23.(목)-24.(금) 7:30pm
R 30,000 S 20,000 A 10,000
지휘 이기선 | 연출 김지용 |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출연 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창원시립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등



특별연주회
**2022 Summer Fantasy
'시간(時間)II'**

문화 | 대극장 2022. 7. 21.(목) 7:30pm
All Seats 10,000
지휘 임희준 | 연주 이삼열 밴드 외



특별연주회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2. 8. 17.(수) 7:30pm
All Seats 10,000
객원 지휘 T. J. Harper



특별연주회
신진지휘자 초청연주회

문화 | 중극장 2022. 9. 15.(목) 7:30pm
All Seats 10,000
지휘 임희준, 김진영



창단 50주년 기념 및 제187회 정기연주회
4인 4색 합창축제

문화 | 대극장 2022. 10. 28.(금) 7:30pm
All Seats 10,000
지휘 김광일, 김강규, 전상철, 이기선



특별연주회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33회 부산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2. 11. 8.(화)-10.(목) 6:00pm
무료
연합지휘 이기선



창단 50주년 기념 및 제188회 정기연주회
하이트 <천지창조>

문화 | 대극장 2022. 12. 8.(목) 7:30pm
R 20,000 S 10,000 A 5,000
지휘 이기선 | 연주 United Korea Orchestra
출연 김순영, 황병남, 이광근, 문동환



부산시립무용단

제85회 정기공연
THE 40

문화 | 대극장 2022. 5. 20.(금)-21.(토)
안무 이정운



Dancers and Masterpiece
별이 빛나는 <이정운의 댄스살롱>

문화 | 중극장 2022. 7. 22.(금)-23.(토)
안무 이정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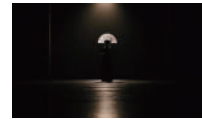
제86회 정기공연
춤, 본색II

문화 | 대극장 2022. 10. 21.(금)-22.(토)
안무 이정운



특별공연
안우가 LAB

문화 | 중극장 2022. 12. 2.(금)-3(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14회 정기연주회
국악관현악 시즌 I

문화 | 대극장 2022. 3. 3.(목) 7:30pm
지휘 김종욱 | 소금 조은경 | 거문고 이대하
대금 한영길 | 거문고 오상훈 | 아쟁 최영훈



특별연주회
만우절 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2. 4. 6.(수) 7:30pm
지휘 김종욱



특별연주회
제47회 청소년 협연의 밤

문화 | 중극장 2022. 5. 3.(화) 7:30pm



제215회 정기연주회
국악관현악 시즌 II

문화 | 대극장 2022. 5. 26.(목) 7:30pm
지휘 김종욱 | 가야금 김혜진



부산시립극단

제71회 정기공연
바나아저씨

문화 | 중극장 2022. 3. 11.(금)~13.(일)
평일 7:30pm / 주말 5:00pm
원작 안톤 파블로비치 체흠 | 연출 성기웅



특별공연
가족무지컬 <미운오리새끼>

문화 | 사랑채 2022. 5. 13.(금)~6. 4.(토) 11:00am
원작 안데르센 | 대본 신서영 | 작곡 진소영
작사/연출 김지용



특별공연
스타프로젝트 I

부산민주공원 작은방 공연장
2022. 5. 26.(목)-28.(토)
평일 7:30pm / 주말 5:00pm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Ensemble

문화 | 챔버홀 | 2022. 2. 19(토) 5:00pm



제67회 정기연주회

Com Spirito(활기있게)

문화 | 대극장 | 2022. 3. 22.(화) 7:30pm
지휘 이명근



특별연주회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문화 | 대극장 | 2022. 5. 24.(화) 7:30pm



특별연주회

유망주음악회 -The Solist

문화 | 챔버홀 | 2022. 6. 25.(토) 5:00pm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공연

기량향상음악회

문화 | 챔버홀 | 2022. 2. 25(금) 7:00pm
2. 26.(토) 4:00pm



제161회 정기연주회

부산에 부는 바람(부부바)

문화 | 대극장 | 2022. 5. 28.(토) 5:00pm
All Seats 2,000
지휘 김수현



특별공연

프렌들리 콘서트

문화 | 중극장 | 2022. 7. 28.(목) 7:30pm
All Seats 2,000



제162회 정기연주회

PEACE

문화 | 대극장 | 2022. 9. 17.(토) 5:00pm
All Seats 2,000
지휘 김수현



특별연주회

제24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문화 | 대극장 | 2022. 11.4(금)-5(토)
무료



제163회 정기연주회

크리스마스 선물

문화 | 대극장 | 2022. 12.10(토) 5:00pm
All Seats 2,000
지휘 김수현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공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오시는 길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대연동 848-4)
TEL. 051-607-6000 FAX. 051-607-6288

찾아오는 교통편



지하철

지하철 2호선 대연동역 하차, 5번 출구로 나와서
유엔 교차로쪽으로 도보 10분 거리



버스

- 시내버스 51번, 68번, 101번, 134번, 138번
- 마을버스 남구9번, 남구10번

부산시민회관 오시는 길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133번길 16
TEL. 051-630-5200 FAX. 051-630-5288

찾아오는 교통편



지하철

1호선 범일역 하차, 2번 출구(도보 10분 소요)
2호선 문현역 하차, 3번 출구(도보 3분 소요)



버스

- 시내버스 2번, 68번, 11번, 80번, 99번, 83-1번, 63번, 57번, 138번, 23번, 83번, 10번, 108번, 81번, 43번, 52번, 5-1번, 22번, 40번, 134번, 27번, 26번, 41번, 82번, 101번, 42번, 1583번, 24번
- 마을버스 남구 3번, 남구 5번
- 좌석버스 1000번, 1003번, 1004번

2022 BSCC S/S 시즌 프로그램 시리즈 기획

BSCC
Season Program
2022.S/S

클래식 음악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Da Capo> 1.7.(금)~1.19.(수)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챔버홀
World Competiton Winner Series I 박재홍 3.19.(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World Competiton Winner Series II 드미트리 마슬레예프 5.6.(금)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World Competiton Winner Series III 임지영&홍민수 7.22.(금)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World Competiton Winner Series IV 레이 첸&선우예권 9.3.(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연극·뮤지컬

NT Live Series I -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2.26.(토)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NT Live Series II - 다리에서 바라본 풍경 4.30.(토)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극단 배우창고 <단편소설집> 3.18.(금)~3.19.(토)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극단 돌파구 <XXL 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5.19.(목)~5.20.(금)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뮤지컬 <팬레터> 5.28.(토)~5.29.(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빅피쳐스테이지 <코마> 6.10.(금)~6.11.(토)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발레 무용

안은미 컴퍼니<드래곤즈> 3.4.(금)~3.5.(토)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 5.13.(금)~5.14.(토)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국악 전통

김준수&하윤주&두번째달 <팔도유람> 4.17.(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콘서트

슬기로운 음악생활 - 이세준&홍경민&김중서, 스페셜게스트 왁스 1.2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박중훈&웅산 재즈 콘서트 2.1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트로트 빅쇼 - 신유&진성 4.2.(토)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가족 어린이

극단 동그라미그리기 <팔죽할멈과 호랑이> 2.19.(토)~4.3.(일)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극단 영 <비발디의 사계> 4.6.(수)~5.6.(금)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2022 디즈니 인 콘서트 5.21.(토)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문화가 있는 날

BSCC 배시시 명품극장 4.27.(수),5.25.(수),6.29.(수)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지역 프로젝트

시민뜨락축제 4.22.(금)~5.20.(금) 매주 금요일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

2022 BSCC S/S 시즌 패키지티켓

BSCC S/S Package Ticket

패키지 구성오픈 안내 및 유의사항

BSCC S/S Package Notice

무용·국악 패키지 (40%) (100매 한정) 3편 동시 구매 시 40%할인 종료

㉠ 180,000 > 108,000 ㉡ 120,000 > 72,000

- 안은미컴퍼니 <드래곤즈>
- 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
- 김준수&하윤주&두번째달 <팔도유람>

연극 패키지 (50%) 3편 동시 구매 시 50%할인 종료

㉠ 90,000 > 45,000 ㉡ 60,000 > 30,000

- 극단 배우창고 <단편소설집>
- 극단 돌파구 <XXL 레오타드 만나수이 손거울>
- 빅피쳐스테이지 <코마>

월드콩쿠르 우승자 패키지 (40%) (100매 한정) 4편 동시 구매 시 40%할인 매진

㉠ 220,000 > 132,000

-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 - 앙코르
- 드미트리 마슬레예프 피아노 리사이틀
- 임지영 & 홍민수 듀오 리사이틀
- 레이 첸 & 선우예권 슈퍼 듀오 콘서트

NT Live 패키지 (30%) 2편 동시 구매 시 30%할인 종료

40,000 > 28,000

- NT Live Series I -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 NT Live Series II - 다리에서 바라본 풍경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패키지 종료

- 7개 공연 동시 구매 시 40%
- 6~4개 공연 동시 구매 시 30%
- 3~2개 공연 동시 구매 시 20%
- ※ 거장과의 만남은 패키지 제외

패키지 구매 시 유의사항

- 패키지 예매는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와 고객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온라인예매: www.bscc.or.kr - 고객센터전화예매: 051-607-6000
- 모든 패키지는 동일 좌석등급으로 선택 가능합니다.(동일공연 중복선택 불가)
- 모든 패키지는 묶음구성이므로, 공연별 편당 취소는 불가합니다.
- 모든 패키지는 구성공연의 첫 공연 시작 이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패키지 취소는 첫 공연 전날 오후 5시까지, 전화 취소만 가능합니다.
 - 단, 첫 공연이 일요일 또는 월요일일 경우, 그 전주 금요일 5시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 패키지 구성 공연 중 일부 취소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공연은 패키지 할인율을 적용해 환불됩니다.
- 패키지 구성 공연의 상황에 따라 패키지 예매가 조기매진 될 수 있습니다.

패키지 문의 및 전화예매 (평일 09:00~18:00)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센터 051)607-6000(ARS 1번)
 - 한국어 문의(ARS 1번)
 - 외국어 문의(ARS 2번)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넷 회장

부회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임현경 신주레약국
임현숙 (사)아름다운 사람들 이사장

사무처장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이사회원

강대일 웰딩시스템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신호 (주)덕신체인 대표이사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충석 국제로타리3661 부산지구 총재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일반회원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영욱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종식 주식회사 JJK 회장
김 철 은중합병원 산부인과
김형우 (주)천마 대표이사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문민우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박혜빈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박흥근

삼강종합건설(주)

성원기

세무법인 인성

양은진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경철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이상수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에리카정애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이현숙

임은자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민섭

(전)국회의장

정의화

속편한내과 원장

조성락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조종래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하정태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한원우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후원회 전용 룸 이용



대극장 좌석 네이밍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회원패 증정



무료 주차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단위 : 만 원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회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배우자 무료	본인·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 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팀(051-607-6123)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회원가입

가입신청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 051)607-6000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공통혜택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 발급(10일 이내) · 선 예매 서비스제공(일부공연 제외)
-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우송(1년)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 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라온지 무료 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음료 등 제공)
- 부산시내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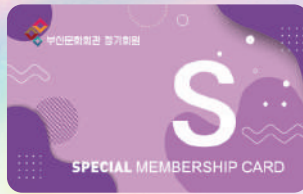
VIP

연 회 비 : 10만원
 초 대 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각 4매 증정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에 따라 선착순 예약 마감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좌석 중에서 예약 가능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 ※ 지정된 기획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를 통해 따로 공지 (조기마감)
- ※ 부산시립예술단: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SPECIAL

연 회 비 : 5만원
 초 대 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4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MEMBER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연 회 비 : 3만원
 초 대 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가입단체 공연 초대권 2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 ※ 가입단체 초대권 증정, 비가입단체는 예술단 공연 입장료의 할인이 달라질 수 있음.

(재)부산문화회관 유료회원을 위한 선 예매 서비스 제공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2021년부터 유료회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 예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 예매는 일반 예매에 앞서 유료회원에게 사전 예매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좋은 좌석을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공연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일부 공연 제외)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도 유료회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입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지원센터 TEL. 051)607-6000 FAX. 051)607-6119 *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법인 가족과 나누는 특별한 시간, 더 큰 문화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BSCC Business Membership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법인이라면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

- 01 **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 북 교환권으로 유료 판매하는 공연 프로그램 북을 교환해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즐기세요. ※ 선예매 서비스 제공
- 02 **멤버십 전용 카드 및 이벤트 제공**
회원카드에 기업 로고를 표기해드립니다. 법인회원 멤버십을 위한 회원 전용 초청 이벤트로 예상치 못한 초대의 즐거움까지 함께 누리보세요.
- 03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
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등급 (가입기간 1년)				
연회비(발급 카드)		500만 원(50매)	300만 원(30매)	100만 원(10매)
공통혜택		회원카드 기업 로고 표기 공연 및 전시할인(20~50%)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발송 회원 라운지 무료 이용 (회원카드제시 시) 회원 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 문화회관 주차장 무료 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제휴업체 할인(업체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등급별 추가 혜택	기획공연 유료 프로그램 북 교환권	90매	60매	30매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6개월	3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광고	2회	1회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6개월	3개월	1개월
	회관 공식 SNS 홍보(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토리, 블로그)	6개월	3개월	1개월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개발팀(051-607-6114~7, www.bscc.or.kr)

특별한혜택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Busan Cultural Center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 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22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2022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Da Capo

1월 7일(금)-1월 19일(수) **종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챔버홀(회차별 20매)

콘서트 ‘슬기로운 음악생활’ **종료**

이세준&홍경민&김종서, 스페셜 게스트 왁스
1월 23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박종훈&웅산 재즈 콘서트

2월 13일(일) 오후 5:00 **종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NT-Live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2월 26일(토) 오후 3:00 **종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40매)

안은미컴퍼니 ‘드래곤즈’

3월 4일(금)-5일(토) 금 오후 7:30, 토 오후 3:00 **종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40매)

연극 ‘단편소설집’

3월 18일(금)-19일(토) 금 오후 7:30, 토 오후 3:00 **종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40매)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양코르’
3월 19일(토) 오후 5:00 **종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김준수&하윤주&두번째달

팔도유람
4월 17일(일) 오후 5:00 **종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40매)

NT-Live ‘다리에서 바라본 풍경’

4월 30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4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

‘드미트리 마슬레예프 피아노 리사이틀’
5월 6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2022 디즈니 인 콘서트 :Believe in Magic’

5월 21(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연극 ‘XXL 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5월 20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40매)

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

5월 13일(금)-14일(토) 금 오후 7:30, 일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빅피쳐스테이지 ‘코마’

6월 10일(금)-11일(토) 금 오후 7:30, 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4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III

‘임지영&홍민수 듀오 리사이틀’
7월 22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IV

‘레이 첸 & 선우예권 슈퍼 듀오 콘서트’
9월 3일(토) 오후 5:00 **종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 1인 1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문의 | 고객개발팀(051-607-6116)

Busan Cultural Center
VIP

부산문화회관

플러스 회원 가입 캠페인

일상을 컬러
문화를 파워



하계
하계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품격 높은 문화도시부산의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플러스 회원 가입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온라인 무료 회원인 플러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문자를 통한 공연 알림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 공연 정보가 담긴 뉴스레터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플러스 회원 가입으로 설렘과 감동의 순간을 함께하고 푸짐한 경품 혜택도 누리세요!**

| 대상

캠페인 기간 중 가입한 회원

| 가입기간

2022년 3월 1일(화) ~ 6월 30일(목)

| 참여방법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모바일

| 당첨자 발표

2022년 7월중, 당첨자 개별공지

| 경품내용

선물1	20명	부산문화회관 VIP회원권(10만원 상당)
선물2	30명	부산문화회관 스페셜회원권(5만원 상당)
선물3	50명	부산문화회관 예술단회원권(3만원 상당)
선물4	100명	해리스 카페 아메리카노 쿠폰(5천원권)
선물5	100명	부산문화회관 월간지 <예술의초대> 1년 구독권
선물6	100명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5대

플러스 회원 가입 캠페인

QR코드를
간편가입!



이름

아이디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위해 필요합니다.

전화번호

홈페이지 로그인 시 최초 비밀번호로 설정됩니다.

이메일

주소

이벤트 당첨 시 기재해 주신 주소로 경품 발송됩니다.

SMS/이메일 수신동의

플러스 무료 회원의 혜택인 공연 문자 알림과 뉴스레터 수신을 위하여 SMS/이메일 수신동의는 필수입니다.

정보제공 활용동의

제공해주시는 개인정보는 (재)부산문화회관의 회원 가입 및 공연정보등을 제공하고 경품 추첨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신 경우 플러스 회원 가입이 불가능하며, 경품 추첨에 제한이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時代가 人間 에게 던지는 질문



10 人間 100 人間 100 界 밖



문의 채널

2022년 부산시립극단 장막 희곡 공모

응모자격

제한없음 (단, 미발표 순수 창작품에 한함)

공모부분

창작 희곡 (원고지 250매 이상으로 대극장 공연이 가능한 작품)

접수기간

2022. 7. 11.(월) ~ 7. 29.(금) 17:00까지

제출서류

- [별지1] 공모 신청서 1부
- [별지2] 작품의도 및 줄거리 1부
- [별지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별지4] 창작 희곡 원고 1부
(한글파일 혹은 워드파일로 표지 작성 후 함께 제출)

접수방법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혹은 우편접수
이메일접수: 0308side@bscc.or.kr
우 편 접 수: 2022. 7. 29.(금) 도착분에 한함 (방문접수 불가)
단, 공모신청서는 이메일 접수로 마감시간 엄수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대연동 848-4)
부산시립예술단 시립극단 담당자 박지현 앞

최종발표

2022년 8월 중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공지 및 개별 유선통보

시상내역

당선작 1편 상금 3,000만 원
*시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당선자 부담

유의사항

- 저작권 등의 문제 발생 시 당선 취소 및 표창, 수상금 회수 조치
- 수상여부와 상관없이 응모한 원고 및 자료에 대한 반환 및 비용청구 불가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은 공모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폐기 예정)
- 공연 제작시, 필요에 따라 작품 수정/변경 가능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작품이 없을시 수상하지 않음

문의

- 부산시립극단 051)607-3127
- E-mail : 0308side@bscc.or.kr

2022

시민뜨락축제

스트리트 문화, 힐링 콘서트!



일시

2022. 4월 22일(금) ~ 5월 20일(금)
매주 금요일 / 12시 20분

장소

부산시민회관 광장 야외무대

입장료

무료

일정	단체명	장르
4월 22일	블루양상블	클래식
	댄스팀 룩스	대중댄스
4월 29일	얼터너티브 국악그룹 초아	퓨전국악
	알싸게또마부산플라멩코	댄스(플라멩코)
5월 6일	퓨전국악밴드 비원	퓨전국악
	Project A	스트리트 댄스
5월 13일	이플림 양상블	클래식
	여쿠스틱 나무의자	포크음악
5월 20일	부산시립합창단	클래식

당신을 웃게 하는 또 다른 감동!

배시시 명품극장

예술의전당 공연실황을 시민회관에서!

2022. 4. 27. ~ 11. 30.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19:00
(1일 1회 기준)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전석무료(지정좌석제)

관람신청 | 부산시민회관 www.bscc.or.kr

문의 | 051. 607. 6000(ARS 1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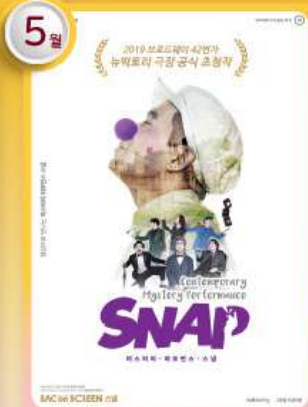
주최/주관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 | 예술의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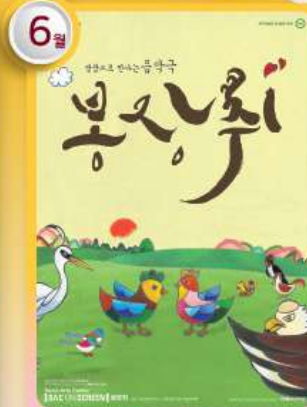
달래이야기
2022. 4. 27.(수)

연극 |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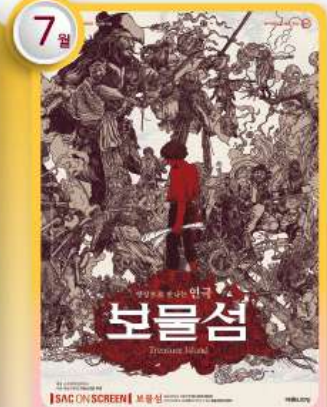
스냅
2022. 5. 25.(수)

연극 | 5세 이상 관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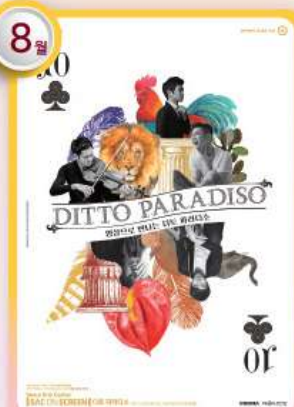
봉장취
2022. 6. 29.(수)

연극 | 3세 이상 관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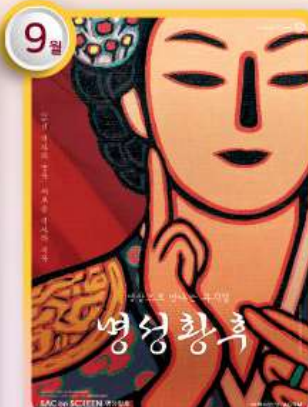
보물섬
2022. 7. 27.(수)

연극 |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디토 파라디소
2022. 8. 31.(수)

클래식 |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명성황후
2022. 9. 28.(수)

뮤지컬 |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굿모닝 독도
2022. 10. 26.(수)

뮤지컬 |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춤이 말하다
2022. 11. 30.(수)

현대무용 |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2022 빅마마 전국투어 콘서트

BigMama



다
나
오
파
다

ReBorn

2022. 04. 30 (토) 18:0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kakao
ENTERTAINMENT



공연이야기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

2022.4.21THU 7:30PM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Busan Cultural Center

도흐나니 • 현악 3중주를 위한 세레나데 中 1악장, 2악장, 5악장
Dohnányi • Serenade for String Trio in C major, Op.10

스메타나 • 현악 4중주 제1번 “나의 생애로부터”
Smetana • String Quartet No.1 in E minor, "From my life"

멘델스존 • 현악 8중주
Mendelssohn • Octet in E-flat major, Op.20

Vn. 임흥균, 이은옥, 김영준, 서은아,
시명운, 우소라, 임지영
Va. 황여진, 이성호, 김상철, 윤술샘
Vc. 이일세, 김판수, 김민승, 최지현

587

AURORA BOREALIS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2022

Soo-Yeoul Choi
Artistic Director &
Chief Conductor



오로라

지휘 최수열
바이올린 양인모(2022 올해의 예술가)

시벨리우스 / 바이올린 협주곡
시벨리우스 / 교향곡 제2번

2022년 5월 13일 금요일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창단60주년
부산시립교향악단

티켓
문의 R20,000원 S15,000원 A10,000원 B5,000원
051-807-8000(ARS 1번)

www.bscc.or.kr



전래 동요에 의한 가족 음악극

옛날 옛적에

2022. 5. 4.(수) 19:30

5. 5.(목) 10: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이기선 연출 박정우 극본 및 작곡 이진실 편곡 이상열
연주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이삼열밴드

COUPON



30% Discount

갤러리안경(전 지점)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노벨안경콘택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해리스커피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Busan Cultural Center

배시시(BSCC)TV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유튜브채널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유튜브 채널 '배시시(BSCC)TV'입니다.
'배시시' 이름처럼 많은 분들의 입가에 배시시 미소를 짓게 할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 전달합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부산의 문화 소식을 쉽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검색

유튜브 검색창에 '배시시tv'를 검색해보세요.

COUPON



20% Discount

공간소극장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
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1만원 썸머니
(\$100 이상 구매 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쿠폰 소지회원 출국당 1월 1회,
당사 규정에 따라 증명합니다.



사진 맛집 BSCC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BSCC #사진 맛집
#BSCC사진맛집 #부산시민회관야외광장 #포토 존



여러분이 포착한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의 아름다운 장면과 공간들을 공유해주세요!
주제에 맞는 곳에서 진행되는 공연이나 풍경 등을 담아도 되고, 여러분의 멋진 포즈를 담아도 좋습니다!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에서는 매회 주제에 맞는 멋진 사진을 공유해주시는
5분을 선정하여 상품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2022년 3월 29일(금)~5월 15일(일)

포토존 주제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

참 여 방 법 인스타그램 피드 내 개별 사진 업로드
※ 관련 해시태그 필수 : #BSCC사진맛집 #부산시민회관야외광장

당첨자 발표 - 총 5명 발표(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 예술의초대 6월호 및 SNS채널 내 당첨자 발표

유 의 사 항 - 제출 사진의 규격 및 해상도 제한 없으나 인스타그램 채널 내에서 허용 가능한
사진으로 제출
- 당첨자에 한해 담당자 이메일로 원본 사진파일 발송 필수
- 해당 이벤트에 당첨된 사진은 (재)부산문화회관 SNS 채널 및 예술의초대에 게재,
사용될 수 있음
- 당첨 상품은 모바일 쿠폰으로 제공되며, 상품은 변경될 수 있음
- 해당 이벤트에 참여 저조 등의 이유로 당첨자가 없을 수도 있음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홍보팀 051-607-6126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2. 4. 30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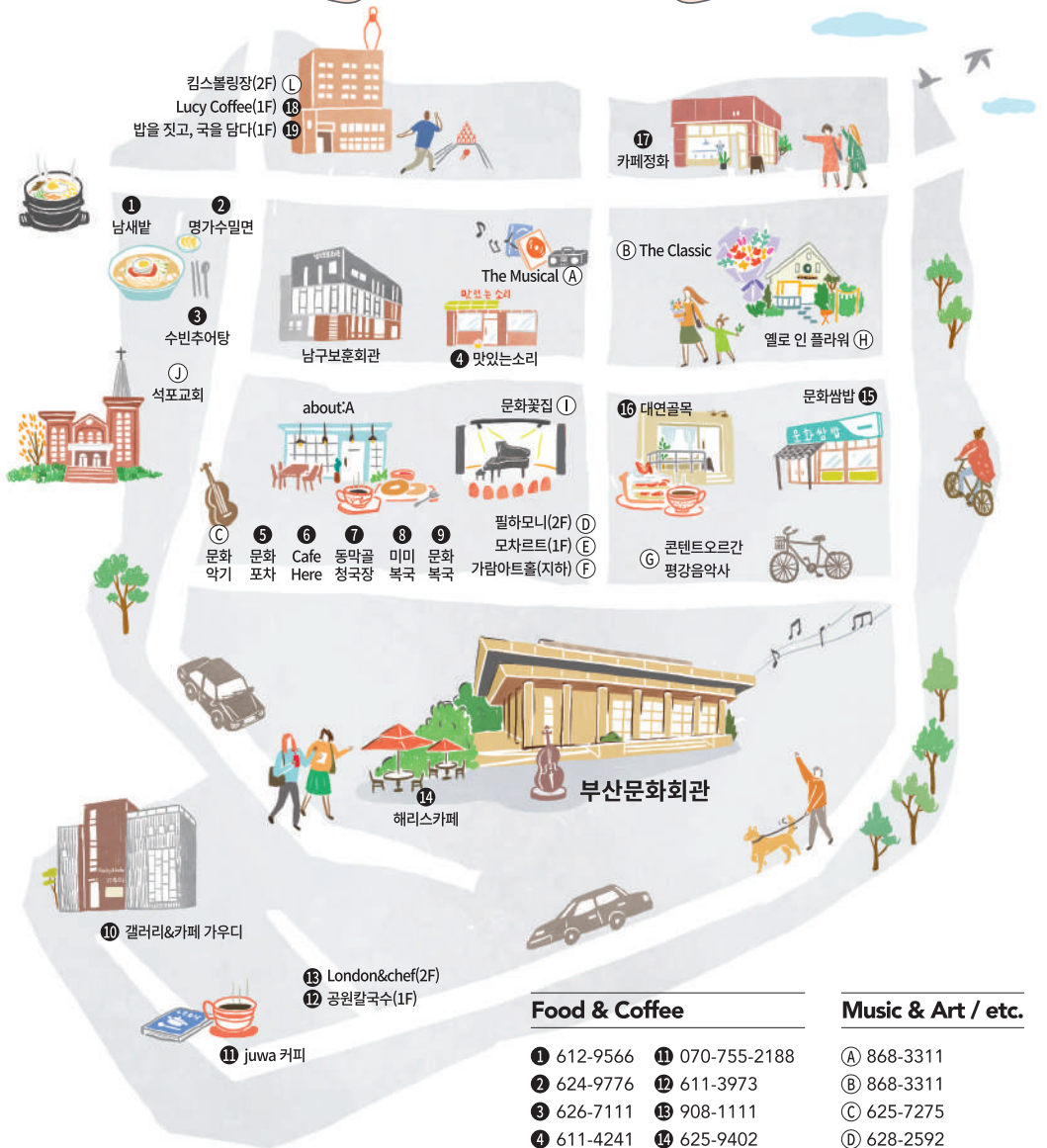


공간소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242
(지하철 2호선 대연역 내)
051)611-8518

Surrounding map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Food & Coffee

- ① 612-9566 ⑪ 070-755-2188
- ② 624-9776 ⑫ 611-3973
- ③ 626-7111 ⑬ 908-1111
- ④ 611-4241 ⑭ 625-9402
- ⑤ 626-4448 ⑮ 626-2292
- ⑥ 622-7412 ⑯ 010-3996-6498
- ⑦ 611-3589 ⑰ 623-0772
- ⑧ 628-8009 ⑱ 628-3832
- ⑨ 621-7040 ⑲ 714-3559
- ⑩ 621-5788

Music & Art / etc.

- Ⓐ 868-3311
- Ⓑ 868-3311
- Ⓒ 625-7275
- Ⓓ 628-2592
- Ⓔ 622-1456
- Ⓕ 621-6669
- Ⓖ 626-7900
- Ⓘ 080-337-3370
- Ⓙ 622-9722
- Ⓚ 625-8704

COUPON



해리스커피

음료 2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부산문화회관 내
1577-2307

COUPON



노벨안경콘택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 상품
2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52-2
051)626-8263

COUPON



갤러리안경(전 지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대상
30% 할인(일부품목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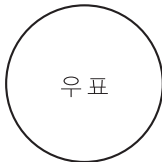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로 50
051)513-4500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받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 이번 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
.....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
.....

3. 개선해야 할 점은?

.....
.....



I N V I T A T I O N T O T H E A R T S

2022

4

APRIL






UNIVERSAL BALLET

도키호테

Don Quixote

2022. **5.13**(금) 19:30, **14**(토) 1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주최 |  부산문화회관  국제신문 출연 | 유니버설발레단 티켓 |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문의 및 예매 | www.bscc.or.kr / 051-607-6000(ARS 1번) 48개월 이상 입장가능